

PAJU CULTURE 2009

坡州文化

23



파주문화원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위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2009년 제23호

파주문화



파주문화원

발간사



파주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적 연구와 향토애의 확산을 모색하고, 더불어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적 성장과 변화의 발자취를 담아온 「坡州文化」 제 23호를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坡州文化」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지역 향토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시고 수많은 연구 결과와 저작을 발표하신 이기현 문화원 고문께서 「울곡선생의 유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우리지역의 자랑스런 선현이신 울곡 선생의 일생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의 글들을 모아 엮어주셨습니다. 산수(傘壽)의 나이를 넘어 열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지역의 역사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아름다운 연가(戀歌)로 풀어낸 「최경창과 홍랑, 그 불멸의 사랑이야기」,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효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담은 「효의 정신과 생명론」, 그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이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학도의용군 파주지회를 찾아서」 등 우리 지역의 역사에 관련한 소중한 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일견 하면 지나온 시간의 기록들을 책으로 엮는 작업은 속도와 변화를 중시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으나,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와 유리된 미래가 없듯이 과거에 대한 정리와 전승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것이며, 때문에 23년이라는 오랜 기간 한결같이 지속되어온 파주문화 발간 작업은 우리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소중한 발자취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대 파주문화의 기록과 전통속의 가르침을 담아내고자 한 「坡州文化」 제 23호가 '문향파주(文鄉坡州)'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시의 문화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읽혀지기를 기원하며, 책의 발간을 위해 소중한 옥고를 제공해 주신 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3호

파주문화



Contents

발간사

23호를 펴내며민태승02

화보와 단신

2009년 파주문화 이모저모편집실04

2009문화예술 - 단신편집실33

기획 | 단편으로 만나는 파주시지

연행과 능행정승모39

파주의 사족과 서원정만조62

기고

효의 정신과 생명론을 세계적 브랜드로심성구85

최경창과 홍량 · 그 불멸의 사랑 이야기이윤희100

학도의용군 파주 지회를 찾아서권효숙114

향토의 맥

울곡 선생과 신사임당의 발자취를 찾아서이기현117

거룩한 의성 허준선생의 얼민태승145

안중근 도마의 심금을 새겨본다심준우149

2009 이달의 독립운동가

4월의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151

8월의 독립운동가 박찬익 선생152

5월의 문화인물 심상각 선생153

울곡문화제 수상작품

울곡백일장154

사임당 미술대회162



표지 사진
파주시지

파주문화 23호

발행일: 2009년 12월 / 발행처: 파주문화원 / 발행인: 민태승 / 인쇄: 승림디앤씨

※ 이 책은 비매품이며 시비보조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임진강 민속축제

• 일 시 : 2009. 2. 8
• 주 최 : 파주시

• 장 소 : 임진각 평화누리
• 주 관 : 파주문화원



개막식



민속놀이



봉산탈춤



연날리기



짚풀공예품전시회



전통 줄타기

종로문화원 방문

• 일 시 : 2009. 4. 9
• 주 최 : 파주 · 종로문화원

• 장 소 : 서울종로구 일원
• 내 용 : 상견례 및 유적답사



자매결연문화원 간담회



창덕궁 탐방



기념촬영



청와대 관람



녹양원에서



칠궁 관람

청소년예절교육

· 일 시 : 2009. 4. 21
· 주 최 : 파주시

· 장 소 : 교하향교
· 주 관 : 파주문화원



청소년예절교육 개교식



명륜당에서



충효예 강의



공수법 교육



전통다례 교육



교육 후 기념촬영

뛰뛰빵빵 주말버스학교

• 일 시 : 2009. 4. 25
• 주 최 : 경기도 파주 교육청

• 장 소 : 선사유적 및 박물관
• 주 관 : 파주문화원



개교식



기념촬영



전곡리 선사유적지



활의 역사 설명



활 만들기 체험



영집궁시 박물관

문화가족 유적답사

• 일 시 : 2009. 4. 30 / 5. 7
 • 주 최 : 짜주문화원

• 장 소 : 서산 예산 일원
 • 내 용 : 관외 유적답사



해미 읍성에서



해미 읍성 내부답사



개심사



서산마애삼존불



유적지 해설



고건축 박물관

신사임당 추모 헌다례

- 일 시 : 2009. 6. 23
- 장 소 : 울곡선생 유적지
- 주 관 : 자운서원
- 협 찬 : 파주문화원, 파주시 유림총연합회, 사임당 추모 선양회



신사임당 5만원권 발행기념 헌다례



제관 및 집사 입장



배례



분향



헌다



기념촬영

2009 경기민속예술제

• 일 시 : 2009. 9. 4

• 장 소 : 용인시 공설 운동장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 출 전 : 금산리 농사소리



인천권 문화유산 답사

• 일	시 : 2009. 9. 23	• 장	소 : 인천시 일원
• 주	최 : 파주문화원	• 내	용 : 인천권 문화유적답사



인천권 문화유산 답사



박물관 관람



차이나타운 거리 답사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 시가지 해설

울곡문화제

• 일 시 : 2009. 10. 10
• 주 최 : 파주시

• 장 소 : 울곡선생유적지
• 주 관 : 짜주문화원



개막식



기념식수



울곡선생추향제



울곡선생추향제 2



울곡선생추향제 3



울곡선생추향제 4



울곡기념관 개관식



울곡서예대전



봉산탈춤 공연



줄타기



울곡 취타대



예술체험



서예 퍼포먼스



전통혼례



전통다례 시연



스튼재즈 초청공연



서원음악회



서원음악회 2

용주서원 전통문화학교

• 일	시 : 2009. 12. 12	• 장	소 : 용주서원
• 주	최 : 파주문화원	• 주	관 : 월롱초교 영도초교



도포입고 기념촬영



용주서원 참배



연 만들기



연 만들기 2



연 날리기



활 만들기 체험

청소년 파주유적지 답사

· 일 시 : 2009. 12. 23
· 주 최 : 파주시

· 장 소 : 만통선 이북 문화유적지
· 주 관 : 파주문화원



경의선 열차화통



도라전망대에서



자유의 다리



제3땅굴 관람 준비



평화의 종 앞 기념촬영



허준 묘 답사

파주해넘이축제

• 일 시 : 2009. 12. 31
• 주 최 : 파주시

• 장 소 : 교하 심학산
• 주 관 : 파주문화원



해넘이 공연



루미나리에 점등



소망풍선 날리기



초청가수 공연



파주시립 합창단



불꽃놀이

2009 파주문화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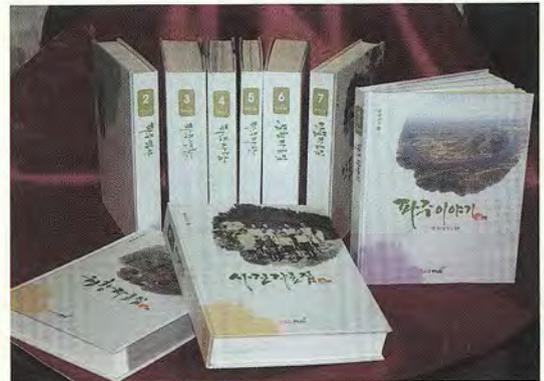
신년인사회 (1월 5일, 시민회관)



짚풀작품 제작
(1월13일, 탄현 문지리 노인정)



경기도문화원사무국장협의회
(1월 16일 황희선생유적지)



파주시지 발간 (2월4일)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월20일, 시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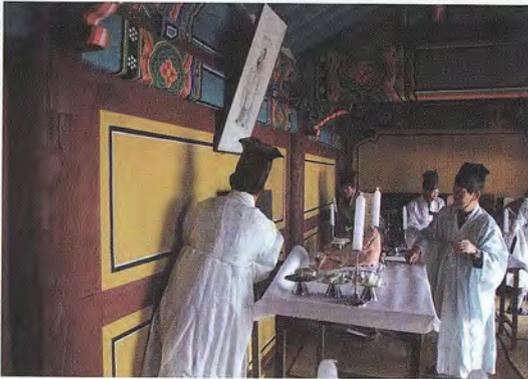




제41차 파주문화원정기총회
(2월 26일, 교육문화회관)



제5대·6대 여흥회장 이취임식
(4월 3일, 시민회관)



적성향교 제향
(3월 3일, 적성 구읍리)



적성향교 제향 2



방촌영당 제향 (3월 6일, 문산 사목리)



방촌영당 제향 2

2009 짜주문화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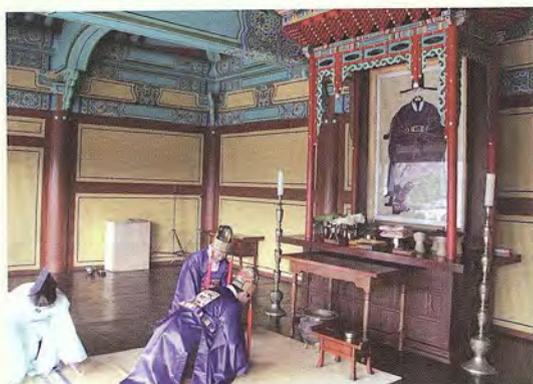
파산서원 제향 (3월 13일, 파평 늘로리)



파산서원 제향 2



여충사 제향 (4월 5일, 광탄 분수리)



여충사 제향 2



윤기섭 선생 추모행사 (4월22일, 서울 백범기념관)



윤기섭 선생 추모행사 2



월계단 제향 (4월 25일, 법원 동문리)



월계단 제향 2



뮤지컬 정글북 공연 (5월 1일, 시민회관)



파주향교 서재 준공 (5월 11일, 파주 파주리)



파주향교 추계 석전 (5월 11일, 파주 파주리)



파주향교 추계 석전 2

2009 짜주문화 이모저모



경기북부문화원장협의회
(5월 13일, 파주시)



경기북부문화원장협의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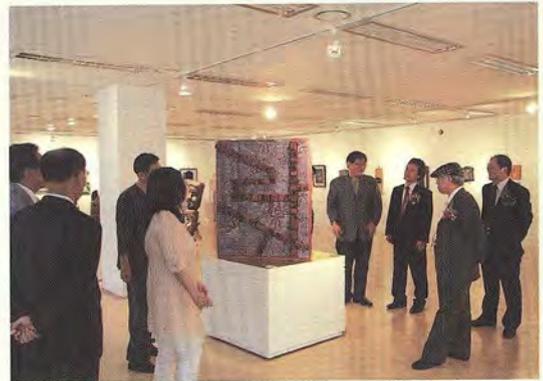
교하향교 학생예절교육
(5월 16일, 석곶초교)



주부클럽연합회 사임당 묘소 참배
(5월 19일, 법원 울곡선생유적지)



술이홀 락 새김전 (5월 23일, 교하도서관)



술이홀 락 새김전 2



파주단오축제 (5월 23일, 파평 쇠꼴마을)



파주단오축제 2



심학산돌꽃이꽃축제 (6월 2일, 심학산 일원)



심학산돌꽃이꽃축제 2



심학산 정상음악회 (6월 5일, 교하 심학산)



청소년 종합예술제 (6월 12일, 시민회관)



장단역 증기기관차 외부공개
(6월 25일, 문산 임진각)



짱! 짱이에요! 국악소리
(7월 26일, 시민회관)



파주시 유림총연합회 창립총회
(6월 12일, 시민회관)



파주시 유림총연합회 창립총회 2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유제
(7월 11일, 영릉)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유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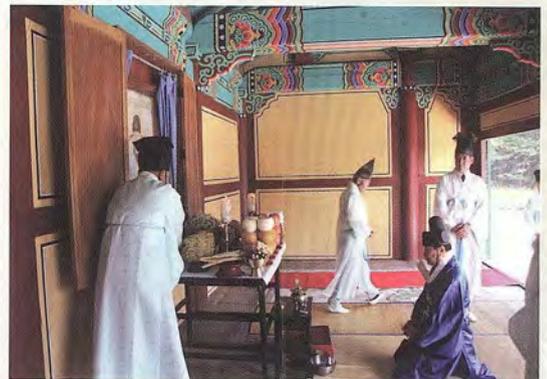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
(7월 29일, 법원 법원리)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 2



방촌영정각 제향
(9월 26일, 탄현 금슬리)



방촌영정각 제향 2



방촌영정각 제향 3



파주시립합창단 작은 음악회
(7월 31일, 파주읍)

2009 짜주문화 이모저모



청소년 문화존
(8월 15일, 문산청소년 문화의집)



부모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8월 22일, 서울시립미술관)



경기소리보존회정기공연
(9월 18일, 시민회관)



경기소리보존회정기공연 2



종로 문화원 짜주 방문
(10월 7일, 임진각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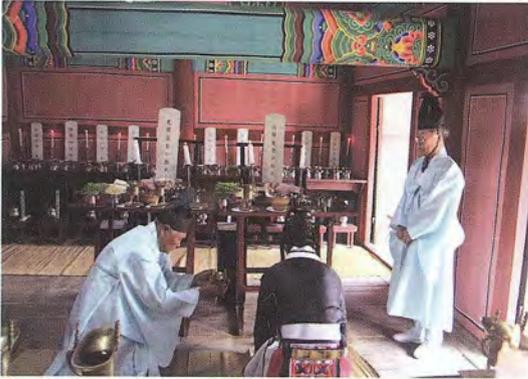
종로 문화원 짜주 방문 2



교하향교 추계석전 (9월 28일, 금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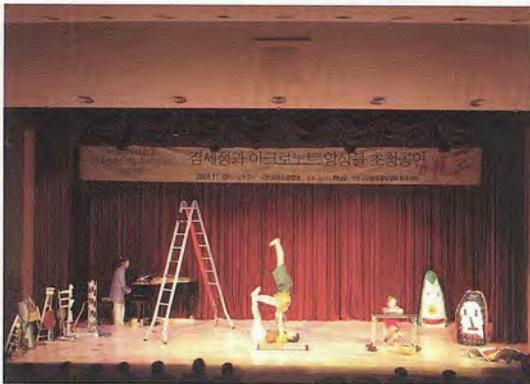
교하향교 추계석전 2



교하향교 추계석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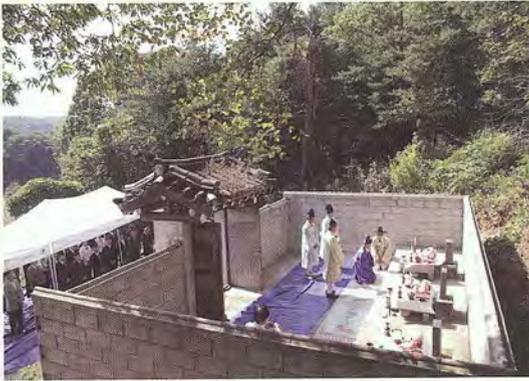
교하향교 추계석전 4



에코 공연 (11월 18일, 시민회관)



에코 공연 2



동헌단 제향 (10월 9일, 법원 오현리)



동헌단 제향 2



동헌단 제향 3



성사영묘 석전대제
(10월 15일, 광탄 마장리)



성사영묘 석전대제 2



성사영묘 석전대제 3



동부동 도림제
(11월 18일, 파주 파주리)



동부동 도림제 2



동부동 도림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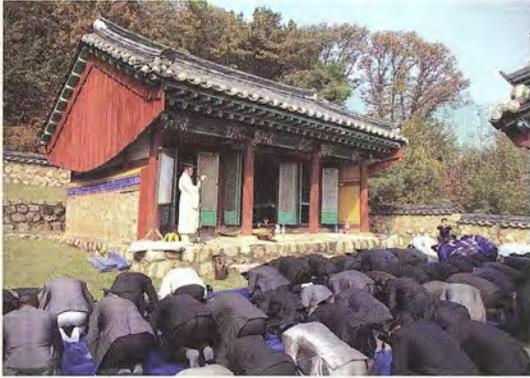
동부동 도림제 4



청소년 어울마당
(12월 5일, 금촌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어울마당 2



용주서원 추향제
(10월 26일, 월릉 덕은리)



용주서원 추향제 2



용주서원 추향제 3



청소년건전놀이교실 (12월 16일)



주말체험교실
(12월 13일, 문산청소년 문화의 집)



주말체험교실 2



장단콩축제 (11월 20일, 문산 입진각)



장단콩축제 2



장단콩축제 3



장단콩축제 4



문화학교 수료작품전
(12월 14일, 시민회관)



문화학교 수료작품전 2

2009 짜주문화 이모저모



송년 자선음악회 (12월 16일, 시민회관)



송년 자선음악회 2



전통춤과의 아름다운 만남
(12월 28일, 시민회관)

● 희망을 띄워 올리다 -임진강민속축제 성료

정월 대보름인 2월 8일 파주시에서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에서 주관한 '2009 통일기원 임진강 민속축제'가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축제에는 류화선 시장을 비롯한 민태승 문화원장, 신충호 시의회의장, 임우영·김광선 도의원, 박찬일·김정대·홍덕기·박광섭·최영실 등 시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주민, 관광객,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류화선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마다 정월대보름 즈음에 열리는 이 축제는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며 일 년 간 펼쳐질 파주축제의 시작을 여는 의미도 있으니, 축제를 통해 전통문화의 소중함도 느껴보고 임진각을 중심으로 변해가는 파주의 미래도 상상해보기 바란다 고 말했다. 개회식,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펼쳐진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방식으로 연을 만들어 높이 멀리 날려보기, 묘기연 시연, 명사 연날리기 강연 등의 연 관련 프로그램과 파주집품공예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 및 공예품 전시, 집품공예품 경매, 달집 태우기 등이 있어 참여한 가족 및 어린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파주시종합자원봉사 센터에서 준비한 먹거리한마당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예로부터 즐겨 먹었던 오곡밥, 나물밥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었다.

● 빵을 굽듯 책을 만드는 책마을 사람들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국내외 어린이책의 예술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책을 매개로 한 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 온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열렸다.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도시'라는 주제로 올해 7회째 진행된 파주 어린이 책잔치는 (재)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출판도시문화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생태와 건축적 조형이 어우러진 도시에서 주제에 맞는 작가의 글과 독자의 상상이 만나 소통하는 책 속 세계처럼, 자연과 도시가 공동체 안에 녹아드는 행사로 구현, 어린이들에게

책은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맘껏 뛰어 놀 놀이터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문객들은 질문이 숨겨진 종이를 갖고 아이 스스로 탐정이 돼 테마전시장 곳곳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내가 꾸미는 활동-새롭게 태어나는 장소',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순수 창작 그림책들에 실린 원화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린 '신간 아트프린팅전 2009' 등 다양한 놀이와 전시가 있어 모두 즐거운 표정이었다. 또한 어린이날에는 책 쌓기, 책 릴레이, 북 도미노, 박 터뜨리기 등 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기가 동원된 '북 올림픽'과, 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지식도 뽐내보는 '독서 퀴즈 대회'가 개최되어 즐거움과 유익함을 함께 주는 알찬 행사가 되었다.

● 불경기에 찌든 마음 훌훌 털어내고 -금촌 거리문화축제



시민과 함께하는 제9회 금촌거리문화축제가 5월 16일부터 17일 금촌 문화로와 명동로 일대에서 시민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파주경찰서, 파주JC, 한국무용협회 파주지부가 후원한 이번 축제에는 금촌1, 2동 주민자치위원회,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파주연천축협, KT파주지점, 금촌 새마을문고, 금촌 농협, 파주시산림조합, 한국전력 파주지점, (재)한국청소년건강문화육성재단 경기지부가 공동 협찬하여 의미를 더했다. 최창식 금촌분영회장은 대지를 화사하게 수놓던 봄꽃들의 향연에 이어 나뭇가지마다 녹색 옷을 갈아입은 계절의 여왕 5월에 파주의 중심지 금촌 문화로와 명동로 거리에서 제9회 금촌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불경기로 찌든 그동안

의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가족과 친구, 선후배와 함께 축제의 시간을 맘껏 즐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행된 축제 첫날에는 식전행사와 축하공연, 개막식, 청소년가요제에 이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통일 줄넘기대회, 장기자랑, 알라알라발리댄스 공연, 명동시민가요제, 난타공연 등이 펼쳐져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꽃과 책, 자연이 함께하는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



‘꽃과 희망이 지지 않는 나라’를 테마로 한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파주 출판단지, 돌꽃이 꽃마을, 헤이리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해발 194m의 심학산 아래에서 자연 지형과 시골 정취를 그대로 살려 펼쳐진 축제에는 꽃의 빛깔과 향기에 감탄하며 연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끌어주고 밀어주며 심학산 걷기대회를 완주하는 사람들, 꽃향기 책향기에 취해 행복해하는 가족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다. 꽃마차를 이용한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펼쳐진 이 축제는 제한된 공간에서 꽃을 전시하는 일반적인 꽃축제와 달리 산과 들, 자연에 씨를 뿌려 꽃을 키운 야생화축제로 자전거 대행진, 가족 걷기대회, 심학산 노을음악회, 사진전, 7080콘서트, 제11회 파주예술제, 닥종이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가 열렸다. 특히 폐막일 오전에 열린 ‘꽃길 자전거 대행진’에서는 3,000여명의 참가자들이 특수제작 자전거를 비롯해 2인용 커플자전거·3인용 가족자전거·초경량 자전거 등을 타고 서퍼리 일대의 꽃길과 자유로 10km 구간에서 자전거 2,400여대를 타고 달리는 일대장관을 연출했다. 류화선 파주시장은 폐막식인 희망선포식에서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는 이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전국 유일의 야생화 꽃축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유지하여 글로벌 축제로 거듭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여라~ 끼와 열정! -2009 파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시험과 공부에 힘겨워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2009파주시청소년종합예술제’가 파주시 주최,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 주관, 파주문화원과 파주교육청 후원으로 6월 12일부터 13일 파주 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개월 전부터 대중음악과 댄스 부문 등 각 종목의 예선을 치루고 올라온 청소년들은 “전부터 파주시 청소년들이 전부 모이는 곳에서 네일아트, 타투 등을 해보고 싶었다”며, “연습하는 과정이 힘은 들었지만 내 또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견을 밝혔다. 어느 해보다 뜨거운 경쟁과 열정 속에서 진행된 이 축제는 명실공히 청소년 문화의 흐름과 맥을 짚어낼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예술제와 함께 진행된 문화존 상상놀이터 “나는 청소년 예술가”에서는 예술제에서 배제된 비경연 부문의 청소년 동아리 실력자들이 모여 전시와 체험의 공간을 함께 만드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또한 독특한 의상과 가발로 행사장을 누빈 코스프레 동아리는 축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천연비누, 한지공예 전시 등은 청소년의 최대 관심인 환경과 전통이라는 테마를 적절히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조선왕릉 역사문화 생태체험 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3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조선왕릉’ 전체 40기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확정했다. 유네스코는 등재 평가보고서에서 “조선왕릉은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 양식으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년), 창덕궁, 수원 화성(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하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2007년)에 이어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7월 12일 총 40기의 조선왕릉 중

4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주시에서는 시의 대표적 역사유적인 장릉과 파주삼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조선왕릉 역사문화 생태탐험'을 문화재청 주최, 파주문화원과 파주삼릉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파주 시민과 인근지역의 참가자들 400여명이 함께 한 문화 생태 탐험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명에게 고하는 고유제(告由祭), 문화유산해설사들의 설명과 함께 하는 왕릉 답사, 잘 보존된 파주삼릉의 자연 생태를 숲 해설가와 함께 걷는 숲길 생태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 시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우며, 자녀와 함께 흔히 볼 수 없는 왕릉 제사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미공개 왕릉인 장릉과 역시 미공개 지역인 소령원(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묘)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전현의 얼을 되살리다 -제22회 울곡문화제 개최



파주가 낳은 조선시대 대표적 성리학자이며 경세가인 울곡 이이선생의 유덕을 추앙하며 33만 파주시민의 화합을 위한 제22회 울곡문화제가 새롭게 단장된 울곡 선영유적지에서 10월 10일 개최되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된 이번 울곡문화제는 오전 10시에 열린 개막식과 정비사업 준공 기념식을 시작으로 11시 30분에는 자운서원 강인당에서 '울곡선생 추향제가 성대히 봉행'되었다. '울곡선생 추향제'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초헌관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울곡 백일장과 신사임당 사생대회 등의 문예행사가 있었으며, 특별무대에서는 태권도공연, 가을 콘서트, 서원음악회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었다. 넓은 잔디광장에서는 중요무형문화제인 봉산탈춤과 줄타기, 판굿공연 등의 민속놀이가 펼쳐졌으며, 전국 울곡 서예전과 서각 전시회 등 각종 전시행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한마당이 되었다. 매년 가을 행사가 펼쳐지는 울곡선생 유적지는 연간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경내에는 자운서원을 비롯해 신사임당 묘, 이이선생 묘, 자운서원 묘정비, 이이선생신도비 등 많은 문화제가 있는 파주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이다. 또한 넓은 잔디광장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 한국인, 그 힘의 원천! -파주개성인삼축제



'2009 파주개성인삼축제'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임진각 광장에서 열려 인삼 요리 경연 대회, 인삼주 담그기 및 시음회, 인삼 비빔밥 시식회, 인삼 캐기 체험, 인삼 우유마시기 대회 등 인삼 관련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파주개성인삼판매장, 전통 음식 판매점, 인삼 음식 궁합 코너, 파주 임진강 쌀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 약초 재래 장터, 임진강 수산물 판매장 등의 먹을거리 판매장 터도 운영되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찾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 8개 지역에서 재배하던 개성인삼은, 현재 주생산지 대부분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파주시 장단면 일대가

그 주재배지인 셈이다. 파주시는 민통선과 감악산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6년 근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파주개성인삼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인 파주 개성 인삼 캐기 체험을 양일간에 걸쳐 직접 행함으로써 시민들이 민통선 내의 인삼밭에서 직접 인삼을 채취하는 체험을 가지도록 했다며 그 의의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한 김 모 씨(고양 중산동 거주)는 민통선 안의 인삼밭에 직접 들어가 가족이 함께 최고 품질의 6년 근 인삼을 직접 캐 수 있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생생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며, DMZ 청정 지역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 행사가 매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공연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주변에 착공될 이화여자대학교 파주 캠퍼스 조성을 축하하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사회 유영재, 총연출 강기영) 콘서트가 11월 18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화여대와 경기도, 파주시, CBS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예총 파주지부 주관, LG디스플레이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김세정 아크로 노트 앙상블-에코스(Echos)의 축하공연에 이어 이화 중창단과 이화여대 음대교수, 성악가, 가수 등이 출연해 늦가을 밤의 아름다운 선율을 한껏 선사했다. 이배용 이대 총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류화선 파주시장, 파주시와 경기도의원, LCD 임직원, 그리고 파주시민과 경기도민, 이화여대 관계자, CBS 청취자 등으로 이뤄진 1,500여

명의 관객들은 경기도 북부에 명문대학의 캠퍼스가 최초로 설립된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돼 즐거운 마음으로 콘서트를 즐겼다.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인 박해미는 “나는 이화여대 82학번”이라고 소개하며 “이 캠퍼스가 파주와 이화여대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가수 신호범과 안치환, 양희은의 무대에 이어 김지사 내외가 수화로 부른 ‘내가 만일’ 또한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화여대는 월롱면 영태리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 사유지 85만㎡에 2019년까지 행정본관, 언어교육관, 컨벤션센터, 국제교육연구센터, 연구동, 기숙사 등을 갖춘 파주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 밥상 위의 건강지킴이 -웰빙! 파주 장단콩 축제 성료



파주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장단콩을 3단계에 걸쳐 골라 우수한 품질의 콩만 시종보다 15 ~ 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2009 파주장단콩축제'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임진각에서 열렸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는 파주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가 열려 장단콩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다양한 음식으로 시현하였으며, 전통가마솥 순두부 체험, 장단콩 떡 만들기, 웰빙두유마시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맛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축제에서 파주시는 농특산물 판매마당에서 구입한 파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주차장까지 무료로 배달해주는 배달서비스를 운영하

는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타 축제와는 다른 고객중심의 서비스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영세 농가를 위해 한 평 남짓 제공된 150개의 좌판에서는 농가에서 수확한 소량의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여 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행사기간동안 90만 명의 방문객이 몰린 임진각 일대에서는 38억 원 어치의 콩 9000 가마와 기타 농산물 및 음식 등 총 80억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는 콩 판매 물량 면에서 지난해 판매량보다 5%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체 매출액은 10%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행사장을 찾은 류화선 파주시장은 “파주장단콩축제를 비롯해 가을 농산물축제 매출액이 파주시 전체 벼 수매액의 절반에 달한다”며 “파주장단콩 축제는 해가 갈수록 축제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는 생산적 축제”라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 아름다운 영상과 멋진 하모니 -제9회 파주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영화 속 아름다운 영상과 해설, 오페라가 함께하는 멋진 하모니 제9회 파주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2월 4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한성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송성철 지휘자가 총감독, 가수 이선희, 코리아W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로 2009년 마지막 콘서트 대미를 장식하였다. 1부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에서는 'La Traviata(춘희)'를 서곡으로 '축배의 노래', '아 그대였던가?' '집시의 합창', '투우사의 합창' 등의 오페라를 재현하여 관중들을 압도하였으며, 2부에서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 이선희의 미니콘서트가 한겨울밤의 추억을 선사하였다. 이어진 3부 '영상과 함께하는 영화음악'에서는 '팬텀오브오페라', 'Gabriel's Oboe(미션)', 'I



will follow him(시스터액트)', 'Moon River(티파니에서 아침을)', 'When you believe(이집트왕자)' 등을 영상과 함께 연주하여 색다른 감동과 재미를 전해주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립합창단의 울거울 마지막 정기연주회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연주회를 관람, 저물어가는 2009년의 풍요로운 선율을 가슴속 깊이 담아가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 세상을 바꾸는 힘, 희망 나눔! -파주시민 송년 자선음악회



“희망 2009 파주시민 나눔-세상을 바꾸는 힘” 송년자선음악회가 12월 16일 파주시 주최, 한국음악협회 파주시지부 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케이블TV, 서원밸리 골프클럽 등의 후원으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80여명의 단원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한 이날 음악회에 파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예전보다 더욱더 웅장하고 화려한 음색을 선보였으며, 세종대학교 학생들과 파주시 교회 성가대로 구성된 150여명의 합창단은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합창음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프라노 김한나와 테너 양일모, 베이스 김인수, 메조소프라노 최정숙, 바리톤 박찬일, 초대가수 박학

기가 부른 'La Gazza Ladra'를 비롯 '비코오즈송', '오 홀리 나잇', '투우사의 노래', '랩소디 인 블루', '아름다운 세상', '향기로운 추억', '교향곡 9번 라단조 합창' 등도 참여한 관중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이웃돕기 생방송 모금캠페인의 2부 행사로 진행된 이번 자선음악회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계획하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 참석한 류하선 시장은 “지나간 한 해는 파스함 속에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해 모두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파주 심학산 해넘이 축제



12월 31일, 한강과 임진강이 내려다보이고 멀리 서해바다를 아련히 바라다볼 수 있는 파주의 대표적 명산 심학산 정상에서 '2009 파주 해넘이 축제' 파주시 주최, 파주문화원 주관으로 열렸다. 올해로 다섯 번째 진행된 이 행사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시민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축제이다. 오후 5시 대북공연과 송년메시지로 시작된 이날 축제는 각자의 소원을 적은 희망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산을 흔들며 울려 퍼지는 남성중창공연, 초대가수 변진섭의 '희망사향'과 '새들처럼' 등이 힘겹게 산을 오른 시민들에게 힘과 위안을 전해주었다. 새롭게 선보

인 루미나리에는 심학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와 메인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겨울밤의 불꽃놀이와 어울려 해넘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파주의 석양은 바다의 수평선 위에 그려지는 다른 지역의 낙조와는 달리 붉게 물든 강물과 산야(山野)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자연의 걸작이다. 행사 관계자는 타 지역의 해넘이축제는 해맞이를 위한 준비프로그램의 성격을 갖지만 파주의 해넘이축제는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며, 해넘이를 마치고 임진강으로 이동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 2009년 마지막 날을 뜻 깊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리 : 김순자(파주문화유산 해설사)

여 백



연행과 능행

정 승 모 (지역문화연구소장)

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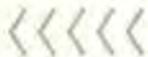
연행(燕行)이란 연경, 즉 북경에 간다는 뜻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꽤 많은 연행 기록을 남겼다. 반년 이상 걸리는 여정이다 보니 전별(錢別)의 절차도 간단치 않다. 돈의문(敦義門), 즉 서대문을 나와 영은문(迎恩門)의 모화관(慕華館)을 지나 홍제원(弘濟院)에 이르도록 전별 의식은 끝나지 않는다.

한양에서 의주 용만관(龍灣館)까지는 1,050리 길이다. 걸어서 가면 대개 반나절에 40리, 하루에 80리, 약 36km를 걷는다. 도중에 탄 짐을 안 하고 부지런히 걷는다면 의주에 이르는 데만 12-3일이 걸린다. 연행의 구체적인 노정(路程)은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문집 『담헌서(澹軒書)』(外集 10권) 연기(燕記)에 잘 나와 있다.

의주에서 책문(柵門)까지 120리, 책문에서 심양까지 453리, 심양부터 산해관까지 784리, 산해관부터 남관(南館)까지 680리로 모두 합치면 3,087리가 된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걸리는 거리의 두 배가 되므로 전체 연행일정은 적어도 40일은 잡아야 한다. 그러나 도중에 여행 장비도 새로 갖추어야 하고 지인(知人)도 만나야 하므로 연행은 대개 가는 데만 60일 넘게 걸리는 대장정인 것이다.

예를 들면 《조천기(朝天記)》를 쓴 하곡 허봉은 1574년 5월 11일에 출발하여 그 해 11월 3일에 귀국하였으므로 약 170일이 걸렸다. 《연도기행(燕途紀行)》을 쓴 인평대군은 1656년 8월 3일에 서

* 이 글은 파주시지(2009, 파주시) 2권 「파주역사」 편에 수록된 글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고자 발췌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울을 출발하여 동년 12월 16일에 귀가하여 모두 130여 일이 걸렸다. 노가재 김창업은 1712년 11월 3일 서울을 떠나 26일 압록강을 건너 같은 해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해서 46일간 머물다가 다음해인 1713년 2월 15일에 회정(回程)하여, 3월 13일 압록강을 넘고 같은 달 30일 서울로 되돌아오기까지 왕복 다섯 달, 일수로 146일이 걸렸다.

이갑의 《연행기사(燕行記事)》에 나오는 사행 규모는 세 사신을 포함하여 인원이 총 338명, 마필(馬匹)이 총 223필이었고, 천은(天銀)이 93,000냥이 들었으며, 기간은 1777년 10월 26일에 떠나서 다음 해 3월 29일에 돌아왔으므로, 147일이 걸렸고, 주행 거리는 왕복 합하여 약 6,252리나 되었다.

주행 거리 중 파주와 관련하여 보면, 한양부터 고양 벽제관(碧蹄館)까지 40리, 벽제관에서 파주 파평관(坡平館)까지 40리, 파평관에서 장단 임단관(臨湍館)까지 30리, 임단관에서 개성부 태평관(太平館)까지 40리다. 한양에서 점심 때 출발하면 벽제관에서 하루를 묵게 되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 고양에서 점심을 먹고 파평관에 머물게 된다.

고대에서 고려까지는 장거리 이동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배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고려의 귀족들은 바다를 끼고 살았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와 남경이던 한양에 도움을 정하면서 바다와 멀어진데다가 중국 명나라가 해상교역을 봉쇄하는 해금정책을 쓰면서 서울에서 개경을 지나 육로로 의주에 이르는 의주로가 붐비게 되었다.

조선 역시 북행을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다. 조선 사족들은 한족의 명나라를 갈 때는 ‘조천(朝天)’이라고 하였고, 한족이 망한 이후 만주족의 청나라를 갈 때는 ‘연행(燕行)’이라고 표현에 차이를 두어 소중화(小中華)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것은 연행이었다.

사행(使行)의 목적은 단순한 사대적 외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거래를 동반한 무역이었다. 실제 조선의 상권은 사행로를 따라 번성하였다. 한양의 경상(京商)과 개성의 송상(松商)에 더하여 평양의 유상(柳商), 의주의 만상(灣商)은 대청무역으로 상권을 강화하였다. 일본과 거래하던 내상(萊商)도 마찬가지다.

1645년(인조 23) 때부터 청나라를 왕래한 연행 기록은 1893년(고종 30)까지 249년간 정기 연 2회에 부정기 특별 행차까지 합하면 최소한 700여 차례 된다. 이중 확실한 연행기록은 약 60여 종이다. 그 가운데서도 다음의 ‘연행록’을 대표적인 것으로 든다.

- 《노가재연행록》 : 숙종 38년(1712) 김창업金昌業 저
- 《담헌연기湛軒燕記》 : 영조 41년(1765) 홍대용洪大容 저
- 《열하일기熱河日記》 : 정조 4년(1780) 박지원朴趾源 저
- 《연원직지燕軒直指》 : 순조 32년(1832) 김경선金景善 저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던 의주로는 남북분단 이후 판문점, 즉 판적천교板積川橋가 있는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서 멈춘다. 다른 대로에 비하면 의주대로는 수많은 사연들이 기록으로 전해온다. 그것은 특히 중국 연경을 오가던 조선과 중국의 사신들이 각종 연행록과 연행시가燕行詩歌로 그 모습을 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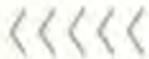
휴전선 이남의 의주로는 행정구역으로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파주시 관내에 있다. 은평구와 고양시 관내의 의주로는 능행길로도 유명하다. 반면에 혜음령 너머 파주부터는 그렇지 못한데, 이 고개가 경계선을 만든 듯하다.

고양 벽제촌에서 혜음령을 넘으면 혜음석불惠陰石佛이라고 하여 키가 수십 척이나 되는 쌍미륵을 만난다. 과거 개경과 남경을 잇는 중간 지점인 혜음령 쌍미륵은 고려의 대표적인 외척세력이던 인주 이씨의 재력과 힘을 보여준다.



용미리석불

쌍미륵을 지나면 1656년(효종 7) 8월에 의승義僧들이 돌을 캐고 장인匠人들을 모아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꾼 광탄교廣灘橋를 건넌다. 그리고 곧 윤관장군 묘가 나오는데, 사대부들은 파평윤씨와 청송 심씨가 다투며 송사한 지 오래된 사실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는 마산역馬山驛 뒷고개를 넘어 저녁에 파주 파평관坡平館에 당도한다. 파주 관아의 청각루聽角樓와 관청 북쪽에 행궁行宮 등을 둘러보고 봉서당鳳棲堂에서 유숙한다.



다음날 파주를 이룬 새벽에 출발하는데, 그럴수록 임진강을 건너기 전에 율곡선생의 자취가 묻어있는 화석정花石亭을 찾아 즐기는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정은 파주 북쪽 15리에 있다. 율곡의 5대조인 이명신李明農이 지은 정자로 ‘일화일석여인一花一石與人’이라는 글귀에서 화석花石을 정명亭名으로 한 것이다.

임진강을 건넌 후 동파역東坡驛을 지나 사잇길로 해서 장단부長湍府에 도착하면 오목관梧木館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초현招賢 파발을 지나면 판부천板浮川 나무다리와 천수원天壽院 돌다리를 건넌다. 사천 나무다리를 지나면 개성에 이른다.

다음은 시기별로 조천기朝天記와 연행록燕行錄 5책을 모아보았다. 하곡 허봉의 《조천기朝天記》는 임란 전인 1574년의 기록이고, 인평대군의 《연도기행燕途紀行》 연행 시기는 1656년이다. 김창업의 《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의 연행 시기는 1712-1713년이고, 이갑의 《연행기사燕行記事》 연행 시기는 1777-1778년이고, 김경선의 《연원직지燕輶直指》 연행 시기는 1832-1833년이다. 시기마다 나타나는 지명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각자 느낀 점도 차이가 있어 보완이 된다.

□ 《조천기朝天記》

○연행시기 : 1574년 5월 11일 - 1574년 11월 3일

○저자 : 허봉許篈

- 호는 하곡荷谷으로 명종과 선조년간 동인의 중심인물이던 초당草堂 허엽許曄의 둘째 아들로 허성許箴의 아우이고 허균許筠의 형이며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오빠가 되는 허봉許篈이다. 1588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다가 38세 젊은 나이고 갑자기 죽었다.

○책의 구성과 내용 :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하곡집荷谷集》에 수록되었다.

- 하곡의 사행使行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만력 황제萬曆皇帝의 탄일生日을 축하하기 위한 성절 사행聖節使行이었고 내용적으로는 당시의 현안懸案 문제였던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일을 주선하는 것이었다. 정사正使 즉 상사上使인 박희립朴希立과 서장관書狀官인 허봉許篈과 질정관質正官인 조헌趙憲 등이 임명되었다. 만력 2년, 즉 선조 7년 5월 11일에 서울을 출발하였고 그 해 11월 3일에 귀국하였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 1574년 5월 11일(갑신) 맑음.

나는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 공을 따라서 경사京師로 가게 되어, 먼동이 틀 때에 건천동乾川洞 집으로 가서 양친께 하직하고 이른 아침에 입궐하였다. 보루문報漏門 오른편에서 쉬고 있었는데, 주서注書 최운부崔雲溥, 검열檢閱 이순인李純仁, 수찬修撰 윤현尹峴, 저작著作 홍진洪進, 좌랑佐郎 홍익세洪翼世, 좌랑佐郎 이발李潑, 주서注書 허명許銘, 검열檢閱 김수金睟가 잇따라 찾아와서 소작小酌을 베풀었다. 질정관質正官 조헌여식趙憲汝式도 역시 와서 같이 이야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여성군礪城君과 정랑正郎 김효원金孝元이 같이 와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진시(辰時 오전 8시 전후)에 임금께 하직하였는데, 임금께서는 일행 인원人員에게 빈청賓廳에서 술을 내리도록 하명下命하였다. 백관百官이 배표례拜表禮, 즉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表文에 절하는 의식儀式을 끝내자 상사上使 박희립은 표각(表閣 표문을 담은 집처럼 생긴 궤짝)을 따라서 근정전勤政殿 중문中門으로부터 나왔다. 나는 질정관 및 상통사上通事 송대춘宋大春과 같이 모두 뒤를 따랐다. 승례문崇禮門을 거쳐서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러 삼공三公과 서벽西壁에게 음례揖禮를 행하고 나서 임시로 세운 막사依幕로 돌아왔다.

참의參議 정유일鄭惟一이 와서 보았고, 조금 있자니 좌랑佐郎 한준韓準이 상면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충충히 얘기를 하였다. 참판參判 심의겸沈義謙이 승문원承文院 막사幕舍에 있으면서 보기를 청하였으므로 나와 조여식趙汝式이 가서 보았다. -- (중략) --

사대查對가 끝나자 나는 물건 포장하는 것을 감독하여 끝내고, 사인舍人의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참판參判 이희검李希儉, 참의參議 이식李拭을 만나 본 다음, 사인의 막사로 갔다. 자리에 있는 이는 참판參判 이후백李後白, 우윤右尹 윤근수尹根壽, 참의參議 홍천민洪天民, 참의參議 정유일鄭惟一 및 사인舍人 정지연鄭芝衍이었는데 각기 술을 들고 파했다.

부정副正 성자항成子沆이 모화관 서쪽 모퉁이에서 내게 억지로 술 한 잔을 권해 왔으나 나는 사양하고 나왔다.

친구로서 소나무 숲에서 전별한 이는 정正 민충원閔忠元, 직장直長 김취려金就礪, 진사進士 황혁黃赫, 학유學諭 김경생金景生, 좌랑佐郎 한백후韓伯厚, 판관判官 최황崔滉, 좌랑佐郎 홍가신洪可臣, 좌랑佐郎 이발李潑, 자형姊兄 박순원朴舜元, 주부主簿 이즙李濾, 정랑正郎 김효원金孝元, 정자正字 홍적洪迪이었다.

이때에 나는 이미 취하였으나 장인께서 사현沙峴 아래에서 나를 불렀으므로 나는 가서 인사를 하였다. 장인과 계부季父 봉사공奉事公과 우후虞候 성부成鎔와 별좌別坐 구영준具英俊과 판관判官 한의韓滂와 이보명李寶命이 같이 모두 술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전별코자 하였으나, 나는 머리가 무겁고 눈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비스듬히 누워서 해가 저물도록 끝내 한 잔도 들지를 못하였으니, 한 될 일이었다.

늦게야 비로소 일어나서 고개를 넘어 홍계원洪濟院에 이르렀는데, 변극성邊克成과 변극경邊克敬 형제, 재종형 참봉參奉 전禎, 종형宗兄 기(), 참봉參奉 이우인李友仁, 박인승朴彦崇, 성운박成潤博, 민호閔扈 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해가 지기에 잠시 서로 만나

보고 연서역延曙驛을 거쳐서 벽제碧蹄에 이르렀는데, 날은 이미 저물었다. 사마시司馬試의 동년同年인 생원生員 이우李藕가 성산成山으로부터 와서 만났다.

- 1574년 5월 12일(을유) 맑음.

아침에 군수郡守 이충원李忠元과 찰방察訪 우천기禹天機를 만나 본 뒤에 파주坡州로 향하였다. 근래 20여 일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혹심하여 먼지는 하늘 자욱이 일어나고 보리[牟]는 거의 메말라서 색깔이 누렇게 짝이 짝막하여, 논은 거북이등 모양이 되었고 푸른 벼 싹은 바늘같이 꼬여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참혹하여 차마 볼 수가 없었다. -- (중략) --

낮에 파주관坡州館에 이르러서 조금 쉬었는데, 옛 관인館人 신유량申有良이 찾아와서 보았다. 나는 편지 두 통을 썼는데, 하나는 아버님의 서선書扇을 동지同知 백인걸白仁傑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사간大司諫 숙헌叔獻 이이李瑯에게 보내는 것인데, 두 분은 모두 답장을 보내 왔고, 이숙헌이 또한 따로 오언근체五言近體로 시詩 한 편을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오후에는 상사(上使 박희립朴希立을 말함)가 파주 목사 유종선柳從善과 더불어 적취정滴翠亭에 앉아서 나와 조여식趙汝式을 불렀다. 정자는 동쪽 채[東廂]의 왼편에 있어 북쪽으로 약간 치우쳤고 정자의 편액扁額은 천사天使 오희맹吳希孟이 쓴 것인데, 글자 획이 웅졸하였다. 게다가 간데 마다 쓰지 않은 곳이 없으니, 정묘년丁卯年에 검토檢討 허국許國이 이를 보고서 웃으며 이르기를, “오공吳公은 참으로 글씨 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하였다. 술이 몇 번 오가는데 헌납獻納 윤탁연尹卓然이 우봉현牛峯縣으로부터 부모를 뵈러 서울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나 같이 앉게 되었으니, 헌납은 나의 종자형從姊兄이었다. 서로 만나 보매 기뻐서 술을 들었다. 나는 헌납에게 사행 길의 일을 물었는데, 대개 헌납은 일찍이 지난해에 북경[帝都]에 갔다가 막 돌아온 터이기 때문이었다. 조금 있다가 헌납이 인사하고 떠났으므로 나 역시 사관에 돌아와서 양친의 편지를 보았다.

저녁에는 안정란安廷蘭을 불러서 시를 짓게 하였다.



임진강변에 위치한 화석정

- 1574년 5월 13일(병술) 맑음.

이른 아침에 파주를 떠나서 울곡粟谷에 다다라 이숙헌李叔獻을 방문하였다. 울곡은 파주 서쪽 16, 7리쯤에 있는데, 이숙헌은 병으로 아직 일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조카를 시켜서 나를 맞이하여 서실書室에 들어가 기다리게 했다. 오래 있다가 울곡이 나왔는데 그의 안색을 보니 전날과는 약간 달랐고 매우 피로하여 보였다. 그와 마주 앉아 먼저 시사時事에 미처 한탄을 하였고, -- (중략) --

해가 이미 높아졌으므로 나는 묘소 참배가 박두하여 이숙헌과 작별을 하고 그 뒷산을 넘어서 이른바 화석정花石亭이라는 데로 올라갔다. 그 집은 새로 지었는데 아직 칸막이를 하지 않았다. 정자의 앞으로는 임진강臨津江이 떠같이 내려다보이고 멀리 서쪽 경계로는 여러 산을 손짓하는데, 비록 넓게 트인 것 같으나 형세는 지나치게 높고 가팔라서 오래 있기에는 견디기가 어려웠다. 대체로 이숙헌이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전원田園을 넓게 열고 종족宗族을 모두 모아서 같이 살고자 생각했던 것인데, 일은 뜻과 같지 않았고 집 일이 궁핍하여 미음죽도 잇지를 못하였으니 참으로 연민憐憫할 만하였다. 지금 같은 때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에게 궁벽한 산곡 속에서 먹는 것조차 가난하게 하였으니 세도世道는 알 만하였다.

임진강을 건너 6, 7리를 가서 5대조 호군공護軍公 허추許樞의 묘소에 참배하였다. 부인 최씨도 같이 모셨는데 묘소 남쪽에는 조그만 비갈碑碣이 있었고 앞면에는 직함職銜을 썼으며 뒷면에는 역임한 관직의 천차遷次와 자손의 명호名號를 써 놓았다. 제사 지내기를 마쳤는데 일족孽族 허수許鏞가 묘소 옆에 살고 있었으므로 와서 보았다.

동파역(東坡驛 : 현 진동면 동파리)으로 돌아와서 조금 쉬었다가 조현리朝玄里를 향하여 떠났다. 시중侍中 문경공文敬公 허공許珙 묘소를 뵈고 또한 제사를 지냈다. 문경공은 고려조의 유명한 재상으로 공렬功烈은 모두 국사國史에 실렸으나 묘소 앞에는 비碑나 석마石馬가 없었으니 대개 연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손으로서 봉분이나 꾸밈을 못하니 이마에는 땀이 배었다. 늦게 개성부開城府에 들어갔는데 유수留守 유흥俞泓이 우리를 대청에서 맞이하였다. 상사와 질정관質正官과 목청전(穆淸殿) 고려 태조를 제사 지내는 곳) 참봉參奉 박명립朴名立 등과 함께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부府에는 조그만 아이가 있어 노래를 부르고 술잔을 권하게 하였다.

□ 《연도기행(燕途紀行)》

○연행시기 : 1656년(효종 7) 8월 3일 - 동년 12월 16일

○저자 : 인평대군(麟坪大君) 요(潯, 1622~1658)

- 호는 송계松溪, 자는 용함用涵으로 인조仁祖의 셋째 아들이며, 효종孝宗의 동생이다. 1630년

(인조 8)에 인평대군에 봉해지고, 1636년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당해서 부왕父王을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호종扈從했으며, 1640년에는 인질人質로 심양瀋陽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왔고, 1650년부터는 네 차례에 걸쳐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평생에 압록강鴨綠江을 열두 번이나 건넜다고 할 만큼 많은 연행燕行을 하였고 이 기록 역시 사은사로 연경에 다녀오고 남긴 것이다. 저서에 《송계집松溪集》과 《연행록燕行錄》·《산행록山行錄》 등이 있다.

○책의 구성과 내용 : 상증하 3편으로 《송계집(松溪集)》 제5·6·7권에 수록되어 있다.

- 저자가 사신의 명을 받들고 서울을 출발하여 연경燕京을 다녀온 기행문紀行文이다. 상권에는 서울에서 의주義州까지, 중권에는 의주에서 연경까지, 하권에는 연경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일기로 기록하였다. 매일 날씨부터 적은 후 점심을 먹은 곳, 쉬는 곳, 지나는 길에서 보고 느낀 것, 지나온 거리와 비석이나 건물까지 기록하였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1.

사행의 목적은 사대부들이 화를 입었다고 하여 이를 주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주정사陳奏正使로 갔고 부사에는 호조 참판 김남중金南重, 서장관에는 사헌부 장령 정인경鄭麟卿이었다. 12월에 돌아왔다.

- 1656년(효종 7) 8월 3일(무인) 맑음.

날이 밝은 뒤에 가묘家廟에 현알하고, 상차喪次에 곡을 한 다음 대궐에 들어가니 해가 반발이나 올라왔다.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부사 이하와 함께 표문表文을 받들고 나왔다. 이때 풍악을 잡은 악사들은 앞에서 인도하고 백관들은 뒤에 따랐다. 송례문崇禮門을 나서서 반송盤松에 다다르니 못가에 크게 장막을 치고 공경公卿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에 들어가 사대례查對禮에 참석하고 예가 끝난 다음 사차私次에 나와 쉬었다. 지신사知申事 신유申濡와 이조 참판 김좌명金佐明·공조 참판 정치화鄭致和가 와서 보고 서로 회포를 풀었다. 이에 조복朝服을 벗고 역마驛馬에 올라 관사 뒤 소로를 좇아 길을 떠났는데, 이는 무과거武科擧를 방금 시행하기 때문이었다.

사헌沙峴에서 말을 쉬니 이미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 홍제원弘濟院에 당도하니, 종인宗人 밀산군密山君 이하 30여 명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앉아서 술을 들어 전송하였는데, 이는 곧 종풍宗風이다. 경평군慶平君도 역시 왔는데, 병자病者가 멀리 나온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했다. -- (중략) --

해가 저물 무렵에 교자를 타고 길을 떠났다. 일행은, 곧 부사 호조 참판 김남중金南重, 서장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정인경鄭麟卿, 호행 중사護行中使 가의嘉義 고예남高禮男과 비장裨將 5명에 병방兵房을 맡은 절충折衝 전 군수郡守 홍여한洪汝漢, 호방戶房을 맡은 절충 이민중李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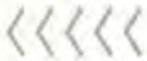
中, 예방禮房을 맡은 당하堂下 전 현감 이신李伸, 공방工房을 맡은 전 만호萬戶 김여준金汝俊, 마감馬監을 맡은 전 만호 최귀현崔貴賢과 역관 11명에 수역首譯 가의嘉義 장현張炫, 상통사上通事 가선嘉善 조동립趙東立, 전 정正 최진남崔振南, 여진학女眞學 가선嘉善 서효남徐孝南, 상사건량上使乾糧 통정通政 한지언韓之彦, 별헌 영거別獻領去 통정通政 양효원梁孝元, 공사장무公事掌務 전 침정金正 변승형卞承亨, 부사 배행副使陪行 통정通政 박이절朴而齧, 건량乾糧 전 정正 신익해申益海, 행대 배행行臺陪行 전 정正 방효민方孝敏, 압물 청역押物淸譯 김흥익金興益과 대의大醫 2명에 어의御醫 전 주부主簿 박군朴頤, 침의針醫 전 주부主簿 안예安禮, 화원畫員 권열權悅, 의사의원外司醫員 변이형卞爾珩, 사자관寫字官 유의립劉義立, 부사 군관副使軍官 전 주부主簿 이면李漣, 출신(出身 과거를 보고 아직 임관되지 못한 자) 박두남朴斗南, 행대 군관行臺軍官 습독관習讀官 정기창鄭祈昌이며, 또 대전 별감大殿別監 남이극南爾極, 사헌부 서리司憲府書吏 이의신李義信, 내국서원內局書員 염효익廉孝翼, 하인下人으로는 명남命男 등 5명과 을생乙生 등 8명이었다. 홍제원弘濟院 돌다리를 지나 녹번현(礪磻峴 지금의 녹번동礪磻洞 일대)을 넘어 양철평梁撤坪(지금의 양철리梁鐵里인 듯)에 이르니, 옛날 편비褊裨로 있던 자들 중에 일찍이 깃대를 들던 자 이수창李壽昌·황도창黃道昌·박형朴洞·유성柳檉·이후한李後漢 등 다섯 사람이 와서 작별했다. 전석현磚石峴을 거쳐 장릉長陵 파발을 지나서 덕수천德水川 돌다리를 건너서 여현礪峴을 넘어 신원新院 나무다리를 건너 다음 개륜현介倫峴을 넘어 저녁 무렵에 고양군高陽郡에 도착, 벽제관碧蹄館에 유숙했다. 여기에서는 군수郡守 유후성柳後聖이 지대支持했다. -- (중략) -- 이날 40리를 갔다.

- 1656년(효종 7) 8월 4일(기묘) 맑음.

새벽에 벽제관을 떠났다. 친구들을 작별하고 그 편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쳤다. 쌍참雙驂 마차를 타고 길을 재촉, 혜음령惠陰嶺에 올라 쌍석불雙石佛을 거쳐 광탄廣灘 나무다리를 건너는데, 의승義僧들이 돌을 깨고 장인匠人들을 모아 바야흐로 돌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마산역馬山驛 뒤편을 넘어 오시午時에 파평관坡平館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는데, 목사민진량閔晉亮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쉬고 나서 몇 사람의 원역員役을 데리고 이천(梨川 : 현 문산읍 배내리) 길로 해서 장릉長陵에 참배하러 갔다. 잔디를 손질하느라고 예조 참의 채충원蔡忠元 등이 일꾼을 모아 잔디를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능소를 바라보면서 슬픔을 머금고 참배했다. 날이 저물어 파평관坡平館으로 돌아오니, 교하交河 현감 오정주吳挺柱가 임소任所로부터 달려와서 종일토록 회포를 풀었다. 이날은 오전에 40리를 갔고, 오후에 갔다 온 길이 약 40리가 된다.

- 1656년(효종 7) 8월 5일(경진) 맑음.

새벽에 길을 떠나서 임진강臨津江을 배로 건넜다. 이 임진강의 근원은 북관北關 안변부安邊府에서 시작, 마전군(麻田郡 : 지금은 연천군) 대탄(大



灘 속칭 한여울)과 합류하여 임단臨湍이 되고, 서쪽으로 40리를 내려가다가 교하현交河縣 조도성鳥島城 앞에서 한수漢水와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임진강을 건넌 후 동파역東坡驛을 지나 사잇길로 해서 장단부長湍府에 도착하여 오목관梧木館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부사府使 김체건金體乾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차원都差員인 파주 목사坡州牧使 민진량閔晉亮은 장릉長陵에 역사役事가 있기 때문에 뒤에 떨어지도록 했던 것이다.

오시에 떠나서 초현招賢 파발을 지나 판부천板浮川 나무다리과 천수원天壽院 돌다리를 건넌다. 다리 이름은 ‘취적吹笛’이라고 하는데, 송도松都 이서吏胥들이 와서 문안하였다. 사천沙川 나무다리를 지나서 황성荒城, 즉 개성 남쪽 언덕에 도착하니, 유수留守 최혜길崔惠吉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구문水口門 옛터로 해서 낙타교囊駝橋를 건넌 다음 남문南門 앞길을 거쳐 대평大平 돌다리를 건너서 별관別館에 유숙했는데, 이 별관은 대평관大平館 동쪽에 새로 지은 것으로서, 부성府城 서문西門 밖에 있다.

송경松京 옛 도읍은 성곽이 허물어지고 씩씩한 기운이 사라져 없어지고 있었으나, 다만 민가가 밀집하고 인구도 여전히 많았는데, 대개 장사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 (중략) -- 이날 오전에 30리, 오후에 40리를 갔다.

○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2. 귀로(歸路)

- 1656년(효종 7) 12월 14일(정해) 맑음.

아침 일찍 떠났다.

저탄豬灘의 목교木橋를 건넌데, 여울이 반쯤 얼었다. 오시에 금천관金川館에 이르렀다. 주쉬 이정상李廷相이 나와서 기다렸다. 해주海州 원 김상金鎬·백천白川 원 정영한鄭榮漢이 모두 새로 임명되어 아직도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전과 백성만이 나와서 기다렸다.

미시에 떠나서 청석동靑石洞에 이르렀다. 기억차원畿驛差員 도원독우桃源督郵 황도광黃道光이 나와서 문안했으나, 척분戚分이 있기 때문이다. 영빈관迎賓館 터에 이르렀다. 기백繼伯 조형趙珩·유수留守 최혜길崔惠吉·경력經歷 이시함李時諡·도차원 풍덕 부사豐德府使 조여수趙汝秀가 보정문普正門 터까지 영접을 나왔다. 장무掌務 박수원朴受源·배리陪吏 왕중익王中益 등이 서울로부터 와서 뵈이고 이어서 가신家信 및 저보邸報를 올렸다.

저물녘에 개성부開城府에 이르러 동별관東別館에 유숙했다. 복자卜者 허인신許仁信이 와서 뵈었다. 파발 편에 외사의원外司醫員 변이형下爾珩이 짐을 찾았다는 소식을 알려 왔다.

이날은 아침과 저녁에 모두 50리씩 갔다.

- 1656년(효종 7) 12월 15일(무자) 맑음.

새벽에 떠났다.

장단부長湍府에 들어가지 않고, 입비우立碑隅의 객점을 거치고 두 큰 고개를 넘었다. 성포嶮

浦를 얼음 위로 건넜다. 파주목사 민진량閔晉亮이 와서 문안했다. 장릉長陵 화소火巢 밖을 돌아 운천교雲川橋를 건너서 동구洞口로 들어갔다. 큰 연못 가로 해서 곧장 홍문紅門 밖 유막帷幕에 이르러 관복冠服을 갖추고 전알展謁했다.

오시에 재실齋室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다. 일행 중의 수많은 역졸驛卒을 반도 공궤供饋하지 못했으므로 주취主倅를 불러 꾸짖고 향소(鄉所 향리鄉吏)에게 장杖을 때렸다.

미시에 떠났다. 이천로梨川路로 해서 파주坡州를 지나서 곧장 벽제碧蹄로 향했다. 해는 짧고 길은 멀어서 장단長湍·파주坡州 두 고을과 능소陵所에서 모두 말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밤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방백(方伯 : 경기 감사)에게 부탁해서 파주의 지응支應, 즉 필요한 물품을 대는 일을 능소陵所로 옮겨 하도록 했다.

두 고을을 그대로 지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광탄廣灘에 이르니 복녕군福寧君이 나왔다. 교자를 내려놓고 서로 만나니, 마치 꿈속 같았다. 혜임령惠任嶺을 넘었다. 지난날의 편비偏裨, 전 군수 신진익申晉翼 및 하인 등이 와서 현알했다.

저물녘에 고양군高陽郡에 이르러 벽제관碧蹄館에 유숙했다. 군수 유후성柳後聖이 지대支持했다. 이날 저녁 객관客館에 수고롭게 마중 온 자는 교관教官 황로黃潞, 지난날의 비장 유정柳檉·김마룡金馬龍이다. 유정은 원임 총병原任摠兵이요, 김마룡은 절충折衝이다. 역관 변성길邊誠吉 등 10여 인은 모두 전에 연행燕行했을 때 데리고 갔던 자들이다.

교하 현감 오정주吳挺柱가 주과酒果를 가지고 와서 밤에 이야기했다. 군관 홍여한洪汝漢은 양주楊州에 신입新任하라는 교명敎命과 막내 아버지의 흥부凶訐가 일시에 이르러서 먼저 떠나기를 고했다. 어찌 슬픔과 기쁨이 이다지도 함께 이르는 것일까? 춘궁春宮 별감別監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와서 행로行路의 안부를 물었다. 머리를 조아려 답배했다.

이날은 아침에 60리, 저녁에 65리를 갔다.

- 1656년(효종 7) 12월 16일(기축) 맑음.

아침에 떠났다.

개륜현介倫峴에 올랐다. 창릉昌陵을 지났는데, 노소老少 친구들이 길을 메웠다. 연서관延曙館 뒤에 이르니 좌윤左尹 구인기具仁壑 및 그 아들 도사都事 구일具鑑이 와서 위문했다. 녹번현綠磻峴을 넘으니 이조 참판吏曹參判 오정일吳挺一·춘방 보덕春坊輔德 오정원吳挺垣이 와서 기다렸다. 정답게 회포를 풀었다. 홍제석교弘濟石橋를 건너니 관장管掌하는 각 시寺의 하리下吏들이 마중하며 뵈었다. 홍제원弘濟院에 들어가니 경평군慶平君을 비롯하여 여러 종친宗親이 모두 와서 정역征役을 위문했다. 잠시 앉아서 응대했다. 관할管轄하는 여러 시寺의 낭관郎官이 일제히 와서 인사를 드렸다. 경영 관사(京營官舍)에 이르러 관복을 정제하고 가니, 부사·서장관 및 각 부서部署의 원역員役들이 무리를 따라 나갔다. 돈의문敦義門으로 들어가, 종루鐘樓를 지났다. 눈에 띄는 고향의 모습이 전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8월에 작별하던 때의 회포를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솟는다. 대궐에 나가 입시하여 행정行程의 어

려웠던 일과 사행의 전말을 진달했다. 복명復命을 끝마치고 낙동駱洞으로 돌아오니, 서쪽에 걸린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린 자식이 문에서 마중했다. 이날은 40리를 갔다.

□ 《가재연행록(稼齋燕行錄)》

- 연행시기 : 1712년(숙종 38) 11월 3일 - 1713년 3월 30일
- 저자 :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1658-1721)
 - 김창업의 자는 대유大有, 호는 가재稼齋 또는 노가재老稼齋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효종 9년(1658년)에 안동 김씨安東金氏 명문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 책의 구성과 내용 : 책 권두 서명(卷頭書名)은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로 되어 있다. 분권(分卷)은 명확하지 않지만 9권 6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754면이다.
 - 1712년(숙종 38)에 동지사 겸 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 김창집金昌集이 임의로 추천한 자벽군관自辟軍官으로 사신 일행의 모든 기구를 감수하는 역할을 맡아 북경北京에 다녀온 아우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연행燕行 기록이다. 그가 55세 노령에도 백씨 시중을 든다는 명목으로 군관 행색으로 유람 길에 오른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만류하였고 비방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행 길에 오른 것은 오로지 평소 그가 중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 1712년(숙종 38) 11월 3일(임오)
 - 눈보라가 치다. 홍제원弘濟院에서 전송주를 마시고 40리를 가서 고양高陽에서 잤다.
 - 새벽에 백씨(伯氏 : 김창집)께서 대궐에 들어가고 나는 곧장 홍제원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양재 역졸良才驛卒이 이미 어제 저녁에 말을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 아침에 심대心臺에서 옥동玉洞으로 가서 과수寡嫂를 뵈고 사당祠堂에 하직하였으며, 정승택(政丞宅 : 김창집)에 가서 사당에 하직을 고하고 만형수를 뵈었다. 또 판서택判書宅에 가서 사당에 하직하고 질부姪婦를 보았다. 다시 감찰집에 가서 사당에 하직한 후 귀가하였다.
 - 아침밥을 먹고 가묘家廟에 하직을 고한 다음 드디어 길을 떠나는데, 단검과 호리박, 가죽주머니를 챙겨서 안장에 걸었다. 호리박엔 술을 담고 가죽주머니엔 붓, 벼루와 요기할 음식을 넣었다. 종 귀동貴同과 마두馬頭 한 사람을 데리고 남첨지南僉知 덕과 하경夏敬의 백씨를 차례로 찾아뵈고 청람대靑嵐臺에 들어서 종수從嫂를 찾아뵈었다. 창의문彰義門을 나서니 눈보라가 얼굴을 때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 홍제원에 이르니, 김언겸金彦謙과 김신겸金信謙 두 아들이 이정엽李廷燁, 이정영李廷煥과 함께

길옆에서 기다렸는데, 흥제원에 들어간 뒤에 인가에 가서 술을 데우고 꿩고기를 구워서 내오기 위함이었다. 앉아 있노라니 이성징李聖徵 군이 별장(別章 : 작별을 기념하여 쓴 글)을 갖고 동교東郊로부터 오고, 그의 사위 박순규朴舜揆도 함께 따라왔다. 술을 한 순배하고 곧 일어나 연서延曙로 달려가서 수찬修撰 이광중李光仲)을 만나 얼마쯤 이야기하고, 술 두 잔을 든 뒤에 다시 흥제원으로 돌아왔다.

배표拜表를 하고 모화관慕華館에서 돌아오니 흥제교弘濟橋 좌우에는 인마人馬가 구름처럼 모여 곳곳에 장막을 쳐 놓고 불을 피웠다. 모두 사행을 전송 나온 사람들이었다. 외형外兄인 영상領相 이공李公과 소재疏齋 이이명李頤命은 백씨와 같이 청에 앉아 있었다. 영상 형이 베푼 연이었다. 경력(經歷 직명)인 당형堂兄도 자리에 있었다. 술을 돌리고 나니 가인家人이 저녁밥을 가지고 왔다. 신상동辛相東과 그의 아우, 신태동辛泰東, 경력 이몽상李夢相, 판관 조영복趙榮福, 참동 이신李薰, 당제堂弟인 감찰 김창열金昌說, 족손인 김민행金敏行과 그 아우 김신행金愼行은 서헌西軒에 앉았는데 이는 서로 인사하기 위함이었다. 드디어 그곳에 이르니 감찰과 이 경력은 함께 술항아리를 들고 와서 각기 한 잔씩 권하였다. 이 밖에 전송 나온 사람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다. 동교東郊 동내의 하인들이 모두 와서 뵈고 갔다.

드디어 출발, 박석고개[礪石峴]를 넘으니 날이 저물었고 눈이 더욱 심하였다. 솥돌재[礪石峴]에 이르러 비로소 햇불을 들었는데, 거군(炬軍 : 햇불을 드는 인부)은 잠깐 나타났다가 이내 흩어졌으며, 색리色吏 또한 간 데가 없고 다만 두어 햇불만이 앞에서 명멸할 뿐이었다.

초경에 고양高陽 객사에 이르렀는데, 다담茶啖이 말이 아니어서 나를 비롯하여 이하가 모두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주수主守는 이관수李觀壽였다. 김언겸, 김신겸 두 아들이 성전盛全과 먼저 와 있었다. 들으니 세 사신은 인견 때 선온宣溫을 받았으며, 아래로 역원에 이르기까지 하사물을 각각 차등 있게 내렸다 한다. 이것은 전례이다. 나에겐 특별히 납제臘劑의 하사가 있어 모두들 특이하게 여겼다. 여러 사람들이 따라와 여기에 이른 자는 역시 많이 겸손하였는데 흥제원에 도착했을 때 많이 돌려 보냈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자도 많았다.

- 1712년(숙종 38) 11월 4일(계미)

아침에 흐리고 늦게 갠다.

고양高陽에서 40리를 가서 파주坡州에서 잤다.

새벽밥을 먹고 먼저 떠났는데 날씨가 몹시 찼다. 혜음령惠陰嶺을 넘어 서윤庶尹 조정이趙定而의 묘사墓舍에 도착하니, 숙씨叔氏 경명敬明이 벌써 전날 와서 조정이와 동숙同宿하고 있었다. 조정은 자기 선공先公의 장지葬地를 보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김창열金昌曄이 뒤미처 와서 함께 보았는데 미리 약속이 있었다. 조금 뒤에 행차行次가 이르러 드디어 떠났다. 조정이도 따라 나섰으므로 서로 나란히 갔다. 파주 객사에 이르러 얼마쯤 이야기하다가 작별하고 돌아갔는데, 백씨는 즉석에서 칠언 율시 세 수를 지었고 나는 칠언 절구 한 수를 화답하고 갔다.



저녁에 객사의 대청에서 주수主守를 만나 보았다. 주수는 바로 홍우정洪禹鼎이었는데, 참판이던 그의 숙부 수주受疇 공을 따라 연경에 간 적이 있었으므로 나의 이야기는 그의 유람한 일을 묻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대개 오룡정五龍亭이나 천주당天主堂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기 어려운 곳인데,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다담과 저녁밥이 모두 깨끗하여 먹을 만하였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족질 김시화金時和와 김종평金仲平, 김민생金閔生, 김계수金啓洙가 모두 작별하고 돌아갔다.

부사와 서장관이 정문으로 출입한다고 여러 비장裨將들이 그 불가함을 말하니, 부사와 서장관은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기를 “우리도 역시 왕명을 받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들은 별당別堂에 들었으며 별당이 없는 곳에서는 먼저 들어가고 뒤에 나옴으로써 가가스로 협문挾門을 면하였다.

- 1712년(숙종 38) 11월 5일(갑신)

추웠다. 아침엔 흐리고 눈발이 날렸다. 파주에서 30리를 가서 청대천靑黛川에 이르고 거기서 또 15리를 가서 장단부長湍府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으며, 다시 40리를 가서 송도松都에서 잤다.

새벽에 일어나서 경명敬明과 작별하고 먼저 나오니, 김언겸, 김신겸 두 아들과 성전盛全도 따라 나섰다. 배로 임진강을 건넜다. 동파역에서 동북으로 10여 리를 가면 청대천靑黛川에 이르는데, 바로 죽은 딸의 묘가 있는 곳이다. 가지고 간 술과 과일을 내어서 진설하고 두어 줄의 글을 지어서 고하였다. 장단부에 가니 행차도 역시 이르렀다. 판서 윤세기尹世紀의 영구靈樞가 백학산白鶴山 밑에 있었으므로 백씨를 따라가서 조문하였다. 송도에 이르러 백씨는 태평관太平館에 들고 나는 사우(私寓 : 사사로 정한 하숙)에서 잤다. 고양 출신出身 박민도朴敏道와 강화 사람 전첨사前僉使 한계중韓啓重이 와서 뵈고, 이곳의 장기 잘 두는 사람인 이신건李信建의 아들이 술과 찬을 가지고 내알來謁하였다. 밤에 숙씨淑氏가 나에게 와서 삼운칠언고시三韻七言古詩 27수를 지어 떠나는 나에게 주었는데, 김언겸, 김신겸 두 아들을 시켜 붓을 들고 번갈아 받아쓰게 했다. 밤이 깊어서야 돌아가 객관에 들었다. 유수留守가 내알하였고, 백씨는 교자를 타고 문에 이르렀으며, 김종화金中和는 병방군관兵房軍官으로서 수배隨陪를 감독하였다.

□ 《연행기사(燕行記事)》

○연행시기 : 1777년 10월 26일 - 1778년 3월 29일

○저자 : 이갑(李 士甲, 1737-1795)

- 이갑의 본관本貫은 연안延安, 자字는 신경信卿이다. 1769년(영조 45)에 등과登科, 같은 해 10월

정언正言을 하였다. 1777년(정조 1) 1월에 연풍군延豐君, 정조 12년 12월 이조 판서, 정조 13년 6월 예조 판서, 같은 해 11월 공조 판서, 정조 14년 1월에 병조 판서, 정조 15년 6월에 형조 판서, 정조 16년 윤4월에 한성부 판윤, 같은 해 11월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지냈다. 1795년 6월 4일에 졸卒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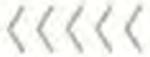
○책의 구성과 내용

상하권으로 된 책은 크게 기사, 잡기, 시로 나뉜다. 1777년 기사는 상으로, 1778년 기사는 하로 분류하고, ‘문견잡기’ 역시 상·하로 나누어 풍토 및 제도에 관한 것은 상에, 지리 및 민속에 관한 것은 하에 엮었다. 그리고 사행 때 지은 시는 맨 뒤에 붙였다.

- 1777년 7월에 하은군河恩君 이광李堯을 정사로, 이조 판서 이갑(李士甲)을 부사로, 겸집의 이재학李在學을 서장관으로 뽑고, 동년 9월 20일 토역 주문討逆奏文 전달 절차를 협의했다. 사절 명칭은 ‘진하사은진주겸동지사進賀謝恩陳奏兼冬至使’로 정하였다. ‘진하’는 당시 청 고종高宗의 모후인 황태후皇太后가 부묘附廟된 데 대해 축하한다는 뜻이고, ‘사은’은 천자天子의 조서가 내려진 일 및 방물 이준方物移准에 대해 사례한다는 뜻이며, ‘진주’는 토역討逆에 대해 주달奏達한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북경 조양문까지, 게다가 참소站所까지를 곁들여서 일목요연하게 밝힌 기행문이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 1777년 10월 26일. 흐렸다 개었다 함.
해가 높이 솟은 뒤에 대궐에 나가 정사 하은군 이광, 서장관 겸집의兼執義 이재학과 함께 하직 숙배를 했다. 오전에 명령을 받고 희정당熙政堂에 입시하였더니 주상이 -- (중략) -- 중관中官에게 초피 이엄貂皮耳掩 2부와 서피 이엄鼠皮耳掩 1부를 가져오게 하여 각각 내렸다. 세 사신은 일어나서 공경히 받아 사모 위에 썼다. 이어서 정원政院으로 물러나오니, 별감別監이 나라에서 내려 준 납약臘藥 5종과 단목丹木, 백반白礬, 호초胡椒를 가지고 와서 전했다. 공경히 받은 뒤 여러 승지承旨와 작별하고 또 내국 제조內局提調 구윤옥具允鈺, 부제조 홍국영洪國榮도 차례로 보았다.
오시에 오모烏帽, 오대烏帶, 백포白袍 차림으로 인정전仁政殿에서 배표拜表한 뒤 말을 타고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러 사대查對를 하였는데, 좌상左相 정존겸鄭存謙, 예조 판서 채제공蔡濟恭, 공조 참판 김화진金華鎭, 병조 참의 이경양李敬養, 형조 참의 조영진趙英鎭이 함께 참여하였다. 사대를 마친 뒤에 채제공, 김화진, 이경양, 조영진과 승지 임득호林得浩, 교리 이유경李儒慶, 교리 안성빈安聖彬, 승지 이양정李養鼎이 장막帳幕으로 와서 작별하였다. 가마를 타고 흥제원에 이르자 호조戶曹에서 또 작별연을 베풀었으니, 이는 곧 전례이다. 친척 및 막료들과 작별하고 포시(哺時 오후 4시경)에 출발, 길에서 개성 유수 태감台鑑 유언호俞彦鎬를 만나



가마를 쉬고 잠깐 이야기하였다.

40리를 가서 고양高陽에 이르러 객사 동헌에 관사를 정하니 밤이 이미 2경更이었다.

군수 이지광李趾光이 들어와 뵈었다. 세폐 차사원歲幣差使員 평구 찰방 오윤검吳允儉, 방물 차사원 겸부마 차사원夫馬差使員 도원 찰방桃源察訪 조언빈趙彦彬, 도차사원都差使員 파주 목사 박종익朴宗益도 따라왔다. 도사都事 한만유韓晩裕는 대궐에서부터 뒤에 떨어졌다. 본군에 사는 일가 이명우李命雨가 와서 보았다.

- 1777년 10월 27일 아침에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다가 비가 뿌렸다.

호조 참판이 사직 상소를 현도縣道를 통해 봉진封進하였다. 원당리元堂里 증연성부원군贈延城府院君 묘소가 군에서 10여 리쯤 되는데, 길이 외돌아 평탄치 못하므로 가마 대신 남여를 타고 가서 성묘하였다. 이조승李祖承이 여기서 하직하고 돌아가니 마음에 맺히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

40리 길 파주에 이르러 어목헌禦牧軒에 머물렀다. 파주 목사 박종익朴宗益이 들어와 뵈었다. 수역首譯 이담李湛의 병세가 줄지에 중하므로 뒤따라오게 하였다.

- 1777년 10월 28일 맑음.

이른 아침에 배로 임진강을 건넜다.

40리를 가서 장단長湍에 이르러, 오정 때 임단관臨湍館에서 쉬었다. 장단부사 손상룡孫相龍이 병을 칭탁하고 공장公狀을 바치지 않으므로 죄수를 전참前站에 옮겨 가두었다. 그리고 삼공형三公兄이 정대정待하지 않으므로 호장戶長을 형신刑訊하였다.

40리를 가 송도에 이르러 청후당聽候堂에 유숙하였다. 유수 태감台鑑 유언호俞彦鎬는 조금 전에 상경하고 경력經歷 김동연金東淵이 들어와 뵈었다. 송도 사람 맹산 조유신孟山趙有臣 부자, 찰방 이희복李熙福, 학생 노경복魯景福, 선달先達 이탁李倬의 중형제질 및 풍덕豐德 사람 학생 상광택尙光澤이 와서 뵈었다.

□ 《연원직지(燕輶直指)》

○연행시기 : 1832년 10월 20일 - 1833년 4월 2일

○저자 : 김경선(金景善, 1788-1853)

-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문경공文敬公 김식金湜, 잠곡潛谷 김육金瑨의 후손이다. 1830년(순조 30)에 정시庭試에 급제하였고 1832년 사헌부 집의로 있을 때 서장관으로 청에 다녀왔다. 사간원과 홍문관을 거쳐 성균관 대사성, 이조 참의, 전라 감사, 도승지, 대사헌, 홍문관, 예문관의 제학, 경연 일강관, 우참찬을 차례로 지냈다. 우참찬으로 있을 때인 1851년(철종 2)에

진주사陳奏使로 다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어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책의 구성과 내용 :

- 이 책은 1832년에서 1833년 사이에 동지사冬至使 겸 사은사兼謝恩使 서경보徐耕輔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온 김정선金景善의 사행기록使行記錄이다. 서장관의 소임은 행대 감찰行臺監 察 임무 외에 사행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하여 그 견문록見聞錄을 조정에 바치는 것이다. 이 책도 조정에 하직 인사한 날부터 시작하여 돌아온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파주와 관련한 주요 여정

- 1832년 10월 20일 맑음.

서울을 떠나 40리를 가서 고양高陽에 이르러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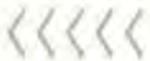
새벽에 일어나 대궐로 가서 사복시 정司僕寺正의 새 임명을 숙배肅拜하고 이어 하직하고, 명을 받들어 흥정당興政堂으로 입시入侍하니,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하는 데에 같이 입시하였다. 세 사신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하교下教하기를, “무사히 다녀오라.”하였다. 신 등이 기복起伏하니, 이어 서피이엄鼠皮耳掩 1벌, 부채[扇子] 3자루, 납약臘藥 5가지, 호초 3되, 단목丹木 10근, 백반白礬 1근을 반사頒賜하였다. 차례대로 물러나왔다가, 때가 되어 승정전崇政殿 뜰에 들어서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받든 이의 뒤를 따라, 승례문崇禮門으로 나와 모화관에 이르러, 정사正使와 부사 및 우참찬右參贊, 공조 참판, 예조 참의와 모여 앉아 같이 사대對對를 끝내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어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떠나 홍제원에 이르니, 또한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므로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며 작별하였다.

경기 감사 이희준李義準이 우리를 위하여 전송하는 술자리를 차렸기로 조금 마시고 바로 출발하였는데, 종제 김득선金得善 3형제와 재종제 김이선金頤善 및 여러 손님들이 여기에서 작별하고 돌아갔다. 드디어 말을 버리고 수레를 탔다. 40리를 가 저물기 전에 고양에 이르러 사창司倉을 숙소宿舍로 정했는데, 주취主倅 홍기주洪耆周가 나와 보았다.

고양은 본래부터 너무도 쇠잔하다는 곳인 데다가, 금년에는 재해가 심하여 조정에서 먼저 알고 연도沿道の 공궤供饋를 힘써 재감하도록 명령하였다. 일행이 모두 시장할 것을 걱정하였는데, 숙사에 당도해서 보니 공역供億이 펴 온편穩便하고 간결하여, 자못 처음 생각과는 달랐다.

유구국(琉球國 : 오키나와의 옛 이름) 사람 둘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었는데, 이번 길에 데리고 가 북경에 넘기려 한다.

며칠 동안 춤더니 날씨가 따뜻하게 풀렸다. 역졸驛卒들의 말이, 표문表文을 모시고 가는 날 춤지 않기는 근년에 처음 본다고 한다.



- 1832년 10월 21일 맑음.

고양을 떠나 40리를 가 파주에 이르러 잤다.

아침에 주취主悴를 보았다. 김익문金益文이 따라오다가 여기에서 작별하고 집안 종들도 또한 모두 작별하고 돌아가니, 이별하는 회포가 자못 암연黯然而였다.

늦게 떠나 포시(晡時 :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전에 파주에 닿아 이청吏廳에 숙사를 정하였다. 목사牧使 오치훈吳致勳이 나와 보고, 박천 군수博川郡守 홍옥洪燾이 동지전문 차사원冬至箋文差使員으로 여기를 지나다가 또한 와서 보았다. 정사 및 부사와 서령徐令을 가 보았다. 서령은 곧 정사의 형의 아들인데, 정사를 전송하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이다. 정사는 온각溫閣, 부사는 동헌東軒에 처소를 정하였다. 고을은 비록 잔폐殘廢하였으나 관사官舍는 펍 높고 트였으니, 행궁行宮이었기 때문이다. 전적典籍 임태준任泰濬이 고향에서 올라오는 길에 여기를 지나다 보러 왔기에, 그 편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부쳤다.

- 1832년 10월 22일 오후에 큰비가 왔다.

파주에서 떠나 40리를 가 장단長湍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또 40리를 가 송도松都에 이르러 잤다. 이날 모두 80리를 갔다.

아침에 부마 차사원夫馬差使員 평구 찰방平邱察訪 이춘영李春英이 보러 왔다가, 여기서 작별하고 돌아갔다. 밥을 먹고 길을 떠나 20리를 가 임진강을 건너고, 또 20리를 가 장단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주수 이제화李濟和가 보러 나왔다.

오후에 비가 크게 쏟아졌는데, 비를 무릅쓰고 40리를 가 저물어서야 송도에 당도하여 사창司倉에 숙사를 정하였다. 유수 이정신李鼎臣과 경력經歷 이인승李仁承이 나와 보았다.

밤에 본부本府 사람 유생 황희연黃會淵과 김한익金漢益이 각각 상 하나씩을 차려 와 대접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야 비로소 비가 개었다.

능행

능행陵行, 또는 능행陵幸이란 임금이 능陵에 거동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 정조 임금의 잦은 화성華城 행행行幸으로 그 준비과정이나 절차가 각종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소개되었다. 여기서는 기왕에 소개된 자료 외에 파주와 관련한 능행 자료와 함께 어로御路에 관한 자료를 소개한다. 특히 장릉에 능행을 자주한 영조 임금의 사례를 통해 당시 파주의 상황을 알아본다.

능 행차

능행 때 임금이 마상馬上에 오르면 일산日傘을 잘 받쳐 들고 편히 모신다.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분이 마상봉도馬上奉導다. 봉도별감奉導別監이 먼저 ‘일산日傘 우버 시위侍衛’라 부르면 여러 별감이 ‘일산 휘 우버 시위侍衛라 견마부牽馬夫 안가安駕되라’고 되뇌어 부른다.

임금이 가마를 타고 능에 가는 도중에 행궁行宮 또는 주정소晝停所가 가까워지면 임금에게 먼저 알리는 봉도奉導를 전로봉도前路奉導라고 한다. 화성 능행을 예로 들면 ‘전로前路요! 용양봉자정龍驤鳳亭 전로요’라 한다.

임금이 능 앞의 홍살문에 들어가면 바로 안쪽에 있는 4각형의 돌판에 머문다. 이것을 배위拜位 또는 판위板位라고 하여 능행에 온 임금이 선대왕을 위해 절하는 장소다. 임금은 여기서 예를 갖추고 국궁사배鞠躬四拜를 한다.

임금은 배위에서 절을 하고 난 다음 참도參道の 오른쪽 낮은 길인 어도를 따라서 정자각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간다. 제향 절차가 끝나면 왼쪽 계단으로 내려간다. 선대왕의 혼령은 능침陵寢으로 올라간다고 믿는다.

어로御路 옆이나 능 부근의 마을 중에는 패牌 자가 들어있는 마을 명칭이 많다. 예를 들면 동구릉이 있는 현재 구리시는 과거 구지면龜旨面이었는데, 일패창리一牌昌里, 이패리, 삼패리, 사패리 등 4개 리로 이루어진 면이었다. 장릉이 있는 교하현에 동패리와 서패리라는 마을이 있는 것도 같은 예다.

이 ‘牌’는 기수패旗手牌, 또는 기패꾼旗牌軍이라고 하여 임금의 거동 때나 왕실행사 때 깃발과 같은 의장儀仗, 즉 노부鹵簿를 담당하는 번番의 무리라는 뜻으로 이 일대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역의 일면을 보여주는 단서다. 기패꾼 외에 악기를 다루는 악공樂工, 세악수細樂手, 취고수吹鼓手 등도 같은 부류로서 군액軍額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들 기패꾼의 우두머리는 패두牌頭라고 불렀고 이들을 관할하는 행정관을 기패관旗牌官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각종 왕실행사 때마다 집중적으로 동원되는 인력 조직인 것이다. 왕실행사 때마다 동원되던 지역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왕실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인 능위토陵位土와 둔토屯土를 경작하며 살았다. 능원·묘의 위토가 죽은 왕과 왕실을 위한 것이라면 둔토는 살아있는 왕족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둔토로는 훈련도감 경비마련을 위해 설립한 양향청糧餉廳의 둔토와 신하들의 공적을 관리하는 충훈부忠勳府의 둔토, 궁중에서 소용되는 꽃과 과일을 재배하는 기관인 장원서掌苑署의 둔토가 있다.

어로

조선후기의 문신이며 실학자인 여암旅庵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은 1770년(영조 46)에 4권 2책으로 된 《도로고道路考》를 편찬하였다. 그중 1권에는 능원묘陵園墓에 행차할 때의 능행로와



의주·경흥·평해平海·동래·제주·강화 등에 이르는 6대로가 소개되어 있다. 이중 파주를 지나는 능행을 현재 지명과 대비하여 소개한다.

□ 제릉(齊陵, 在豐德)

제릉은 태조 이성계의 첫째부인인 신의왕후神懿王后를 모신 능으로 현재의 개풍군 상도면 풍천리에 자리한다. <도로고>에는 <-10→ 弘濟院 -10→ 磚石峴 -5→ 黔岩店(晝停所在店東三里許) -5리→ 新院(晝停所) -15→ 高陽郡 -5→ 碧蹄驛 -10→ 分水院(晝停所) -15→ 廣灘 -15→ 坡州(宿所) -10→ 臨津 -10→ 東坡 -10→ 長湍府(晝停所) -10→ 見樣岩 -10→ 板積橋 -鉢松里前坪(晝停所) -15→ 吹笛橋 -10→ 開城府三節軒(宿所) -15→ 赤峴 -5→ 陵下 共一百九十里>로 제릉로가 기록되어 있다.

홍제원은 홍제동 131번지에 있었으며 1895년까지 사용되었다(같은 책: 78). 현재 홍제중앙교회와 홍제원현대아파트의 사이에 위치에 해당한다. 박석고개는 갈현동(일신병원)에서 구파발(우체국)로 넘어가는 고개로, 서오릉의 結咽 목이 되어 낮으므로 산맥이 깎이지 않게 박석을 깔았다(같은 책: 80). 검암은 구파발에서 파주-문산으로 빠지는 1번 국도(통일로)와 일영으로 빠지는 349번 지방도, 그리고 서울시계(창릉천)가 삼각형을 이루는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다(일제시대 지형도 참조).

신원은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 장뜰을 말한다. 새로 원이 생겼으므로 새원, 신원, 또는 시장이 있으므로 장뜰, 장뜰이라 한다(한글학회 1985: 168). 고양군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읍내와 벽제관지(사적 144호) 일대를 가리킨다. 본래 고양군 사리대면 지역으로 고양읍내가 되므로 고양읍내-읍내리-읍내로 불렀으나 1914년 행정구역개편시 고양리라 하려 벽제면에 편입되었다(같은 책: 158). 벽제역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었다. 벽제동(리)은 벽제역이 있으므로 벽제, 벽지 또는 역말로 불렸다(같은 책: 160).

분수원은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汾水里 분수원동을 말한다. 고려 때부터 분수원焚脩院이 있어 원골 또는 분수원이라고 하였다(한글학회 1986: 266). 광탄천은 문산개, 문산천, 너분여울 등으로 불리는데(같은 책: 17), 분수원에서 파주읍으로 가는 길이 광탄천을 건너는 위치에 현재는 광탄교가 놓여 있다.

□ 후릉(厚陵 在豐德)

후릉은 정종定宗과 그 비인 정안왕후定安王后를 모신 능으로 개풍군 홍교면 홍교리에 있다. 후릉로는 <齊陵 -5→ 長柱隅 -10→ 豐德府 -15→ 陵下 共二百二十里>이다.

□ 공릉(恭陵 在坡州)

공릉은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에 있으며 예종이 세자 때 세자빈이던 장순왕후章順王后를 모신 능이다. 공릉로는 <新院(見齊陵路) -5→ 鄭松江墓峴 -10→ 鶴鶴岩店 -10→ 陵下 共五十五里>

를 따른다. 여기에서 휴류암은 봉바위[鵞岩]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봉바위는 고양시 덕양구 사리현동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자 마을 이름인데, 바위가 절벽에 있어서 산울림이 울리고 부엉이가 많이 울었다고 한다(같은 책: 160).

□ 순릉(順陵 在恭陵東北岡)

공릉의 동북쪽에 있다. 성종왕비 공혜왕후恭惠王后를 모신 능이다. 그 아래 추존한 진종을 모신 영릉이 있는데 《도로고道路考》에는 나와 있지 않다.

□ 장릉(長陵 在交河)

장릉은 파주군 문산읍 운천리에 위치한 인조의 능이다. 인조의 장릉으로 가는 능행로는 <灰石隅(自恭陵五里) -5→ 水踰縣 -10→ 冶洞沙岸 -15→ 陵下 共九十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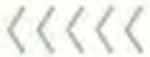
영조의 능행과 파주

영조 임금은 파주와의 인연이 남다르다. 파주에 많이 들렸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묘인 소령원이 있고 후궁인 정빈이씨의 수길원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했던 셋째딸 화평옹주의 무덤이 파주에 있기 때문이다. 영조는 화평옹주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옹주의 집에 행행하였으며 옹주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소령원

임금의 능행은 비용이 많이 들어 자제를 하는 편인데, 파주에는 인조의 능인 장릉이 있어 이를 계기로 나머지 원묘를 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영조의 장릉 행행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731년(영조 7) 8월 17일 (정미)

○ 上行幸坡州長陵遷陵所° 自一更至五更, 月暈

□ 1744년(영조 20) 7월 21일

○ 又以兵曹言啓曰, 辛亥長陵行幸時, 城門外屏門把守, 大駕行過後, 還入留都, 還宮時, 更爲出去把守事定奪矣° 今亦依此舉行之意, 分付留都營及訓局御營廳, 何如? 傳曰, 允°

□ 1745년(영조 21) 8월 11일

○ 又以禮曹言啓曰, 今此長陵行幸時, 宿所與晝停陵所供上茶啖等事, 依前例以京各司進排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1745년(영조 21) 8월 21일

○ 上行幸

□ 1749년(영조 25) 2월 8일

○ 又以御營廳言啓曰, 今此長陵行幸時,

○ 又以守禦廳言啓曰, 今此長陵行幸時,

□ 1752년(영조 28) 1월 30일

○ 又以兵曹言啓曰, 辛亥年長陵行幸時,

□ 1753년(영조 29) 9월 10일

○ 又以兵曹言啓曰, 辛亥年長陵行幸時,



수길원



화평옹주 묘

위의 행행 기록 중 『실록』을 기초로 1749년 2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에 걸친 능행과정을 소개한다.

영조 25년인 1749년 2월 10일 4경更, 즉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임금이 용복戎服을 입고 궁을 나와 신원新院 주정소晝停所의 막차幕次에 들어가니 동이 아직 뜨지 않았다.

봉일천奉日川 막차幕次에 주필駐蹕하였고 오시午時가 되기 전에 능소에 도착하였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참포黻袍·오서대烏犀帶를 갖추고 사배례四拜禮를 행한 다음 능을 봉심奉審하였다. 임금이 동북쪽 한 기슭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 곳은 나를 위한 땅이니, 대신과 예조 판서는 알아 두라.” 하였다.

다음날 역시 4경, 즉 새벽 2시경에 임금이 익선관·참포·오서대를 갖추고 의식대로 제사를 지냈다. 제례를 마친 뒤 마산馬山을 거쳐 가니 이곳은 화평옹주和平翁主의 묘였다.

화평옹주의 무덤은 파주읍 파주리에 소재한 부대 내에 자리잡고 있다. 마산을 거쳤다는 것은 곧 이곳을 말한다. 화평옹주는 영조의 셋째딸로 1727년(영조 3) 영빈이씨映嬪李氏에게서 태어났다. 조선후기 문신인 박명원朴明源과 결혼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748년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이곳에 매장되었다.

임금은 낮에 파주坡州에서 머무른 뒤 해질 무렵 소령묘昭寧墓에 이르렀다. 이곳은 숙종 임금의 후궁 숙빈최씨淑嬪崔氏의 묘소墓所다. 숙빈최씨는 1670년(현종 11년) 11월 6일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출생하여 숙종의 후궁이 되어 영조를 출산하였다. 49세로 별세하여 서울시 궁정동에 있는 칠궁七宮 안 옥상궁毓祥宮에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있다.

임금은 다음날인 12일에 환궁하였다. 도중에 임금은 주정소에서 경기 감사와 각종의 임무를 띤 차사원差使員을 인견하고 농사를 권장하라고 칙유勅諭함과 아울러 수륙水陸의 봄철 조련操鍊을 정지시켜 농민을 쉬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파주의 사족과 서원

정 만 조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1. 사대부 가거처 可居處와 파주의 사족 士族

선비 '사' 士란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을 지녔다. 성년 남자를 통칭하여 '사'라 부르기도 하고, 무사나 병사 兵士처럼 병졸의 통솔자란 뜻과 문사 文士에서 보듯 글하는 선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벼슬자리로서 대부 大夫아래의 벼슬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독서인 또는 지식인이란 의미이다.

그런데 중국의 한서 식화지 漢書 食貨志에서 모든 사람 民人을 그 하는 일에 따라 사·농·공·상 士農工商으로 구분하면서 글을 배워서 벼슬하는 자를 일러 '사'라고 한다(學以居位曰士)고 한 이래, '사'는 단순한 독서인만 아니라 '독서인 출신의 관인'이란 뜻까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사'와 '사대부' 士大夫가 큰 구별 없이 사용되면서 그들의 혈연과 혼인관계에 의한 족속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족'이 나오게 된다. 원래는 종사하는 일의 구분에 불과하던 사의 직업이 자손에게 세습되는 과정에서 사족이란 신분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다른 여러 의미도 이 쪽으로 모여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족과 관련된 세력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개 고려 후기로 말해진다. 무인정권하에서 문장과 행정사무에 능한 能文能吏 문인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그 중 일부는 원나라에서 새로 도입되는 주자학으로 사상적 무장을 하여 구가세족 舊家世族에 맞서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 바로 이들을 역사는 새로이 일어난 사대부 新興士大夫라 부르며, 조선이란 새로운 국가는 이성계란 무장을 앞세운 이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대부가 조선사회의 지배세력으로서 사족이란 사회신분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건국 후 근 1세기를

* 이 글은 파주시지(2009, 파주시) 2권 「파주역사」 편에 수록된 글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고자 발췌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16세기 중종 때쯤이었다고 말해진다.¹⁾

이렇게 볼 때 양반과 사족의 차이는 어떠한가가 문제되겠는데, 양반이 문·무반을 다 아우르거나 그 일족을 가리키는 의미라면, 사족은 위에서 독서인을 의미한다고 밝혔듯이 문관 내지 문인의 족속을 가리키는 한정된 신분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6세기 이후에는 벼슬하는 집안사람이란 뜻으로, 흔히 양반사족 또는 사족양반으로 붙여 별다른 구별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파주지역에 사족의 존재는 언제부터 드러나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갔을까? 이를 살피기에 앞서 우선 파주지역이 과연 사족이 살기에 적합한 곳인지의 여부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조선후기 택리지 擇里志라는 우수한 인문지리서를 남긴 이중환 李重煥(1690~1752)의 저술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제시하려는데 있었다. 그에 의하면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의 조건으로는 첫째 지리 地理, 둘째 생리 生利, 셋째 인심 人心, 넷째 산수 山水가 좋아야 한다는 네 가지를 꼽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는 오늘날의 지리 개념과는 조금 다른 풍수적 의미까지 곁들인다. “지리를 논하려면 먼저 물 나가는 입구 水口를 보고 다음 들판의 형세 野勢를, 다음은 산의 모양 山形을, 다음 흙빛 土色을, 다음 물의 흐름 水利를, 끝으로 앞쪽의 산과 물 朝山朝水 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무릇 수구가 이지러지고 넓기만 한 곳은 비록 좋은 밭 만 이랑과 넓은 천 칸짜리 집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고 하거나 “사방에 산이 멀리 있으면서 평탄하고 넓으며 산맥이 평지에 뻗어 내려다가 물가에 그쳐서 들판 터를 만든 곳이 (최상은 아니나마) 그 다음이 된다.”²⁾고 말한 부분은 파주의 지리와의 관련 있는 듯하므로, 조선의 사족들이 파주가 과연 가히 살만한 곳인가를 따질 때 그 조건으로서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제시해 보았다.

파주를 타고 흐르는 하천은 열서너 곳 남짓하지만, 그 중 공릉천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길이가 대개 4~8km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파주의 지형이 변성암으로 구성되어서 풍화작용을 쉽게 받기에 하천이 대개 모래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은 바로 지하로 스며들어 버린다. 거기에다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기운 침식된 골짜기에 따라 난 하천이므로 미처 하천물이 고이거나 천천히 흘러내릴 여유가 없었다. 수구조차 임진강을 향해 열려있는 형세이다. 그래서 고려 말에 안목 安牧이란 인물에 의해 크게 개간되었으나 택리지 말처럼 후손에게로 오래 전해지지 못했나보다.³⁾ 택리지에서 파주를 위시한 고양·적성·교하로 된 서교 西郊

1)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2) 택리지, 북겨총론, 지리, 산수

3) 성종 때의 인물인 성현成愼(1439-1504)의 용재총화에 보면 “안목安牧이 파주지역의 황무지를 크게 개간하여 넓은 농토를 두고 큰 저택을 지었으며 그 자손 준에게 이르러서는 안팎으로 차지한 땅이 수만 경에 이르고 노비가 100여 호나 되며 오랜 나무 수천그루가 서 있는 그들이 10리에 뻗칠 정도이고, 그 사이에 거위 오리가 시끄러이 소리치며 노닐고 있다. (성현이 살던 15세기 말에는) 그 땅을 100여인이 나누어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그 자손들이다.”(備齋叢話 坡州西郊)고 기록하고 있다. 안목은 고려말의 인물로 문과에 급제, 충숙왕 때 판전교시사를 거쳐 공민왕 원년 서연관을 지내고 공민왕 9년 죽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파주지역을 개척한 것은 아마도 만년인 공민왕 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안목은 문선공 안항의 손자이며 그 집안이 안항 때 개경에서 벼슬하기 시작했으므로 애초에 파주와는 별 관련이 없었고 안목 때 들어와 비로소 파주에 개간을 통해 농장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족보

가 모두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서 사대부로서 권세를 잃고 혹 교외로 나가 살게 되면 한 두세대를 내려가 품관이나 평민으로까지 몰락해 버린다고 하면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 못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다.

파주가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였다. 다시 말해 생리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택리지에 의하면 그것은 땅을 기름지게 하거나, 아니면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 들어서 서로 남고 부족한 물자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보아 조선의 사족들은 16세기 중반 이후 향약이나 사창제 등의 방식을 통해 향촌사회 운영을 주도하면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영농기술의 개량과 천방 川防과 같은 수리시설의 확보에 주력하였다고 한다.⁴⁾

파주지역에도 여말선초 이래 세거하여온 향촌세력이 있었고, 또 16세기 이후 파주와의 연고를 찾아 서울에서 낙향한 사대부들에 의해 새로운 사족세력이 형성되며, 흔히 우율학과 牛栗學派로 불리는 초창기 기호사림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족들이, 서울의 서쪽 교외에 위치하여서 편리한 교통도 그렇지만 사대부의 정서함양을 위한 임진강변의 뛰어난 경승까지 갖춰 사대부의 살만한 곳이라 할 만한 파주를, 땅이 메마르다는 생리 부족 때문에 짓혀 놓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리시설이 마련되고 개량된 농법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효종초 인평대군 방房의 농장개설⁵⁾이나 19세기 말인 광무연간에, 땅이 메말라 잡초만 무성하던 교하의 낙하평洛河坪(현 탄현면 낙하리)과 갈현평葛峴坪(탄현면 갈현리)의 수십리 버려진 들판을 길인수吉仁洙, 박창훈朴昌勳 같은 유력자가 중심이 되어 민인들과 함께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설치해 관개를 함으로써 기름진 옥답의 들판으로 바꾼 것⁶⁾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후일 20세기 초에 새로 군지郡誌를 편찬하면서 “파주의 토지가 비옥해서 쌀과 콩 등을 경작하기에 알맞다(土地肥沃 米大斗等 耕作適宜)”고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척박한 토지를 힘써 개간하고 개량해 옥토로 만들었던 파주 사족과 농민의 각고의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강상江商을 위시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평양을 거쳐 중국과 맞닿고 뱃길을 따라 국내 어디와도 연결되는 교통상의 요지에 위치한 파주의 생리가 크게 증가했을 터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의 항렬로 보아 파주일대에 수만경을 마련했다는 안준은 대체로 조선초기의 인물로 추정된다. 이 안목의 후손 중에 증종 때 좌의정을 지내고 조광조를 변호하다가 파직된 안당 安贍과 그 종형으로 판서를 지낸 안침安琛이 있다. 그런데 안당과 그 아들들이 증종16년(1521) 먼 친척별 되는 서얼 송사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멸문의 화를 당하면서 그 집안의 재산도 적몰되었는데 이 때 파주 지역의 농토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때 받은 타격 때문인지 순흥안씨로 안향 후손들은 대개 선조 이후 현관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주내면 부곡동에 안씨의 후손이 살고 있다.

4) 염정섭, 조선시대 농업발달연구, 태학사, 2002
 5) 송준길, 동춘집 권1, 疏筭 應旨兼辭執義疏 己丑 11月, 이 상소에서는 大君房의 농장개설이 파주의 피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대군방의 농장임으로 인해 수리시설이 축조될 것이며 또 최신평법이 적용될 것임으로 인해 오히려 파주지역의 개간과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가져오게 하는 이점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6) 파주군지, 1923, 경기도 파주군

18세기 이후에 파주가 한강 임진강을 주된 유통망으로 하는 강상들의 주요거점으로서 상업 지역으로 성장하고, 서울 사대부들에게 종전의 묘산墓山정도로 인식되던 단계에서 벗어나 향제鄕第·별서別墅를 건립하여 가히 살만한 배후거주 지역으로 새삼 주목을 받았던 것과 함께, 서울 사대부와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으면서도 주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지역에서 흔히 신향新鄕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던, 새로운 세력이 파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는 사례 등이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 아닐까. 다음에서 파주지역 사족의 이러한 성장과 활동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2. 파주사족의 기지개 — 파주향약과 파산서원

여말선초의 시기에 파주지역의 향촌사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나마 찾아지는 것도, 예컨대 尹坤 尹璠 등 파평윤씨나, 成達生의 창녕성씨, 황희와 그 후손의 장수황씨 등 顯官을 지낸 京中士大夫의 墓所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다. 그러는 중에서도 파주와 관련된 사족의 움직임에 전해주는 자료로는 순홍안씨 安牧의 농기개간과 덕수이씨 이명신李明晨의 花石亭이 찾아진다.

성현의 용재총화에 보면 고려말에 안목이 파주에 농토를 크게 개척했고 그 후손대에 이르러 농지 수만경에 노비 100여 호를 둘 정도로 크게 번창했으며 15세기말쯤에는 후손 100여 명이 땅을 나누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아래에서 다시 말해지지만 안씨집안의 이러한 재지적 기반은 16세기에 들어와 안씨 후손의 중앙정계 진출은 물론 京中士大夫의 파주입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 화석정은 조금 다르다. 세종연간 공주·홍주목사를 역임했던 이명신이 파주 율곡리에 별서別墅를 마련하고 정자를 세웠는데 그 손자 이의석이 황폐된 정자를 중수하며 화석정이라 이름 했다고 한다. 물론 이 화석정 근처에 약간의 田土도 장만해 놓고 집안의 노비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며 정자를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덕수이씨 집안사람들은 후일 이의석의 증손자되는 율곡 이이가 그랬던 것처럼, 벼슬에 나가기 전에는 몇 년간씩 여기서 머물며 학문적 온축을 쌓는가 하면, 벼슬하는 도중에도 틈을 내어 화석정을 찾고 혹 벼슬이 떨어져 불우해지면 이곳에 와서 만년을 보내는 장소로 활용되고는 하였다.

그러나 화석정이 있는 파주 율곡 일대를 위의 安氏집안처럼 생활기반 자체를 여기에 두고 世居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덕수이씨 집안에 있어서 이곳은 집안의 별서가 있는 곳이며 京第를 떠나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 겸 학문연마의 장소인 鄕第였을 뿐이다. 아마도 위에서 든 파평윤씨, 창녕성씨, 장수황씨, 청송심씨 등 묘산을 둔 경우도 이와 같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정은 이곳에 분묘를 가졌던 성현의 용재총화가 잘 전해주고 있다. 요컨대 15세기 내내 파주는 서울근교로서 京中士大夫의 후방기지 역할을 다하였던 것이다.



화석정



용주서원



자운서원



파산서원

물론 파주지역에 世居하는 향촌세력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사족 신분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존재들은 아니었고 그래서 기록 자체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파주지역의 향촌사회에 변화가 온 것은 16세기에 들어와 성수침·백인걸 등의 인물들이 입향하여 자리를 잡게 되면서였다. 이들은 당시에 새로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대두하던 사림의 영수 조광조의 문인들이었다. 왕실과의 결탁을 통해 온갖 비리와 부정을 자행해 온 집권세력을 비판하며, 현실에서의 도학정치 구현을 목표로 사회전반의 개혁을 주장하여 온 사림은 그러나, 조광조 등 개혁 주체가 실각하고 죄를 입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에 머물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향리로 낙향하거나 연고지를 찾아 은둔하며 修己와 학문에 힘쓰게 된다. 서경덕·이황·조식·이항 등 조선성리학을 수립한 대가들이 혹은 개성에서, 또는 안동의 예안, 진주의 덕산, 전라도 태인을 근거로 하였던 것이 이를 말한다. 성수침과 백인걸이 파주를 찾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 성수침은 이미 그 先代에서부터 파주에 墳山을 두기도 하였지만 妻(尹士元의 女) 鄉이 바로 파주읍 향양리의 牛溪여서 1541년(중종36) 아예 서울 白岳山 아래 聽松堂의 살림을 거두어 이곳으로 옮기고 竹雨堂을 지어 정착하였다. 이후 조선말까지 그 후손들은 이곳을 근거로

수백년을 세거하게 된다.

한편 백인걸의 경우 그 어머니가 고려말의 名臣이던 禹玄寶의 후손 禹從殷의 딸로 교하 萬隅里가 친정이었고, 또 後妻(順興安璫 女)가 앞서 파주·교하일대에 수만경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安牧 후손 집안사람이어서 일찍부터 월릉산 아래에 寓居하여 왔다.

성수침과 백인걸의 파주거주는 그동안 집권세력이던 훈척의 분산·별서 등으로서 서울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던 파주 향촌사회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당장은 사화의 여파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으나, 이 시기 사림의 향촌활동을 특징짓는 향약이 이미 명종15년 시행된 것이라든가 무엇보다도 그들의 훈도하에 장차 선조이후의 사림정치와 성리학을 이끌어 갈 울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일 파주지방의 대표적 인물을 수록한 파주향선생안(鄉案)을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인물이 없지는 않았으려만은 이 성수침·백인걸로서 첫머리로 삼았던 것은 파주의 사림사회가 두 사람의 入鄕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시대에 사림사이에는 영남지방을 일러 흔히 鄒魯之鄕이라 하였다. 추로란 맹자와 공자가 태어난 지방을 이르는 곳인 만큼 정몽주 이하 이황·조식에 이르는 뛰어난 유학자를 배출한 영남이 조선유학의 본고장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영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파주도 식자 간에 조선의 추로라고 불리었다. 성혼의 문인으로 후일 임진왜란 때 왜군에 잡혀 일본에 압송되었다가 돌아와 『간양록看羊錄』이란 포로생활 당시의 기록을 남긴 강항姜沆이, 광해군 연간에 지은 파산 四賢서원(파산서원 재건당시의 임시 명칭, 후술 참조)의 察倫堂 上樑文에서 “파산 한 고을은 마치 노나라처럼 어진사람이 많았으니(坡山一邑 似魯國之多賢)”라고 하여 이미 파주를 공자 고향인 노나라에 비유했던 것이라든가, 숙종39년에 파주유학 曹翊周 등이 올린 上疏나 숙종말에 학자로 이름있던 厚齋 金翰의 글에서 “파주고을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추로라고 불리었다.(坡州一邑 素號我東鄒魯)”고 한 말이 그 예가 된다.

추로라고 하려면 훌륭한 학자가 배출되었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성수침과 백인걸도 거론되지만 파주로 하여금 조선의 추로라는 이름을 얻게 한 학자는 바로 울곡 이이와 우계 성혼이었다. 두 사람은 살아서는 도학을 함께 논하고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同志였고 죽어서도 牛栗 또는 栗牛로 불리면서 文廟從祀는 물론 毀譽를 함께 하는 同傳이었다. 퇴계·남명에 의해 영남학파가 형성되었다면 그에 맞서서 기호지방의 유학을 대변하는 기호학파는 바로 “珥·渾”, 또는 “栗·牛”로도 별칭되는 두 사람을 스승으로 하는 그 문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우물이 같은 시기에 함께 살았던 곳이었기에 파주를 조선의 추로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이와 파주의 인연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그 5대조 이명신이 마련하고 증조부인 李宣碩이 재건한 花石亭과 파평면 자운산 아래의 울곡리에 있는 世業(田土·奴婢·農舍)에서 맺어졌다. 강릉 外家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6살 때 서울로 온 이이가 이미 8살 때 화석정 시를 지었다고 하므로 소년시절부터 서울 본가와 파주 田畝를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49세로 서울에서 작고하여 자운산 기슭에 묻힐 때까지 울곡의 활동은 파주를 주된 근거

로 하여 전개되었다. 물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이후는 서울에서 머물고, 또 35세 되던 해에 살림집을 처가인 해주 野豆村으로 옮기며 亡兄의 큰집 식솔까지 다 불러 모아 아예 생활 기반을 해수에 마련하였으므로 인해 율곡을 파주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혹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성숙과 저술이 이 파주에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호인 율곡이 바로 파주 자운산 아래의 田畝가 있던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율곡을 파주사람으로 간주하게 하는 유력한 근거이다. 사실에 있어서도 그는 금강산으로 입산했다가 돌아온 19세 이후, 때로 省親을 위해 서울과 강릉(외조모)을 찾는 외는 과거에 급제한 29세 때까지 파주에 머물렀다. 여기서 평생의 지기였던 우계 성혼과 교의를 나누며, 특히 인근에 살던 성수침과 백인걸로부터 정암 조광조의 도학과 정치적 경륜을 듣고 배웠다. 氣一元論的 성리철학과 경장론 위주의 율곡정치론은 바로 이 파주의 율곡리 田畝에서 기초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율곡은 서울에서 벼슬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물러날 때에도 파주를 찾았다. 그의 연보에 보면 선조9년 개혁에 소극적인 임금에 실망하여 은퇴를 결심하고 서울살림을 정리하여 해주의 석담에 옮겨가 일년여를 머물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선조17년 작고할 때까지, 벼슬에서 물러나면 으레 파주의 율곡 田畝에서 병을 다스리고 휴식한 것으로 나온다. 선조7년 聖節使의 서장관으로 명을 다녀온 허봉의 사행일기인 朝天錄에 보면 파주를 지나면서 율곡을 찾았는데 파리한 병색의 율곡이 마침 성학집요를 편찬하고 있어서 이를 놓고 함께 토론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성학집요는 三代의 至治를 이루기 위해 임금이 해야 할 修己와 治國의 방향을 조목조목 논한 제왕학의 대표적인 저술로 손꼽힌다. 이 성학집요뿐만 아니라 율곡리 경장론을 담은 疏章이나 격몽요결, 학교모범, 경연일기와 같은 문자 역시 대개 이 파주에서 머무는 기간 구상되고 편찬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파주는 “율곡학”이라고 이름하여도 좋을 율곡 학문의 産室이었다고 할 것이다.

율곡과 함께 파주를 대표하는 유학자는 성혼이었다. 성수침의 아들로 서울의 順和坊에서 태어나 10살 때 부친을 따라 파주 향양리로 옮겨온 그는 율곡처럼 거주지 앞을 흐르는 개천 이름인 牛溪로서 자신의 호를 삼았지만, 그러나 율곡이 그 생활기반을 해주 석담으로 옮겼던 것과 달리 64세로 작고할 때까지 파주의 우계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 후손들도 향리를 지키며 조선말까지 세거하였다. 부친으로부터의 가정교육과 아예 백인걸의 문인으로 수학하였던 관계로 학통상으로 본다면 그는 율곡보다도 조광조로 대표되는 조선조 도학의 정통을 계승한 선상에 위치하였다. 그래서인지 서울과 인근 고양의 윤두수·근수, 정철, 심의겸같은 인물이나 저 멀리 영남의 남명 조식의 제자인 최영경, 정인홍과 양홍주같은 선비들까지 그의 집을 출입하는 등 일찍부터 명망을 얻고 있었다.

지명으로서 자운산 아래의 율곡과 명학산자락의 우계의 거리는 두어 마장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율곡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성리학에 뜻을 두게 되는 19세 되던 해, 20세이던 우계와 서로 朋友의 의리를 맺어 이후 生同志死同傳하는 학문과 인격의 결속체를 이루게 된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재분껏 한 사람은 窮理格致하여 經世官僚의 길을, 또 다른 사람은 反躬實踐하는

山林學者의 길을 걸었지만, 四端七情人心道心說의 논란을 통해 앞선 사람들 주장의 미심쩍은 부분을 밝혀 조선성리학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당시 정국의 운영방향이라든가 현안 타개 방법에 대한 상호간의 의논조율을 통해 수준높은 사림정치론을 수립하였다. 양인의 학덕이 깊어지고 명망이 드러나면서 경향 각처로부터 問業하려는 선비들이 이들을 찾아 꼬이게 된다.

울곡이 서울서 벼슬하고 파주에서 학문을 닦으며 해주에 생활터전을 두었기에 세 곳에 그 문인들이 분포했다면, 우계는 파주를 본거지로 움직이지 않아서 파주 한 곳에만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울곡이 실제로 서당을 열어 강학을 한 곳은 해주였다. 그래서 은병정사를 세우고 학규를 정했으며, 사창계약속, 해주일향약속 등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파주지역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향약서문을 지은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성혼은 자신을 찾아오는 학도를 가르치기 위해 자기 거처인 파주 우계에 書室을 열고 22조목으로 된 書室儀를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울곡의 경우 세 곳에 문인들이 있었다 하나 그 학문적 기반을 파주에 두었던 관계로 서울과 해주의 문인까지 파주로 출입하였고, 우계와 동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개 그 문인들이 울곡·우계의 兩門을 같이 출입하였다. 바로 여기서 퇴계와 남명의 문인을 주축으로 하는 영남학파 내지 영남사림에 비견되는, 牛·栗門人을 주력으로 하는 기호학파 내지 기호사림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인물을 꼽아보자면 김장생·이귀·조현, 오윤겸·윤황·황신·신응구, 정엽, 김권, 김집, 김류, 김상용, 신희, 강항·이정구·김육 등 인조이후 명인으로 드러나는 인물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물론 파주출신은 아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경기도는 물론 충청도 연산, 심지어는 전라도 능주(안방준)에까지 걸친다. 이렇게 먼 지방의 사람들까지도 牛·栗을 좇아 모였고 그 중심지는 파주였다. 더구나 선조17년 울곡이 작고하고서는 우계만 남은 상태이고 그 우계가 파주에만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파주는, 특히 그 형성기에 있어서 기호사림의 본거지였다고 하겠다. 앞서 잠시 나왔지만 파주가 조선의 추로라고 불리어진 까닭은 이러한데 있었다.

栗牛의 학자적 명성과 파주에서의 강학활동 및 그 문도들의 결집으로 인한 기호학파의 형성은 후일 그 기반으로서 파주의 이름을 조선의 추로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알리게 하였다. 따라서 파주지역 사족의 분위기 또한 종래의 훈척적인 데서 사림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명종2년 파주백성들이 벼슬이 갈리어 돌아가는 목사의 행렬을 가로 막고 그 행장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 백성은 굶어 죽는 판에 진흙은 하지 않고 官物을 신고 어디로 가느냐는 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단이었다. 조정은 이를 난민으로 보아 엄한 처벌을 내렸지만 한편으로는 유교적 교화를 통해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순치시켜야 하였다. 주자가 상부상조의 물질적 기초 위에서 유교 윤리에 의한 향촌질서수립을 목적으로 재정한 향약은 여기에 합당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그리하여 퇴계의 예안향약처럼 뜻있는 유학자가 향촌별로 시행하는가하면 국가는 수령들에게 이의 시행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파주에도 명종15년 목사 변협이 관내의 두세 명의

유력자(長子)와 의논하여 향약의 내용을 실정에 맞게끔 제정하고 율곡에게 그 서문을 부탁하였던 것 같다. 현재 향약의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율곡이 지은 파주향약서문은 남아있다.

목사 변협은 몇 년 후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문정왕후를 밋고 발호하다가 제주로 귀양 온 승려 보우를 매 때려죽인 사림계 인물이었다. 그리고 율곡 서문에 보이는 두세 명의 어른도 아마 성수침·백인걸·성수종 같은 사림계 인사였다고 보인다. 불과 25세밖에 안된 율곡이 서문을 쓴 것도 놀랍거니와 이를 통해 율곡이 파주지역의 유교윤리보급과 교화에 앞장서고 있음과, 다른 지역에 비해 파주에 사림적 향촌질서수립 움직임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구적으로 시도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牛·粟을 중심으로 한 파주사족의 동향을 찾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파산서원의 건립이다. 퇴계 이황에 의해 도학이념의 확립과 특히 士林양성기구로서 성격을 가지고 보급되기 시작한 서원은 명종말까지만 하여도 전국의 10여 곳에 세워진 데 불과하였다. 이들 지역은 대개 사림계 인물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사림세가 강한 곳이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서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림세가 확산되고 그 지역이 사림적 분위기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런 의미를 지닌 서원의 건립이 선조원년 이율곡의 주동에 의해 파주지역에서 추진된다.

『청송집』에 실린 월사 이정구의 “파산서원 봉안제문奉安祭文”을 설명한 머리글 의하면 선조원년 율곡이 사림 간에 통문을 내어 청송을 제향하는 서원건립을 발의하고 이어 영건에 들어갔으나 공사가 늦어져 미처 位板을 봉안하기도 전에 임진왜란을 만나서 병화에 불타 버렸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문이 『율곡문집』에 실려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서원건립을 알리는 일반적인 통문의 예로 보아 대체로 “坡州聽松先生書院營建通士林文”하는 정도의 제목으로 청송의 學德을 들어 서원에 제향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서원건립에 따르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정랑벼슬에 있던 淸江 李濟臣이 청송의 아들인 성혼에게 청송뿐만 아니라 절의로서 이름 높던 그 아우 成守琮까지 함께 제향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이 통문에 대한 관료를 포함한 사람들간의 반향은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반향이 큰데 비해서 물질적 지원은 여의치 못했던 것 같다. 임진왜란 발발이 선조25년이니까 발의에서부터 25년이 지나도록 위판 봉안마저 못할 정도로 공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한다.

이렇게 청송서원의 건립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서원건립의 일반적인 예로 본다면 지방관의 인적·물적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서원 건립과정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은 이때의 파주목사 역임자들이 서원에 관심이 적었거나, 지원할 만큼 파주의 재정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조 초에 생겨난 동인·서인의 봉당명목에서 율곡과 우계가 수적으로 크게 열세인 서인쪽에 속하였던 것도, 일반관료의 보다 많은 지지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파주지역의 사림세가 아직 향촌을 주도할 만큼 충분하지 못

한데 있지 않았을까 한다. 비록 청송·휴암이 사립적 가치와 생활의 모범을 보였고 율곡과 우계가 목사와 협력하여 향약을 실시하며 학문 활동을 통하여 문인집단을 양성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원래 조선 초 이래 중앙관리의 墳山과 別墅 등을 통하여 구축되어 온 훈척적 기반과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어, 파주향촌의 분위기가 반드시 율곡·우계가 추구하는 사립적 질서와 방식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사립양성기구인 서원건립이 지지부진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파주지역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선조 대에 들어와 사림이 비록 정권을 장악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완전치 못하였으므로 해서 향촌에까지 사립집권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퇴계를 위시한 학자들이 향약의 실시를 주장하고 서원의 보급에 앞장섰던 것이다. 율곡과 우계 등이 주동한 파주청송서원건립추진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20여 년이 넘도록 서원영건사업은 끝나지 않았고 위판봉안마저 하지 못했다. 그것도 율곡 우계 등에 의해 주자학이 강론되고 성리학적 향촌질서의 수립에서 다른 곳보다 선진적이라고 할 파주에서 말이다.

이것은 무려 반세기 이상 걸린 4차례의 사회를 겪으면서 비로소 정권을 쥘 수 있었던 집권 과정과 마찬가지로, 향촌사회의 사립화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파주향촌 사회의 사립화와 사족활동의 활성화는 율곡·우계의 다음세대가 활동하는 시기인 17세기를 기다려야 하였다.

3. 추로지향 파주의 한 모습 - 合享論과 位次 논란

임진왜란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백성이 유리하고 국토가 황폐화된 것은 물론 국가지배체제마저 무너져 내렸다. 한마디로 국가의 운명이 끝까지 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였던 조선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자가 당면하였던 가장 큰 과제는 국가의 재건이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임진왜란에서의 전란 극복과 의병활동을 통해 그 존재를 확고히 하면서 가장 유력한 사회세력이 된 사림과 그 모집단인 사족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해법은 중앙에서 사립정치의 구현과 향촌에서의 지주제·자치제의 구축으로 전개되지만,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그들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리하여 사립정치의 봉당적 구도 속에서도 상대당의 존재를 용인하고 정권에 함께 참여시키는 조제론이 힘을 얻었다. 일당의 독점지배를 추구하던 광해조의 복인정권이 연합된 사림의 힘에 의해 축출된 것이 그 예이다. 향촌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족 간에 결속을 강화해주는 鄉案·鄉規나 사족과 향촌민 사이의 유대를 연결하는 향약·社倉制 등이 조직되고 시행되었다.

이런 속에서 모든 활동의 주축인 사림을 양성하고, 그 결속과 활동에 기반을 제공하는 서원

이 향촌사족의 중심기구로 등장하게 됨은 당연하였다. 서울의 근교여서 중앙정치의 여파가 직접 미치는 특성을 갖기는 하지만 파주지역이라고 하여 이런 추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개별적인 서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동시에 사림결속의 형태로서 서원통합의 논의가 진행된다. 이런 까닭으로 17-18세기 파주의 사림동향을 서원합향론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이이·성혼이 배출되었기에 조선의 추로지향으로 자부하는 만큼 그들의 학문을 계승하고 학풍을 유지하기 위한 서원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의 서원 건립은 금방 추진될 수 없었다. 왜란의 피해로 물력은 물론 인력마저 크게 부족하기도 했거니와 북인이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粟·牛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고한 율곡도 그렇지만, 특히 우계는 정여립옥사를 뒤에서 조종한 원흉이며, 왜란 때 신하의 절의를 다하지 못한데다가 일본과의 화의론을 주장했다하여 간신으로 몰려 罪案에 들어가 있었다.

상황은 광해군이 즉위하고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학적 기준이 당론을 공론으로 판정하는 요소가 강화되면서 各黨마다 자기당의 도학적 정통성을 담보하는 유학자를 현양하는 경향이 이미 현저해진 상황이었다. 남인계의 이황이 포함된 5현의 문묘종사 요구에 대해 북인계 또한 그 학문계보인 남명 조식과 화담 서경덕의 문묘종사 추진과 곳곳에 서원건립을 도모하고 있었다.

남인의 5현종사에 동조하던 서인계 역시 이에 대처해야 하였다. 광해2년 5현종사가 실현된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그 학적연원인 율곡과 우계를 현양해야 한다는 소리는 이런 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광해7년 율곡을 제향하는 서원이 파주 자운산의 율곡 묘소아래(현재의 법원을 동문리) 먼저 세워지게 된다.

율곡제향의 초기 자운서원 건립관계를 전하는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자운서원 관련 자료를 모았다는 자운서원지(1999년 간행)에는 처음 세운 위치를 후일 이전한 虎鳴山泉站(현재의 천현면 가야리)이라고 잘못 적고 있기까지 하다.

임진왜란 당시 외교문서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문장가로 이름 높았고, 후일 인조 때 율곡의 謚狀을 지었던 月沙 李廷龜가 전하는 바(月沙集 권35 答鄭時晦暉, 권36 與申子方應渠兼示尹可晦叻)에 의하면 자운서원은 광해조7년(1615) 모월 15일에 율곡 위판을 봉안하였다는데 서울에서 내려 온 참석자는 金鑾 등 관인 3명과 유생 몇 명이었고, 황해도에서 온 유생 수십명에 파주 본읍의 유생 40명 정도, 그리고 尹都事, 趙佐郎과 백발의 노인이 모두였다고 한다.

위판 봉안이란 경사가 있는 당일의 이런 쓸쓸한 모습을 전하면서, 이는 서울 사대부들이 사고가 많은데다가 ‘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고는, 그러나 “한줄기 斯文을 부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흥한 무리에게까지 알려져 그들 마음대로 일을 망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一脈斯文 猶足扶持 不必使兇徒與聞而任其壞了也)”하여, 불리한 정세 속에 율곡서원의 건립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이때는 영창대군 추대설과 연관된 계축옥사의 여파로 많은 서인이 박해를 받고, 북인의 폐모론이 그 마각을 보이던 시점이었다.

벼슬하는 관인들이 눈치 보느라 봉안식에 참석을 꺼릴 정도였다면, 백면서생인 파주 사림이

받았을 유·무형의 압력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도 참석 유생이 40여인이나 되었다는 데서, ‘기력’이 부족하다는 관인에 비해 파주 사람의 ‘용기’가 돋보이기도 하려니와, 그만큼 파주지역 사람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다.



파산서원 제향



자운서원 제향



용주서원 제향

파주에 울곡서원이 세워졌다면 당연히 우계서원도 함께 건립되었어야 하였다. 아니 오히려 파주와의 연고를 고려하고 십몇 년을 더 살아서 그만큼 파주에 더 많은 문인을 두었던 사정을 생각한다면 울곡보다 우계서원이 먼저 세워져야 하였다. 사실 울곡서원이 세워지기 전인 광해3년에 이미 우계를 제향하려는 서원건립 움직임이 있었다.

우계문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에서 포착되는 이런 움직임은 파산서원의 재건을 통해서

었다. 선조 초 율곡의 주동으로 시작된 청송제향의 파산서원은 결국 준공을 보지 못하고 전란을 만나 불타고 말았는데, 그 재건 논의가 우계제향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다. 다만 이때의 논의는 청송·우계의 부자간만 아니라 휴암 백인걸과 율곡까지 포함하여 추로지향으로서의 파주를 대표하는 이른바 “坡山四賢”을 함께 제향하자는 방향이었다.

광해군10년에 죽은 우계문인 姜沆이 지은 “坡山四賢書院察倫堂上樑文”이 그의 문집(睡隱集, 권2)에 실려 있고, 李穡 역시 파산서원상량문(擇堂別集 권12)에서 “4현이 한 나라의 우러러 보는 바 되고 끼친 큰 덕업이 향촌 간에 가깝지 않은 바 없도다”라고 하면서 청송·휴암·우계·율곡의 덕업을 차례로 거론한 것을 보면, 적어도 광해군10년 이전에 “파산4현서원”이란 임시명칭으로 찰륜당과 같은 강당이 지어질 만큼 4현제향을 목표로 한 파산서원 중건작업이 구체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주고을이 추로지향임을 내외에 표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一邑一院”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뒤따랐다. 우선 우계를 주화오국의 간신으로 매도하는 집권당의 편향된 시각 속에 우계제향을 밀어 붙일 수는 없었다. 중건을 알리는 回文의 머리글(頭辭)에 단지 청송이름만 넣자는 궁여지책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이 그런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서 聽松·休庵·牛溪 3인과 栗谷을 함께 제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거론되었다. 단순히 鄉賢을 봉안하는 祠宇가 아니고 사림을 양성하는 道學의 장소이니 만큼 우계라면 몰라도 청송·휴암과는 서원에 함께 제향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함께 위패를 봉안한다 하더라도 位次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논란거리였다. 그저 쉽게 世代順으로 정하는 것은 이미 도학위주의 서원으로 이름난 이상 명실이 어긋난다. 다만 우계는 청송과 부자간이고 휴암과는 사제 간이니 만큼 함께 봉안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끝에 결국 율곡을 위해 별도의 서원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정엽 등의 주장(守夢集 권8, 答申子方)이 힘을 얻게 된다. 율곡만을 제향하는 자운서원의 건립이 파산서원 중건 추진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김장생 중심의 율곡직계문인의 주동에 의해 파산서원의 중건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정은 이러한데 있었다.

율곡서원의 독립으로 난제가 해소되고 그에 따라 우계의 서원제향 또한 급해졌으나, 그렇다고 파산서원의 중건이 바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파산서원이 중건되어 우계의 위패가 봉안된 것은 10여 년 뒤인 인조6년(1628)이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함으로써 우계의 죄도 신원되고 더 이상의 제약이나 장애적 요소가 없어진 다음이었다. 그런데 중건된 파산서원에는 청송·우계 부자의 위패만 봉안되었지 휴암의 자리는 없었다. 율곡이 빠져 나감으로써 파주4현의 명분이 없어지기도 했거니와 우계문인과 그 집안 후손 쪽으로 보아서는 율곡의 자운서원에 비견되는 우계의 독립적인 서원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때의 휴암 제향론은 파산서원 중건의 명분을 보강해 주는 선에서 일단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논의는 후일 효종말에 다시 제기되어 한때는 자운서원에 別祠를 두는 것으로 낙착되었다가 끝내는 파산서원으로 옮겨

봉안되고, 후일 성수종의 추향에 따른 위치시비에 휘말려 그 후손 문파 간에 분기를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효종 원년 국가의 사액을 받는 등 자운과 파산서원은 각기 그 제향인물의 학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일대에 생활기반을 가진 후손과 문인을 주축으로 서원을 운영하며 우계학맥을 지켜오는 파산 쪽과 달리 자운서원 쪽은 날로 피폐해짐을 면치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울곡에게 적손이 없기도 했으려니와 그나마 있는 서자의 후손마저 해주 석담에 거주하고 있어 서원을 관리할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서원 간의 이러한 차이는 같은 우울문인이라 하면서도 울곡의 적전임을 자처하면서, 우계후손과는 다소 결끄러운 관계에 있던 김장생과 그 문인들인 울곡직계 사림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송시열이 “파산 쪽은 그 후손이 번성해 돌보기 때문에 더 보탬 것이 없이 잘 갖추어 있으나, 자운 쪽은 무덤마저 황폐하여 처량하기 짝이 없다. 입만 열면 선생을 높인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나 몰라라 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랴”고 탄식한 것(宋子大 全 권44, 與洪遠伯重 普, 무신 10월 28일)이 그 좋은 예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운서원과 울곡묘소 쪽의 재건과 정비가 있어야 하였다. 아래에서 말하겠지만, 효종 말년 자운서원의 泉站(현재의 천현면 가야리) 虎鳴山 아래로의 移建을 통한 중수와 휴암 백인걸의 제향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청송·휴암·울곡·우계의 4현을 한곳에 숭배해야 한다는 의논이 다시 일어나고 그에 따라 파산서원까지 이곳 천참으로 옮겨야 한다는 서원통합론이 한창 논란되다가 결국 성사되지 못하여 자운서원은 원위치하며 휴암 위패는 파산서원 쪽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겪고, 그러는 속에서 자운서원 묘정비를 세움과 함께 울곡 庶孫을 해주에서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해 관리를 맡게 하는 등 이삼십년간에 걸쳐 파주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이런 배경 위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의 중심에는 우암 송시열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운서원 묘정비

남은 자운서원의 증수는 묘소 부근에서 천참의 호명산 아래로 이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겸하여 이견된 서원에는 雙廟를 두어 울곡 이외에 휴암 백인걸도 제향하게 하였다. 그 시기는 대개 효종 말년경인 1658년 전후였고 파주목사 金光燦이 이일을 주관하였다. 김광찬은 척화론으로 유명한 김상헌김상헌의 아들이며 후일 숙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김수홍·수항 형제의 부친이었다. 그러나 김광찬의 배경이 이러하고 또 현직의 파주목사였다 하더라도 자운서원의 이견과 휴암제향이란 유림의 중대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과연 박세채가 송시열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보낸 편지(宋子大全 권44, 答宋尤齋別紙)에 보면 송시열이 파주목사에게 이를 권유했음이 드러난다.

서원의 건립에는 막대한 물력과 사람의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뜻있는 수령이라면 다소 무리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수는 있다. 마침 백인걸집안 쪽에서 그의 옛 자취가 남아있는 월룡산의 휴암 아래 서원을 세우고자 모아 놓은 재물이 있었다. 우암으로서는 자운서원을 증수할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의리를 같이하며 절친하였던 김광찬이 파주목사가 되자 이를 밀어 붙였다고 본다. 이 때 천참에 세워진 자운서원에 대해서는 이경석이 紫雲書院栗谷先生移奉祝文(白軒集 권34)을 남겼다. 여기 보면 “(전날의 서원은) 땅의 형세가 좁고 답답하며 쉽게 무너질 염려가 있었는데 이 천참은 가까우면서도 동네가 탁 트여 넓었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이 뜻을 같이해 재물을 모아 사우를 세우고 … 좋은 날을 골라서 위패를 옮겨 모신다. 또한 휴암도 서쪽편에 모셨는데 평소의 관계를 고려해 따로 위패를 두게 한 것이다. 서원이름은 옛 명칭대로 하되 규모를 늘리고 새로 수축하였다.”고 되어 있다. 옮길 당시의 정경을 잘 전해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견하게 된 이유를 옛터가 좁아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고 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이를 뒤에서 지휘한 송시열에게는 보다 큰 뜻이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앞서 광해 초에 시도하다가 중단된 청송·휴암·울곡·우계의 파주를 대표하는 4현을 합향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栗牛의 문묘종사와 함께 명분상으로 조선의 추로지향으로서 파주의 위상을 확실히 드러나게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울곡을 홀로 제향하는 자운서원 건립에서 오는 운영상의 애로나 관리상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 주는 현실적 방안이기도 하였다. 뿐 아니라 그동안 백인걸 측의 불만이었던 휴암의 서원향사를 실현할 수 있어 향촌명문집안간의 갈등해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효종4년 충청감사 徐必遠의 서원폐단소에서 비롯된 “한 고을 여러 서원(一邑多院)”에 대한 세간의 비난에서 벗어나며, “한 고을 한 서원(一邑一院)”이란 국가시책에 파주가 모범을 보인다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자운서원의 천참이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결과마저 좋기는 어려운 법이다. 하물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실현마저 불투명해지기 마련이다. 바로 파주4현 합향문제가 그러하였다. 합향은 파주에 있던 기존서원인 자운과 파산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하였다. 자운서원이야 천참으로 옮기면서 휴암까지 받아들인 통합의 주체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터였다. 문제는 파산서원

쪽이었다. 청송의 파주입항이래 이미 3·4대를 지나면서 친손은 물론이고 외손·外裔와 우계 학파라 이름 할만한 문인 후손의 집단이 파주 전 지역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파산서원은 바로 이들의 구심체며 학문 및 향촌활동의 기반이었다. 우계의 외손으로 충청도 魯城에 본가를 둔 윤선거가 파산서원에 머물며 우계의 「書室儀」를 걸어놓고 파주사람들과 강학했다는 것은 작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파산서원이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뜻 통합론에 그러자고 동의하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통합론을 주도하던 송시열은 당시 파산 쪽의 실질적인 대표인 윤선거와 의논하였다. 윤선거도 통합의 원칙에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음으로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4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송시열·송준길·유계·이유태·윤선거의 이른바 湖西5賢은 물론 박세채·윤증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절충하는 말과 편지가 수없이 오갔다.

윤선거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송준길에게 보낸 “與宋明甫論坡山位次之議”(魯西遺稿 권11)에 의하면 논의는 모두 5가지였다. 첫째는 세대에 기준해 위치를 정하자는 안(世代序享)으로 김집의 주장이고, 둘째는 현재와 같은 3廟, 즉 파산의 청송·우계 1묘와 자운서원의 울곡 1묘, 휴암 1묘로 두는 안이며, 셋째는 서원을 통합하되 雙廟로 나누어 西廟는 청송·휴암, 東廟는 울곡·우계를 제향하자는 안으로 송시열이 지지하고 송준길은 유보적이었다. 네 번째는 합해서 1묘만 두고 동서로 나누어 서쪽에는 청송·휴암, 동쪽에는 울곡·우계를 배치하자는 파주사람의 안이며 다섯째는 3안, 4안을 약간 수정하여 정암 조광조와 퇴계 이황을 각기 가운데 주향으로 하고 정암쪽에 그 문인인 청송·휴암을, 퇴계쪽에는 울곡·우계를 배향하자는 孤雲회의에서 나온 주장인데 우암(송시열)·동춘(송준길)·초려(이유태)가 모두 불가하다고 했다 한다.

이 다섯 가지 안중에서 윤선거 자신은 세 번째 合設雙廟分享을 지지하나 다만 송준길이 東廟가 높다 하므로 그에 따라 동묘에 청송·휴암, 서묘에 울곡·우계의 위패를 봉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결국 송시열·송준길·윤선거의 의견은 자운과 파산의 두 서원을 합하여 4현을 각기 두 분씩 분향하는 쌍묘를 두되, 강당과 동서재 그리고 서원 소속의 토지나 노비를 모두 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면 서원재정의 부족이나 관리의 부실과 같은 폐단을 막고 추로지향으로서 파주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울곡의 적통인 兩宋(송시열·송준길)이 주장하고 우계의 외손인 美村(윤선거)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만큼, 송시열의 처음 의도대로 泉站에 옮겨 세워진 자운서원에 파산까지 옮겨와 하나의 서원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방안도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 박세채가 조목조목 따져서 合設雙廟分享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선거가 뒤로 물러나 버리고, 우계의 자손들 또한 파산서원은 청송·우계의 체취가 깊은 곳이니만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한 것이다. 박세채가 지적한 문제점은 ① 서원의 제향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쌍묘는 이를 둘로 나누므로 부적절하다. ② 국가가 자운서원에 사액할 때는 울곡보고 한 것인데 쌍묘에서는 휴암이 도리어 높

은 자리에 가니 불가 ③ 서원은 도학이 위주인데 나이로 따져 율곡을 아래에 두니 불가 ④ 主祀를 栗牛로 하자는 것이 공론인데 雙廟는 여기에 어긋남 ⑤ 서원을 道學위주로 하지 않는 것은 불가 ⑥ 쌍묘를 합리화하기 위해 끌어온 퇴계의 迎鳳書院記나 宋代의 南康兩祠의 예가 맞지 않는다는 6가지였다. 한마디로 서원이 道學강습을 위한 곳이니만큼 제향인물도 도학을 우선해 율곡·우계 위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을 무시하고 사소한 편리를 위해 수십 년 잘 유지되어 온 파산서원을 옮겨 사람의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 끝에 박세채는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으로서, 자운서원은 옛날 있던 곳으로 다시 이건하고, 파산서원은 움직이지 말 것이며 휴암의 위패는 파산서원으로 옮기되 성수종(성수침의 동생)과 함께 우계의 위패 오른쪽에 봉안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세채의 논리적 반박과 수십 년 존속해 온 파산서원을 헐고 옮겨야 한다는 부담으로 파산 쪽이 거부해 4현합향과 서원통합론은 결국 한바탕의 헛된 논의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뒤 이어 윤선거의 묘비문 문제로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틈이 벌어지고 이것이 懷尼시비로 확대 되어 노론·소론 분립의 당론이 되며 파주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됨에 다시는 더 이상 거론되지 못하였다.

4. 파주사족의 분열 - 老·少論 대결장으로서의 紫·坡院

송시열은 자신이 추진하던 4현합향론과 서원통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천참으로부터 율곡묘하로 자운서원이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그 사전 정지작업을 다음으로 착수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율곡 신도비문을 자운서원 묘정비로 삼아 서원 뜰에 세우는 것과 율곡庶孫을 불러들여 묘소일대와 서원관리를 주재하게 하는 일이었다.

율곡신도비문은 앞서 김장생의 부탁으로 이항복이 찬술하였으나 율곡의 학덕을 잘 드러내지 못했고 異端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하여 그 문인들 사이에 改撰의 말이 일찍부터 있어 왔는데, 이 때 송시열이 다시 지으면서 명칭을 묘정비라고 한 것이다(송자대전 부록 권6 年譜5 현종13년, 66세). 숙종4년 대신벼슬에 있던 김수항 형제(앞서 파주목사로 있으면서 천참으로 자운서원을 이 건했던 김광찬의 子) 및 민정중형제 등의 도움을 받아 (비석의 篆額은 김수항이, 글씨는 그 형인 김수증이 썼다) 비석에 새기고 숙종9년 율곡 묘아래



율곡선생 신도비

있는 옛 자운서원의 묘정에 세웠다. 그 뒤 3년 만인 숙종12년(1686)에 천참으로부터 이곳으로 자운서원이 옮겨 온 것을 보면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묘소와 서원관리를 위해서는 현종14년(1673) 해주에 살고 있던 율곡의 종중손 李厚址와 李厚芳 등을 이주시켰다.

자운서원에 대한 천참이전과 합향통합론의 추진, 그 후의 묘정비 건립과 서원의 묘하 재이건 및 율곡후손의 이주정착 등 수십 년간에 걸친 송시열의 깊은 관여는 자연히 자운서원을 거점으로 하는 파주사림에 대한 송시열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그 문인과 지지 세력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숙종 때 들어가 성혼의 외증손인 윤증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노·소론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파산서원이 윤증을 지지하는 소론적 색채를 지닌 것에 반하여 자운서원은 송시열의 노론을 지지하는 파주사림의 여론을 모으는 거점으로 역할하게 된다.

그런데 윤증과 가까워 소론의 영수로 손꼽히던 박세채가 숙종13년 광탄의 남계에 寓居하게 된다. 원래 장단에 선영이 있어 별서를 두고 왕래하던 그가, 파주에 만년의 거처를 정한 것은 아마도 율곡의 계승자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젊은 나이에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아 온 그는 율곡문집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 편찬함을 통해, 율곡학문의 완전한 이해자임과 함께, 스스로 율곡학맥의 정통이라고 자부해왔다. 그리고 산림으로 징소되어 벼슬자리에 나와서도 송시열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폈다. 훈척을 감싸는 송시열을 비판한 젊은 선비들을 지지하여 그 영수로 지목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특히 숙종 10년을 전후하여 남인에 대한 처리를 놓고 노·소론 간의 대립이 심화되자, 남인에 대한 강경책에 반대하고 그들을 정치에 일정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황극탕평설을 그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송시열의 군자소인론과는 상반되는 정치론이었고 노론측의 반발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는 이 황극탕평설이 율곡의 조제보합론에 근거하였음을 주장하며 자신이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율곡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천명하였다.

박세채가 파주에 자리 잡던 숙종13년은 바로 이러한 시점이었다. 송시열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던 정치상황에서, 송시열이 화양동을 택했던 것과는 달리, 율곡의 묘소와 체취가 가득한 파주의 자운서원 부근에 자리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해 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남계에 서당을 짓고 문도를 양성하며 때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자운서원을 찾아 파주일대의 사람들에게 강학을 베풀었다. 이런 그의 활동은 자운서원에 대한 수십 년간 공력을 들인 송시열의 노력을 상쇄하면서 자운서원으로 하여금 순전히 송시열계의 노론서원만으로 되지는 못하게 하였다.

박세채의 문집인 남계선생집에는 자운서원의 학사와 제반운영사항을 규정한 원규가 있다. 참고로 모두 21개조로 된 이 원규를 요약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운서원원규(숙종19년 제정, 南溪先生續集 권19, 紫院院規)

1. 取士之法 - 신입원유를 선발하는 규정

원유를 새로 받아들일 때는 서원의 원유가 모여 의논하여 결정한다. 모인 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원진사는 심의없이 들어오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유는 서원에 출입하는 유생으로 院籍에 이름이 올라간다. 서원에서 독서·장수함은 물론 서원의 임원이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 원유는 흔히 말하는 원생과는 다르다. 원생은 서원에 소속되어 군역을 면제 받는 대신에 매년 일정한 양의 포나 쌀을 바치는 자를 말한다. 그 신분은 대개 상민이다. 국가에서는 영세한 서원재정을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사액서원 30명, 미사액서원 20명씩 정원을 정하여 허용해 주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군역을 모면하려는 자들이 다투어 투탁하고 서원은 이를 통해 재정을 늘리려 해서 조선후기에 가면 서원이 피역의 소굴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된다. 자운서원의 경우도 원생이 있었을 것이나 이 원규에는 언급이 없다. 이 원유의 신분이 사족임은 물론이다.

2. 조 직 - 서원의 강학과 관리를 위한 인적 조직

(원장 1인) ...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사·장의·색장을 임명한다는 규정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堂長 1인 ... 강학 등 학사관련 책임자인데 서원 임원 중 老成人을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有事 1인 ... 서원의 재정 노비 등 운영을 맡는데 임원 중 연장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掌議 2인 ... 서원에서의 제반논의를 주관하는데 諸生가운데서 원장이 임명한다.

色掌 2인 ... 장의의 보조자인데 연소자 가운데서 원장이 임명한다.

院監 1인 ... 재물의 출납과 유생에 대한 식사제공 등 말단사무의 집행을 맡는데 품관으로서 부지런하고 일을 잘 아는 자로 시킨다.

위의 조직규정은 다른 서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원장이 규정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는 기호지역 특히 서울근교의 유력한 서원의 경우 중앙의 고위관리가 원장을 겸임하므로 규정 속에 넣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원감이란 칭호는 일반서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院貳라 하여 부원장 정도의 지위를 갖는다. 여기서는 서원의 下典들에 대한 감독의 일을 맡고 사족도 아닌 품관 중에서 부지런하고 일을 잘 아는 자(勤幹者)로 삼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3. 講學과 參拜 - 서원에서 머무는 원유의 日課

- 매월 朔望에 제생은 정례적으로 廟祠로 가서 中門을 열고 분향 재배함
- 평일 아침에 廟庭에서 재배하고 동·서재로 돌아와 독서·제술·의리를 강론하며 틈이 나면 밖에 나가 심신을 단련함
- 四孟月(一·四·七·十月)에 장의가 제생을 불러 학규를 읽고 경서를 돌아가며 강론하고 질의한다.
-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서원에 초빙해서 스승의 예로 대우하고 隱屏精舍 學規(울곡이 제정했음)대로 강의를 듣는다.
- 독서는 聖賢의 책(오경·사서·소학·가례·심경·근사록·주자절요·성학집요와 같은 종류)과 성리학에 관한 책(성리대전·程朱 및 我東先儒문집), 史書(강목 속강목) 등으로 국한하며 이단 및 잡서는 금한다.
- 과거공부는 다른 곳에서 하거나 부득이하면 서재 혹은 유사방에서 할 것

이상의 강학 참배에 관한 규정 역시 다른 서원의 예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읽어야 할 성현의 책에 성학집요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띄이는데 울곡서원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중국서원을 보면 대학자가 와서 서원에 머물며 수천명의 수강생을 모아놓고 講會(symposium)를 열어 자신의 학설을 강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朱子가 陸象山을 불러 백운동서원에서 강연케 한 것이라든가, 王陽明의 龍溪서원 강회가 그것이다. 또 鵝湖서원에서 주자와 육상산 간에 朱陸논변이 벌어진 것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강회는 찾아지지 않는다. 兩宋과 이유태 윤선거 등의 호서사림 대표자가 黃山서원 등에서 회동한 적은 있으나 대개 명분과 의리에 관한 논의에 불과했을 뿐 학설논쟁이나 토론을 벌인 적은 없었다. 그 대신 서원에서 강독(lesson)은 기간을 정해 놓고 실시하였다. 위의 강학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서원제정의 부족으로 유생의 居齋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이마저 제대로 시행하는 서원은 많지 않았다. 자운서원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4. 기타 규정 - 유생예절 서원운영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 유생의 서원에서의 일상생활 수칙(居齋예절 食無求飽爲心 등)
-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등의 금지사항
- 학규 어긴 자의 黜座 出院 削籍 등의 규정

이상이 박세채가 규정한 자운서원 원규로서 위에서 언급한 약간의 특성 외에 다른 서원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자운서원 원규가 실제로 적용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 예컨대 考往錄이나 傳興記·都錄과 같은 자료가 아직까지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자료가 발견된다면 자운서원의 運營相은 물론이고 파주유림의 동향과 자운서원을 놓고 벌어진 노론·소론간의 대립의 구체적 실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기사환국 후 파주에 머물던 박세채는 숙종20년 갑술환국으로 앞서 쫓겨났던 민비가 복위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좌의정으로 조정에 복귀하였다. 그는 다시 황극탕평설을 제창하여 임금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송시열 김수항 등의 영수를 잃고 약화된 노론을 지원하며, 남구만으로 대표되는 소론을 견제하고 윤증과도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죽었고 鄭綏夏로 대표되는 파주유생들의 상소와 조정의 허락으로 숙종21년 5월에 자운서원에 합향된다. 그런데 그 합향의 형태가 울곡의 위패와 나란히 하는 並享이었던 점이 훗날 분쟁을 불러오는 불씨가 된다.

이 시점에서 파주사림의 성향을 구분해 본다면 파산서원의 경우 성혼이 소론 윤증의 외증조가 되므로 성혼문인의 후손들과 윤증을 지지하는 소론세가 우세하였고, 자운서원은 송시열의 관여로 인해 노론계 인물인 李畬가 원장으로 있었고 그 지지세력의 일부가 발을 붙이고 있기는 했으나, 박세채의 병향에서 보듯이 그 문인들이 서원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다. 적어도 파주의 경우 노론세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송시열이 수십년 공을 들였고, 성혼이 소론계의 학연으로 분리되어 나간 상태에서 노론학맥의 연원으로 받아들여진 울곡의 자운서원을, 노론계가 박세채문인들 손에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박세채가 병향 된지 13년이 지난 숙종33년에 감히 울곡과 병향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配享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가 노론계 유생 쪽에서 나왔다. 이에 박세채의 문인이던 金翰은 파주서원 원유에게 편지를 보내어 몇몇 유생의 선동으로 박세채의 병향이 흔들릴 수 없음을 말하고, 만약 위치를 옮기게 된다면 차라리 박세채를 제향하는 서원을 그가 강학하던 파주의 남계에 따로 세워 홀로 제향하겠다고 까지 말하였다.

이런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자 노론계는 다시 김장생 追配論을 들고 나왔다. 김장생이 울곡의 嫡傳이니만큼 울곡서원을 대표하는 자운서원에 합향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한다면 제자의 도리로 병향은 할 수 없고 배향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득한 후생인 박세채를 울곡과 병향하는 자리에 두고 김장생은 배향하는 모양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울곡을 주향으로 하고 김장생과 박세채를 좌우에 배향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박세채의 위치를 병향에서 배향으로 내려야한다는 것이 노론의 주장이었다. 말은 그럴 듯하나 김장생 추배론의 목적이 박세채 降配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박세채문인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그에 따라 노론계 유생과 사이에, 앞서 원장을 지냈던 이여가 이로 인해 서원이 유생의 싸움터가 되었다.(學宮爲鬪鬪之場)고 할 정도로까지 갈등이 심하여져, 서로 院籍에 누른 종이를 붙여 이름을 가리는 벌인 付黃을 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자운서원문제로 파주사림이 노론 소론을 각기 지지하는 쪽으로 분열해 큰 분쟁으로까지 나간 것이다.

이에 파주유학 曹翊周 등 수십명의 유생이 숙종39년 4월 연명상소해서 김장생 추배와 박세채 강배를 요청하고 조정에서 이를 허락함으로써(승정원일기 숙종39년 4월 20일) 사태가 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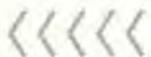
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한달 후 이번에는 박세채 지지세력인 역시 파주유학 文後昌 등 수십 명이 노론계가 박세채를 끌어 내리기 위해 자운서원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김장생을 끌어 온 그간의 경위를 밝히고 박세채를 강배하라고 한 처분의 재고를 청하면서, 그것이 불가하다면 앞서 김간이 주장했던 대로 남계에다가 박세채 제향서원의 건립을 허용해 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조정은 소론 우위에서 노론의 일당전제로 정국이 변환되던 시점이어서 조정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박세채 문인들이 갈라져서 그동안 노론의 강배론에 맞서 오던 김간 등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노론쪽으로 전향하면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데에도 원인이 있었다. 그리하여 파주지역은 영조 이후 노론계 사림의 본거로서 자운서원과, 소론계의 근거지로서 파산서원이 공존하는 형세를 보였다.

그런 공존상태에서 또 하나의 충돌이 정조14년의 파산서원 成守琮 追配事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성수종은 선조때 파산서원을 세울 때부터 입향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는데 영조 16년 추배하도록 조정의 허락까지 받았지만 이듬해의 서원금령에 걸려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정조9년 파주유학 趙重吉 鄭在簡 등 58명의 연명상소에 의해 추향이 허락되었는데 位次를 휴암 윗자리에 설치했다가 휴암 쪽의 반발로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휴암 쪽은 구차스러이 우계집안 서원에 있느니 차라리 독립하겠다고 하여 월룡산의 옛날 휴암서원을 세우려 했던 자리에 서원을 건립하도록 해 달라고 조정에 요구하였다. 이에 임금의 금령을 앞세워 新建을 허용치 않고 신건론을 주장한 수창유생을 죄 주도록 하며 위차는 옛날처럼 청송·휴암을 마주하게 하고 성수종의 위패는 청송아래 두게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자운과 파산서원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은 이로써 종식되었다.

이외에도 파주에는 풍계사우(박태보 오두인 이세화 제향), 新谷서원(윤선거 제향) 등의 서원이 있으나 파주 사족사회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기에 생략한다.

끝으로 사족세력의 쇠퇴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던 19세기에 파주지역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례를 제시하겠다. 1923년에 나온 坡州郡誌에는 1803년(순조3년) 형조판서로 있던 黃昇源이 지은 ‘坡州鄉射堂重修記’가 실려 있다. 여기 보면 옛날에 율곡향약을 시행하면서 鄉大夫以下 題名帖 곧 鄉案을 작성해 향사당에 보관해 왔는데 200여년이 지나는 동안 퇴락하여 무너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마련이 여의치 않아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파주 紫谷里에 사는 史應攝·史處興 등이 집안의 족인들에게 한집마다 몇냥씩 돈을 내게 해서 수백냥을 모아 기부함으로써 향사당을 중건하고 제명첩을 다시 봉안하게 되었다. 이에 파주목사인 趙義鎮은 향중의 어른들과 의논해서 史氏집안이 부담해온 烟戶役을 면제하고, 향교·서원에 저야하였던 所任(앞서 박세채의 자운서원 원규에 나오는 품관이 한다는 院監 등의 임무)을 삭제하여 영구히 이런 부과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完文을 작성해 주었다고 한다.

위의 사례가 주목되는 것은 연호역과 향교·서원의 소임을 맡아오던 집안의 임무를 없애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향역을 지는 집안이라면 사족은 아님이 분명하다. 월룡면 葦田里에 세워진 史氏壇의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가 망할 즈음에 史繇라는 명의 遺民이 난을 피해 이곳으



로 들어 왔다고 한다. 따라서 그 후손인 사씨 집안이 파주의 사족집단에 들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연호역을 지면서도 상민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가 하는 鄉任과 흡사한 향교 서원의 임무를 맡지 않았나 한다. 그런데 향사당 수리에 드는 수백냥의 돈을 희사한 대가로 그런 의무에서 영구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 집안이 이제 사족집단의 일원으로 파주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 시기에 돈 내고 향안에 이름 올리는 賣鄉이 성행했고, 그것이 양반사족의 수를 늘려 양반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런 일반적 추세로 볼 때 위의 사씨 집안의 예는 파주의 사족사회에도 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신분의 변동이 개인보다도 하나의 문중단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효의 정신과 생명론을 세계적 브랜드로

심 성 구(파주문화원 부원장)



1. 서 론

오늘날의 사회의 현실과 국가적 혼란한 시국을 타개할 특별한 처방(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으니, 그 묘책은 있는 것인가? 오직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자기의 직분과 도리를 충실하게 다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만이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오륜五倫의 숭상인 것이다. 그 이유인 까닭은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구성이 오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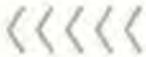
현대 산업사회의 각종 병폐의 해결책을 동양의 유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서양학자들의 근래의 말을 원용援用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유교사상은 공맹孔孟을 중심으로한 인륜사상이다. “얹”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더욱 문제 삼는 까닭에, 생태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윤리도덕의 사회를 건설하여 평화를 이룩하자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오늘날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상실된 인륜을 회복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효란 인간이 세상에 나오면서 부모와 자식사이에 이루어지는 원초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사교(사랑)인 것이다. 인간생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효라고 할 때에 효는 생명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부모자식 사이는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순수한 사랑(Agape)인 것이다.



효는 변치 않는 규범이요 생명을 근거로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인 것이다. 부모와 자식사이에서 출발하는 효는 인간존중의 생각과 생명존중의 바탕으로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표현으로 만남 속에서의 나타나는 도덕규범이다.

효로 부모를 봉양함은 물론 조상숭배와 자손을 통한 생명과 효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수직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가정환경, 이웃사회, 국가로 종교적 면에까지 확대되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효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생명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효는 천성天性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나의 몸과 생명을 있게 해준 부모 조상에게 효도함은 당연한 것이다.

2장에서는 효에 대해 논했으며, 3장에서는 육체의 보전(살핌)을 논하였는데, 효도의 시작임을 이해하고 살펴봄으로서 효행을 지속할 수 있음을 명시明示했다. 효도의 표본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세종대왕의 삼강을 소개하였다. 지면관계로 간략하게 하였으니 이해를 돕고자 한다. 5장에서는 대내적인 효와 대외적인 효를 논하고 있다. 6장에서는 논자가 바라는 견해로서 마무리 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의 효의식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본론

1980년 초 한국을 방문한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의 홍익인간정신과 효사상을 예찬한 바도 있다. 효는 가정윤리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나와 이웃, 인간과 자연환경과 개인과 국가가 하모니(조화)를 이루는 인륜질서의 근본임을 깨우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양정신에서 헤겔의 말처럼 세계정신의 행패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나폴레옹은 갔지만 예수님은 일하고 있다” “싸우는 사람은 가면 그만이지만 성인들처럼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영영 살 것이므로 잘못된 정신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선 안된다”고 하고 있다. 공자孔子의 인仁사상을 비롯한 동양의 고전에서도 그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 ① 가족관계 4가지 : 가족관계에서 꼭 필요必要的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환경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옛날부터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고 한다.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4가지의 오해와 진실 즉

- ㉠ 가족관계는 단순한 평면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
- ㉡ 가족은 반드시 노력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고부간의 갈등도 이 내용을 유지하면 해소된다.
- ㉢ 가족간에 상호 배려와 감정의 역제가 필요하다는 점,

㉔ 가족간에 합리적 기대치가 필요하다는 점,

가족관계에 꼭 필요한 4가지를 가족 모두가 실천해야 “가정은 비로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양의 생활에서 도덕적인 질의 생활로, 차원 높은 자유를 성취하고, 남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상호간의 동질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분위기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② 불교에서 부모에 대한 은혜

1. 불교에서는 임신하여 해산할 때 까지 지켜주시고 수고하신 은혜.
2.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놓으신 은혜.
3. 젖을 먹여 주신 은혜.
4. 쓴 것은 삼키고 맛있는 음식만 먹여주신 은혜.
5. 항상 자식을 마른자리에 누우고 젖은 자리에 누우신 은혜.
6. 깨끗하게 보살피고 씻어주신 은혜.
7. 자식이 바깥에 있을 때 걱정하시던 은혜.
8. 자식을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9. 끝까지 살아가신 은혜.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자식으로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③ 효와 천륜관계: 부모와 자식은 몸은 다르지만 같은 핏줄과 같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생명과 삶의 본체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영원히 하나이다. 이것은 절대자인 하늘에 의해서 주어진 인간관계 다시 말해 절대적인 천륜天倫인 관계인 것이다. 서양정신에 많은 영향을 준 성경에서는 가정윤리의 효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십계명 5번째 항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비롯해 창세기 출애굽기 에베소서, 잠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양정신의 개혁은 성경 속에서 효를 살리는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창세기에는 효도장 내용은 효도를 하라는 말로 이해하여야 한다.

④ 「효경」 「기효행장」: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문을 논자의 번역으로 한다.) 효자가 父母를 섬김에 평소 슬하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공경을 지극히 하고 봉양함에 있어서는 父母의 즐거움을 지극히 하고 병이 나셨을 때에는 자기의 근심을 지극히 하고 상사시에는 자신의 슬픔을 지극히 하고 제사 지낼 때에는 그 엄숙함을 지극히 할 것이니 이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연후에야 父母를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식 된 자가 진실로 父母를 사랑하고 부모 섬기는 효를 잠시도 잊지 않고 공경을 지극히 하고 나면 봉양할 때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병으로 계실 때에는 근심하고 장사지낼 때는 슬퍼하고 제사지낼 때는 검소하고 엄숙히 슬퍼해야 할 것이다. 「논어 팔일」의 내용이다. 다시 말

해서 생존과 사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효도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는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공경으로 섬기는 천륜적인 행위로 인간윤리의 첫째가는 규범인 것이다.

- ⑤ 「맹자」 「이루장구상」 : 내용을 소개한다 (순임금의 대효) 천하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면서 장차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였는데 천하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옴을 보기를 초개(草芥: 값없는 것)와 같이 생각한 것은 오직 순임금이 그러하였다. 부모에게 기쁨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 없고 부모를 순하게 하지 못하면 자식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순임금이 부모섬기는 도리를 다함에 고수(순임금의 아버지)가 기쁨을 이루었으며, 고수가 기쁨을 이름에 천하에 부자간이 된 자들이 안정되었으니 이것을 일러 순임금의 대효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매우 악한 아버지 고수를 기쁨에 이르게 하고 모든 천하의 자식 된 자들이 효도하게 함으로써 천하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것도 순임금의 부모에 대한 순임금의 지극한 효도였던 것이다.
- ⑥ 「효경대의」 전2장: 을 소개한다. 백성을 친애하게 하는 데는 효도보다 좋은 것이 없고, 백성을 순하게 하는 데는 공경보다 좋은 것이 없다. 풍속을 고쳐 세상을 좋게 하는 데는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고, 위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예법보다 좋은 것이 없다. 예란 공경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 아들이 기뻐하고, 그 형을 공경하면 그 아우가 기뻐하며 그 임금을 공경하면 그 신하가 기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효도가 제일인 것이다.
- ⑦ 「효경대의」 제1장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덕(德)의 근본인 “인(仁)은 사랑하는 것이 주장이고 사랑이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효도가 “덕”의 지극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인”을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간의 덕목 즉 맹자의 오류는 이 다섯 가지를 비록 모두 도라고 하지만 부모가 친히 낳아 품안에서 기르는 일이 사람관계의 첫째이다.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즉 효도하는 것만이 유독 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옛 성인(先王)은 이 다섯 가지 상도를 인륜의 규범으로 삼았다. 이 다섯가지 상도 중에서도 효를 덕의 근본으로 삼아서 부자유친 즉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친애의 도를 제일 근본되는 도로 보았다. 이것을 군신관계에 옮겨서 군신유(君臣有)라는 도덕관을 정립하고 다시 가정으로 옮겨서 부부유(夫婦有) 즉 부부사이에는 할 일이 구별이 있으므로 서로 지키면서 서로 화락함을 준수한다. 이것을 사회생활에 옮겨서 장유유(長幼有) 즉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지켜야 할 순서가 있으므로 질서(秩序)의식을 지키며 친구사이에는 봉우유(朋友有) 즉 친구간에는 서로 진실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덕목으로 실천하게 하였다.

- ⑧ 천하를 다스리는 비결: 로서 효도는 부모를 사랑하며 본보기를 보이면 아랫사람들은 자연히 이에 따르게 되며 이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비결이다. 지도자는 자신이 효孝.제禮의도를 실천하여 백성에게 본보기를 보이며 예로서 백성에게 경敬을 가르치고 악樂에 의해 백성에게 화和를 가르쳐 종적으로 횡적으로 사람관계를 조화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이 효.제.예, 악의 네가지 근본은 결국은 하나의 효로 이어지는 것이다. 「효경」 「광효도장」에서는 효도가 제일 요도要道인 것으로 주장한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면 자연히 다른 어른들에게 공경하게 된다. 또한 효와 공경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화순和順한 것이니 화和는 곧 낙樂이요 순順은 곧 예禮이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는 한 가지 근본이고 그 근원은 결국 효도인 것이다. 「효경」 「광요도장」에서는 공경은 곧 효임을 말하고 있다. 공경은 예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사람이 질서를 지키고 화락和樂하려면 언제나 이 공경함에 근본 하여야 되는 것이다.

3. 효행의 시간공간관계, 인간관계와 생명론의 시작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남은 부모와 자식사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할아버지, 위의 조상까지 올라가며 더 올라가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하늘天에 까지 미치며, 그리고 미래로는 아들, 손자, 후손에게로 끝없이 이어져 가는 생명의 연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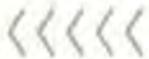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부자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여겨 왔다. 그런데 부자 사이의 훌륭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자식이 부모를 정성스럽게 봉양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효를 강조하게 된다.

「예기」 「제의」 말을 소개해 본다.

증자는 “나의 몸은 부모가 남긴 유체라고 하였다. 부모가 남긴 유체란 나의 육체와 생명을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것은 계속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면면히 자손에게로 물려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자 사이에는 천륜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유체(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는 부모의 부분이기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내 몸인 것이다. 효의 의식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천성적인 것이다. 어떤 외부적인 압력으로 강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행위인 것이다. 효의식은 인간이 생명체로써 부모로부터 생명체가 떨어져 이 세상에 나오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생명의 유무는 인간존재의 확인에 있고 행의 근



본은 효행에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행을 통해 사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므로 효행은 종적으로 영속적이며 영원한 시간 속에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사람도 종족보존이라는 생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손에 의해서 영구히 보존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것이 있다.

즉 육체적인 혈육의 보전과 함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 할 사람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 ★ 육체의 보전은 효도의 시작과 끝; 공자는 「효경」에서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서 종족의 보전을 하는 것을 효의 처음이라 하고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는 것 즉 모든 도리를 터득하는 것은 효의 끝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육체(종족)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킴이 없이 잘 보전한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도(진리)를 터득하여 가문의 명예를 후세에 널리 빛나게 알린다는 점이다.

① 율곡 선생의 말씀

이이 율곡선생;(1536-1584),(중종 31-선조17),성리학자, 아명(어릴 때 이름)은 현룡(見龍) 자는 숙헌, 호는 율곡이다. 강릉출생, 아버지는 이원수, 어머니는 신사임당이시고, 9번이나 장원급제한 9도장원공이며 인심도심 상위종 시설을 선조임금에게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육체의 보전에 대하여 이이 율곡선생의 말씀을 소개한다. “천하의 모든 물건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만일에 남에게서 재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재물의 많고 적은 것이나 그 재물의 소중하고 하잘 것 없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에게 이 몸을 주셨으니 천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다고 하여도 이 몸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막중한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감히 내가 나대로 몸을 가졌다고 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으리오. 모든 사람들이 능히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저절로 부모에게 향하는 정성이 있게 될 것이다” 고 하였다. 강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몸이다. 이 소중한 몸을 준 사람이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소중한 자기 몸을 준 사람이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하여는 자기 부모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효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에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의 부모의 심정이 또한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자기 몸을 잘 지키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 된다고 하였다. 율곡선생의 학문

은 진리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정신과, 이론과 실체를 매개하려는 실학정신이 특징이라 하겠다.

② 부자간의 맨처음의 관계

모든 사람관계는 부자 형제 부부 붕우 사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맺는 사람관계는 부자간이며, 맨 처음의 관계인 것이다. 천륜에서 우러나오는 부자자효 라는 사랑과 효도의 정신이 형제 부부 붕우 사제에게로 옮겨질 때에 원만한 사람관계는 이루어지고 원망과 갈등(쟁탈)의 사람관계는 없어지는 것이다. 효제(孝悌,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동기에 대한 우애)는 사회의 어떠한 계층의 사람이건 현재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규범인 것이다. 이와 같이 효제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간의 사람관계로 종적이며 시간적인 연속성으로 생명이 이어지는 가정적인 윤리규범과 친구 그리고 타인과의 상하 전후좌우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윤리규범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효는 시공간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에 뿌리를 잡고 있다.

③ 신체발부(髮膚, 머리카락과 피부) 보전은 자식 된 도리;

「효경」에 보면, 「신체발부」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자식 된 자의 의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잘 지탱하고 훼손시키지 말고 지켜 나아가는 것이 자식 된 도리가 되는 것이다.

④ 「시경」 「소아」편의 육아장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주신 은혜를 알아본다.

“크고도 진귀한 좋은 채소인 줄 알고 길렀더니
채소가 아니라 쓸모없는 천한 잡초로구나.....
슬프고 슬프웁니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 주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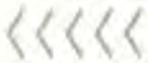
어머니께서 나를 길러 주셨네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길러 주셨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키워 주셨으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시 돌보셨으며

출입을 하실 때에 나를 품속에 품어 주셨으니



그 은덕을 갚고자 할진댄
높고 넓은 하늘과 같아서 더함이 없도다.

이 시는 시경 육아장의 시詩 일부 내용이다.

이 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삼천년 전 주나라 때에 불려 졌던 노래로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준 시이기도 하다. 사람마다 자기의 자식은 효도를 할 줄 알고 애지중지 사랑하여 기르는데 자란 뒤에 보면 부모님께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불효자식이 되는 것을 비유하여 “크고 진귀한 좋은 채소인줄 알고 길렀더니 채소가 아니라 쓸모없는 천한 썩이로구나” 라고 노래한 시다.

육체의 보전은 효도 : 자식으로서 조상의 혈통을 손상시킴이 없이 온전하게 잘 보전함이 효의 시작이라고 할 때 혈통의 단절, 다시 말하여 후손이 없는 것은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것이다.

⑤ 불효자의 세 가지 (불효, 패덕, 패례)

맹자가 말하는 불효의 세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로 부모의 뜻에 아첨하고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일

둘째 집이 가난하고 부모가 늙었는데도 직업을 갖지 못함이다.

셋째 장가들지 않아 자식이 없어서 선조의 제사를 끝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후손이 없는 것이 불효의 가장 큰 것으로 보았다.

「맹자」 「이루장구상」의 내용 ▼

부모에게서 받은 유체인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은 부모의 몸을 없애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녀가 부모를 계승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계승함을 뜻하는 것으로 볼 때 후손이 없어진다는 것은 모든 생명적 관계가 단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 감에 효도의 시작은 몸이 건강하여야 비로서 덕을 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몸이 건강하여야 효도를 할 수 있다. 몸이 건강하여야 정신이 건전하게 된다. 따라서 효도를 함으로써 몸과 정신이 다 같이 바르게 됨을 알 수 있다.

⑥ 효도는 윤리 규범

효도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근본을 말한다. 효도는 사람이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한 잠시도 몸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사람 누구에게나 지극히 당위적인 윤리규범인 것이다. 「논어」 「학이편」에서 “제자가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집을 나가서는 공경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밖에 나가서 공경한다는 것은 남의 부모를

공경함이며,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에게 공경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효는 가정 내에서의 덕목이고 제는 가정 밖의 사회에서의 덕목인양 비추어졌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효도 공경함이 없으면 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⑦ 「논어」 학이편 2장 유자(有子)는 “효와 제라는 것은 그 인仁을 행하는 근본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효와 제는 모든 사람관계의 근본임을 알 수 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라 하고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제(悌)라고 한다. 번역;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할 자가 적으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기니 효성과 우애는 인仁을 행하는 근본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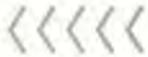
강설; 천하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은 효도와 공손이다. 그 사람됨이 아버지를 섬김에 효도하고 형을 섬김에 공손하면 그 마음이 온전히 화순하여 윗사람을 범함이 적다. 그러므로 효성스럽고 공경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불순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지러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효도와 공손은 인도仁道를 행하는 근본이라 하는 것이다. 효도하고 공손하면 마음속이 모두 화순함으로 가득하여 백성을 어질게 하고 만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니, 배우는 사람이 여기에 힘쓰며 인도仁道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 참고 : 채무송 : 효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효사상과 미래사회」 한국정신 문화연구소 1995. P176 참고

- ⑧ 「효경」에 나오는 효의식을 살펴보면, 첫째 보신하는 효도, 둘째 공경하는 효도, 셋째 간언하는 효도, 넷째 양친(양가 시부모)에게 하는 효도, 다섯째 봉사하는 효도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부모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여 어떤 귀중한 것보다도 더 소중히 보신하면서 공경과 사랑으로써 부모를 섬기고, 나아가서 입신하여 후세에 부모를 드러나게 하고 부모의 사후에는 생존시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섬기고 추모의 정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강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효도는 가정안에서 자식으로 태어난 내가 부모 형제와 하나가 되어 조상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서 후손들에게 그 뜻을 계승 발전시키게 하는 것이다. 가정윤리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행이 나라에 나아가서는 충(忠)으로 되어 국가윤리화하고 연장자와 연하자 그리고 벗 사이에 나아가면 서(序)와 신(信)으로 나타나 사회윤리화가 되는 것이다.

- ⑨ 얼굴빛은 잘못가져서 고부간의 갈등은 유색이온지柔色以溫之 화순한(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면 화를 낼 수 없다는 내용, 언제나 유색이온지의 얼굴빛을 내면 누구와도 갈등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어려서부터 노인에게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⑩ 이이 이율곡의 효심

우리나라의 실학과 학자로 유명한 이이 율곡선생은 효자로 이름 높아 널리 알려진 분이 다. 신사임당이 그의 아들 율곡이 겨우 16세 때에 세상을 떠나니, 율곡의 허탈감은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아 3년 시묘를 사는 동안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한때 불교에 귀의하여 세속을 떠나기까지 하였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는 7남매의 자녀를 두고서 새로 후처를 맞아들이었다. 이때의 7남매의 자녀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더구나 새로 들어온 계모의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포악하여 7남매에게 까다로운 대우를 하였음에도 율곡은 친어머니나 다름없이 계모를 모시었다고 한다.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오로지 학문 연구에 정진하여 마침내 재상의 지위에 오른 후에도 교만함이 없이 촌부와 같이 극진히 계모를 모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율곡은 불행히도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계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계모에게 크나 큰 감명과 회개를 주어 남은 자녀들에게 어진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는 전설은 가장 모시기 어려운 계모에게 효자로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도 남는 일이다.

4. 세종대왕의 삼강행실

삼강이란,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관계를 정해놓은 유교의 전통적 질서의식으로 동양윤리로서 지켜졌던 것이다. 한나라 시대의 동중서는 춘추에서 “하늘은 임금이 되어 덮어두고 땅은 신하가 되어 실어주며, 양陽은 남편이 되어 낳고, 음陰은 아내가 되어 도와주며, 봄은 아버지가 되어 낳고 여름은 어머니가 되어 기르니 왕도의 삼강은 하늘에서 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그 시대 정치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왕도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륜사상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만 간략한 설명으로 대신한다.

효자 이야기는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수록되어 후세에 많은 영향을 준 효도의 사례이다.

① 맹종의 효도

맹종은 성품이 지극한 효자이었다. “어머니의 나이가 늙고 병이 위독한데 때는 겨울철인데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였다. 겨울철에 땅은 꽁꽁 얼었고 죽순은 없을 때인데 맹종은 대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고 있었다. 얼마 후에 맹종이 눈물을 흘린 아래에서 죽순竹筍이 솟아 나왔다. 맹종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국을 끓여 어머니에게 드리니 먹고 난 후에 병이 나아졌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동되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삼강행

실도는 후세에 많은 영향을 준 효도의 사례들이다. 세종대왕은 온 국민에게 가전충효(家傳忠孝; 충효사상을 널리 전하도록 하라)는 네 글자를 각 가정마다 써 붙이고 교육의 이념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였었다.

☆ 현대의 효의 시

② 아빠의 소망 - 한상경-

아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많이 사랑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의미 있는 것의 가치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항상 백점을 받으려고 인간힘을 쓰기보다는
 한두 문제 틀리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산을 오를 때는 제일 앞서가기 보다는
 뒤에 처진 이와 동행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빙그레 웃으며 침묵하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뇌성을 발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남의 과오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냉혹한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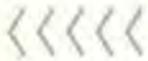
거짓을 말하는 자의 어리석음은 묵묵히 용서하지만
 한 번의 약속은 무섭게 지키며 정직을 생명처럼 간직한 사람이.

아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훗날 서로 헤어져 세월이 흐른 뒤에도
 눈물 나도록 보고 싶은 그리움을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 현대의 효의 시

③ 어머니의 눈물 - 박목월-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지진 못하고
노려 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 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불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④ 정철의 효시

아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⑤ 낭원 이간의 효시

아버이 날 낳으셔 어질고자 길러내니
이 두 분 아니시면 내 몸나서 어쩔쏘나
아마도 지극한 은덕을 못내 갚아 하노라

⑥ 민손의 효도

“민손은 공자의 제자,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서 두 아들을 낳았다. 계모는 민손을 미워하여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는 솜옷을 입히고 민손에게는 갈대꽃 솜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 아버지가 저울에 민손으로 하여금 마차를 몰게 하였다. 너무 추워서 민손은 말고삐를 놓치게 되었다. 아버지가 살펴보고 그 사실을 알고는 후처를 내쫓으려 하니 민손이 아버지에게 아뢰기를 어머니가 계시면 한 자식만 추위에 떨지만

어머니가 나가시면 세 자식이 추위에 떨게 됩니다”라고 하니 아버지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서 중지하였고, 계모도 또한 느끼어 뉘우치고 드디어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다” 고 하였다.



모든 만물은 하늘이 낳고 이것을 땅은 기른다. 사람도 하늘과 땅의 성품을 받아 태어나지만 우주만물 중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성품으로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또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말한다면 효도가 제일 크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과 땅에서 받은 성품은 인.의.예.지.신 다섯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인(仁) 하나만을 말하면 인이란 인심의 온전한 덕이 되며 나머지 의(義).예(禮).지(智).신(信)은 모두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인(仁)이란 마치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아서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제일이고 백성들에게 어진 마음을 베푸는 것이 둘째요, 그 다음으로는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를 친애하는 효도는 사람의 행실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모든 생명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이 효의 원리이며 사람의 효의 정신을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에까지 확대해석한다. (월리만드베리 「유교적효사상에 대한 소고」 「효사상과 미래사회」 P.51 참조)

강설; 하늘(乾)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坤)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나는 여기서 아득하게 작지만 섞여져서 그 가운데 있다. 하늘과 땅의 가득한 것은 나의 몸이고 하늘과 땅을 이끌고 가는 것은 나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모두 한 뱃속의 형제와 같고 모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는(이기)것이다. 천자는 우리 부모의 맏아들이요 그의 신하는 맏아들과 같은 것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실 때에는 자기 어른을 모시는 것같이 모시고, 약하고 외로운 사람을 돌볼 때에는 자기 어린애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성인(천지)와 덕을 같이 하는 사람이며 현자(군자)는 뛰어난 사람이다.

⑦ 서명「西銘」, 장횡거(張橫渠; 북송宋나라 성리학자, 장재張載 1020-1077, 유교의 기본원리인 인애仁愛의 내용을 설명한 논문이다) 의 효도의 의미 묘색(생명론의 기초)내용을 소개한다. 장횡거는 효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건전성과 그 연속성을 유지한다. 부모의 생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 형제의 생명, 나아가 인류 그리고 만물의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봉양 친애하는 것은 부모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천하의 꼽추, 병신, 형제 없는 사람, 자손이 없는 사람, 홀아비, 과부 등은 모두 나의 한 뼋속의 형제와 같고 모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사상은 인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채무송의「효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효사상과 미래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176앞의 책 P.177)

⑧ 환경의 행위와 효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고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데에도 그 시기를 맞추지 아니하면 효가 아니다” 「예기」 「제의」 「禮記」 「祭義」에 있는 말이다. 공자는 말하기를 일찍이 만물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환경의 행위에서도 효의 행위로 본 것이다. 또한 「맹자」도 “지키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큼이 되는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 하였다. 「맹자」 「이루장구상」에 있는 말이다.

5. 대내적인 효(안의로의 효)와 대외적인 효(밖으로의 효)

효의 행위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면서 부모와 자식사이에 대한 순수한 사랑(Agape)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를 존중의 바탕으로 하는 가치 있는 도덕규범인 것이다.

효로 부모를 공양함으로 조상숭배와 자손을 통한 생명의 영원성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 생활화 하려면 대내적(가정에서의 직접적)효나 대외적인 효(간접적 효, 바깥에서의 효)는 자연적으로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효로 천성天性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대내적인 효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모님이 잘 주무셨는지 문안으로 얼굴빛을 살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건강이 나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는 출필곡<出必告; 告는 곡으로 읽음, 사자소학 참고>으로 부모님 얼굴빛을 살펴보고 다녀올 것을 말씀드린다. 이것은 직접적 효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깥에 일을 보고 돌아와서는 반필면返必面으로 부모님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바깥에 일을 잘보고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동안에 부모는 자식의 일이 궁금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외적인 효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부모님의 안색이 좋지 않을 시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에 관한 것을 알아보고 약재를 구해서 치료봉양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6. 결 론

효행의 시간과 시작을 탐색해 보면서 「효경」속에 보이는 효 의식을 생명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효경에 나타나는 효의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사람관계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생명실천관계를 탐색해 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세종대왕의 교육이념과 효행들에 대하여 논하면서 사람의 삶이란 인생이며 윤리적 의미에서의 의식행위도 알아보았다. 따라서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생명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윤리적 행위임을 알아본 것이다. 그러한 윤리행위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내적인 효와 대외적인 효를 알아보았다.

효에 대한 시조를 3000년 전부터 근래에 전해지는 노래와 시를 살펴보았다.

제6장은 결론으로 논자의 견해로 마무리 하였다.

시壽는 시. 공간을 초월한다. 효는 윤리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본성의 생명을 근거로 함으로써 철학적인 면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효도의 근원은 하늘(양)과 땅(음)에 두고 있으며 천. 지. 인이 있는 한 불변의 규범인 것이다. 효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의 생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 형제의 생명, 나아가 인류 그리고 만물의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즉 효는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효는 생명의 영속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생존시와 사후의 조상숭배 사상으로 이어지는 사후의 효도도 똑같은 것이다. 또 선조, 부모, 나, 자식, 후손으로 이어지는 생명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이래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철학자 신학자 교육학자들의 비판의 초점도 모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윤리적 상황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전체를 비추어 줄 도덕적 등불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효는 윤리 규범적 차원뿐만 아니라 생명철학적인 면과 종교적인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 살아가야 한다. 정신적 가치는 도덕적 삶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기에 유한한 물질적 가치보다는 무한한 정신적 가치를 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효의 정신은 무한한 가치 있는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효 정신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어나가야 한다.



조선판 러브스토리

최경창과 홍랑, 그 불멸의 사랑이야기

이 윤 희 (파주지역문화연구소장)



〈파주시 교하읍 다울리에 위치한 고죽 최경창과 홍랑의 묘〉

· 파주시 교하읍 다울리. 옛 청석골 마을.

마을 뒷산 양지바른 곳에는 조선중기 종성부사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고죽 최경창과 그의 부인 선산임씨와의 합장묘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합장묘 바로 아래에 조선시대 함경도 홍원 출신의 기생이었던 홍랑의 무덤이 있다. 홍랑은 기생의 신분이지만 우리들에게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녀를 지칭한 ‘홍랑洪娘’은 이름이라기보단 ‘홍씨 성을 가진 아가씨’ 즉, 오늘날로 치면 ‘미쓰홍’이다.

홍랑 무덤앞 묘비에는 ‘詩人 洪娘之墓’라고 적었는데 시인의 무덤답게 문체가 멋스런 흘림체다.

본래 이곳의 무덤들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다락고개에 있었는데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주변 토지가 모두 징발되는 바람에 1969년 6월 12일 지금의 장소로 이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 사대부 묘 아래에 기생의 무덤이 있게 된 것일까? 그리고, 기생 홍랑은 해주최씨 집안과 어떠한 연緣이 있길래 이곳에 무덤을 쓰게 되었을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시인 고죽 최경창과 천한 신분의 기생이었던 홍랑.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조선판 최고의 러브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와 기생의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지하다. 황진이와 서경덕, 매창과 허균의 러브 스토리는 대표적인 사대부와 기생의 사랑 이야기이다. 그러나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어느 해 가을 홍랑의 무덤을 찾았을때 이름모를 들꽃이 홍랑의 무덤에서 최경창 무덤까지 길지어 핀 것을 보았다. 그것이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의 꽃길처럼 보였다.

살아서 못다한 사랑을 죽어서까지 애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던 한 천재 시인과 그를 사랑한 기생의 가슴 저린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 운명같이 시작된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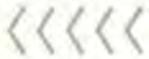
빛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래
 자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곧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 홍랑 -



고등학교 국어책에 실려 있는 홍랑의 한글 시조다.

수능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한 켠에 남아있는 시이기도 하다.

우리말의 순수성을 잘 표현해 문학적으로도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이 시는 구절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함경도 홍원 기생 홍랑이 지은 이 시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해주최씨 최경창 집안에는 최경창과 기생 홍랑의 첫 만남이 전해져 내려온다. 때는 157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조 재위 6년의 일이다. 당시 최경창은 북도평사가 되어 함경도 경성으로 부임하고 있었다. 북도평사는 함경도 병마사兵馬使의 보좌관 자리였다. 부임 도중 홍원 군수가 최경창의 벼슬길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난다. 한 기생의 창이 끝나고 홍원군수가 다음으로 홍랑을 지목했는데, 지목을 받은 홍랑이 “저는 노래보다 시를 더 좋아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경창은 “누구의 시를 좋아하느냐?”라고 묻자 홍랑은 “고죽 선생님의 시를 좋아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놀란 최경창은 “그래! 내가 바로 고죽 이니라.”하였다. 홍랑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고죽인줄 전혀 모르고 한 말이었다. 최경창과 홍랑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잔치가 끝나고 최경창은 부임지인 경성으로 가면서 홍랑을 데려 갔는데 아마 두 사람은 첫 눈에 서로 반해 사랑의 감정이 싹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은 남학명(南鶴鳴, 1654~?)의 문집인 <회은집晦隱集>에 잘 기록되어 있다.

『계유년(1573년) 가을에 내가 북도평사로 부임해 갔을 때
홍랑이 따라와 부임지에 있었다.』

(萬歷癸酉秋 余以北道評事赴幕 洪娘隨在幕中)

- <회은집>

당시 서른 다섯살의 최경창과 그 보다 훨씬 어렸던 홍랑의 만남. 이 두 사람은 최경창의 근무지인 경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랑의 길은 평탄하지 않은 법. 둘의 첫 만남은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이별이 찾아 온 것이다.

최경창이 임기가 다 되어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홍랑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당시 관기란 노비와 다를 바 없는 신분이었기에 본처가 있는 고죽을 따라 갈 수도 없었다.

홍랑은 조금이라도 더 그와 함께 있기를 위하여 서울로 가는 최경창을 배웅하며 경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쌍성雙城까지 태산준령을 넘고 넘어 며칠을 마다 앓고 함께 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윽고 함관령咸關嶺고개에 이르렀고, 더 이상 지역 경계를 넘을 수 없었던 홍랑은 사무치는 정을 뒤로 하고 돌아 설 수 밖에 없었다.

『다음 해 봄, 내가 서울로 돌아갈 때 홍랑이 쌍성까지 따라왔다가
거기서 헤어져 돌아갔다.』

(翌年春 余歸京師 洪娘追及雙城而別還)

- <회은집>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던 홍량의 눈에 산버들이 보였다. 홍량은 버들가지 하나를 꺾어 시조 한 수를 적은 서찰과 함께 고죽에게 보낸다.

한편, 홍량과 헤어진 최경창은 함관령 아래 한 주막에 들었다. 여기서 그는 서찰 한 장을 받는다. 그것은 한글로 지은 홍량의 시조 한 수였다. 최경창과 헤어져 돌아가던 홍량이 지어 보낸 것이었다. 이 시가 바로 그 유명한 홍량의 시 '뫓버들가' 이다.

『함관령에 이르렀을때 비가 내리고 날은 저물어 어두웠는데
노래 한 수를 나에게 보냈다.』

(到咸關嶺 值日昏雨暗 仍作歌一章以寄余)

- <회은집>

연인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홍량의 연정시戀情詩인 이 시조를 최경창은 뒷날 '함관의 노래'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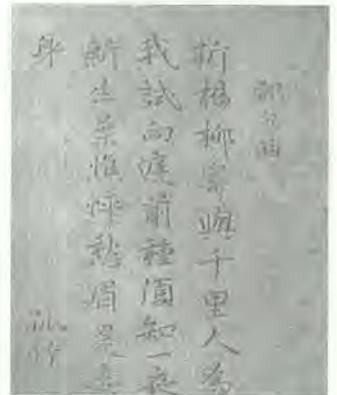
홍량이 지은 시조엔 따로 제목이 없다. '뫓버들'로 시작해 흔히 '뫓버들가'라고 불린다.

이후 최경창은 이 시조를 한시漢詩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바로 <번방곡翻方曲>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짧은 만남과 긴 이별을 시로 나누었다.

翻方曲

折楊柳奇與千里人
爲我試向庭前種
須知一夜新生葉
憔悴愁眉是妾身
- 고죽 최경창 -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랑에 빠졌던 최경창과 홍량.

그리고, 함관령에서의 애절한 두 사람의 이별은 조선을 대표하는 연정시 '뫓버들가'를 남겼다.

외로운 대나무, 고죽 최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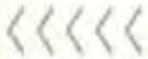
한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고죽 최경창, 그는 어떤 사람인가?

최경창은 1539년 전남 영암의 해주최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그의 출생지 영암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 앞 시비에는 홍량의 '뫓버들가'와 최경창이 번역한 한시 '번방곡'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최경창은 조선의 삼당시인三唐詩人이며 팔문장八文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경창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린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은 그가 남긴 <옥봉집玉峰集>에서 최경창은 열두살 때부터 청련 이후백靑蓮 李後白, 1520(중종15)~1578(선조11)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이 열 네살 때, 청련 이후백에게 배웠다. 이 때 고죽 최경창이 함께 배웠다.』

- <옥봉별집>

이 때부터 최경창은 매우 뛰어난 글재주를 보였다.

최경창의 문집 <고죽집孤竹集>을 보면 그가 아홉살에 적은 시가 전한다.

등남악登南岳

푸르고 푸른 남산의 멧부리가
우뚝하게 천지 사이에 솟았네
올라가서 애오라지 내려다보니
한강물 가늘게 졸졸 흘러가네

남산에 올라가 한강을 바라보면서 지은 이 시에는 어린 최경창의 포부와 기개가 잘 담겨있다. 이렇게 뛰어난 글재주를 보인 최경창은 스무살 약관이 되기도 전에 이산해, 송익필, 최립, 백광훈, 이순인, 윤탁연, 하응림 등 당대 쟁쟁한 문인들과 함께 '팔문장'으로 불렸다.

『스무살도 되기 전에 이산해, 송익필, 최립 등의 여러 재능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이동에서 시와 문장을 주고받아 세상에서는 이들을 '팔문장계'라고 불렀다.』

- <고죽집 후서>

최경창은 24세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29세(선조 1년)에 드디어 문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최경창의 관직생활은 늘 순탄치 못했다.

1579년 6월, 최경창의 마지막 관직이었던 종성부사에 임명되자 대관들이 앞을 다투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평소 최경창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던 선조는 종성부사에서 물리나게 하라는 대신들의 주장을 끝내 듣지 않았다.

『입금은 평소부터 최경창의 재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릇 3개월이나 논핵論劾 했어도 끝내 윤택하지 않았다.』

- <선조수정실록(1579. 6)>

이처럼 최경창은 임금의 특별한 신임을 얻은 반면 일부 대신들의 평가는 달랐다.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 1542~1607)은 최경창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인순왕후의 국상중에도 불구하고 최경창이 흉랑을 데려다 첩으로 삼은 것에 대해 대간들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경창은 사람됨이 거리낌이 없어 국상을 당했을 때에 양계에 창기를 데려다 첩으로
삼았으므로 당시 대간이 이를 논박했다.』

- <선조실록, 1579. 6. 8>

이보다 앞서 최경창은 선조 6년(1573년) 김효원, 김우옹과 더불어 ‘독서당’에 추천되었다.

『예조와 ‘독서당’인원에 대해서 의논해 김효원, 김우옹, 민충원, 허옹, 최경창 등을
더 간택하였다.』

- <선조실록, 1573. 11. 23>

당시 문과급제자 가운데 나이가 젊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문사들을 ‘독서당 讀書堂’에 선발하
였는데 독서당에 뽑히는 일은 문과급제보다 더 영광된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 최경창은 ‘독서당’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덕망이 없는데도 ‘독서당’에 선발되는 건 옳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간원이 아뢰기를) 민충원과 최경창은 본디 덕망이 없는데도 갑자기 그 선발에
끼었으므로 합당하지 않게 여기니 쫓아내소서』

- <선조실록, 1573. 11.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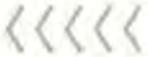
결국 최경창은 미관말직인 정언, 도평사, 영암군수 등을 지내며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리고 관직생활 마지막으로 종3품의 종성부사가 되었으나 역시 대간들의 반대로 종5품 직
간으로 다시 벼슬이 낮아지기도 했다.

허균의 <학산초당>에는 이러한 최경창의 처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허난설현은 그가 변방을 전전하는 것을 슬퍼한다고 읊었다.

『(최경창, 백광훈 등이) 변방의 고을살이로 내버려져 있음이 슬프네』

- <허난설현의 ‘감우시’ 중>



그러면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최경창이 이처럼 불우한 관직생활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조선은 당쟁이 막 시작되는 즈음이었다.

김효원과 심의겸이 이조전랑직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다가 결국 동서봉당이 표면화되었다. 이 때가 1575년. 최경창이 관직에 나온 지 8년째 되는 해였다. 그렇다면 최경창도 당파에 휘말려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것일까?

『창기를 데려다 첩으로 삼았는데도 서인들이 그를 지우(知友)라 하여 그 사실을 비호하였습니다.』

- <선조실록, 1579. 6. 8>

유성룡은 최경창이 서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홍랑과의 추문도 보호받았다고 주장하고, 사관들은 최경창이 원래 당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아니었으나 비변사 등에 선배들이 많아 논쟁에 휘말렸다고 했다.

『최경창은 본래 당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아니었으나 비변사 당상관에 선배들이 많았기에 그를 둘러싼 논쟁이 특히 준엄했다.』

- <선조수정실록, 선조12년, 1579. 6. 1>

그렇다면 최경창의 벼슬살이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이 그가 단지 서인측 인물들과 가까웠기 때문이었을까?

허균의 형, 허봉(許篈, 1551~1588)은 당시 동인의 대표 주자로 촉망받는 인물이었다.

이런 허봉이 최경창을 좋아하여 연이어 열흘이나 최경창을 찾아왔다.

그러나 최경창은 허봉이 편벽하다 하여 단 한번도 얼굴빛을 누그러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허봉이 매우 노여워 하였다고 한다.

『허봉이 매우 노여워하여 여러 차례 홍문관 전랑 선발에서 제외시키고 마침내 외직으로 내보냈다고 되어있다.』

- <고죽집 후서>

이산해(李山海, 1539(중종 34)~1609(광해군 1))는 나중에 영의정에 오를 만큼 조선 정계에 실력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최경창은 이산해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했다.

이산해의 마음이 공정치 못하다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다.

상대방이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경창은 과감하게 관계를 끊

어 버렸다.

『공은 후일 재상이 된 이산해와 사이 좋게 지냈으나 후에 그의 마음가짐이 공정하지 못함을 보고는 왕래를 끊었다.』

- <고죽집 후서>

이처럼 최경창의 강직한 성격과 시에 대한 투철한 의식은 남의 눈치를 보거나 타협을 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성격과 시 정신은 당대 정치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경창의 호방함과 인간미를 엿 볼 수 있는 일화도 있다.

선조가 여러 문무대신을 모아 활쏘기 대회를 열었을 때였다.

최경창이 모든 화살을 명중시키자, 활을 잘 쏜다는 옆의 사내가 최경창을 두려워했다.

이에 최경창은 그에게 “걱정마시오. 오늘은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걱정할 것 없소.” 하더니 마지막 화살을 허공에 쏘아버렸다고 한다.

이 바람에 최경창은 2등이 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인사들을 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의 호방한 면모를 엿 보게 한다.

『활 잘 쏘는 자가 장원으로 상을 받았고 공이 그 다음을 차지하여 호피와 말을 하사받았다.』

- <고죽집 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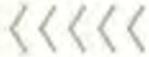
또한, 최경창이 영암군수로 있을 때의 일화도 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허균 등의 스승이던 손곡 이달(孫谷 李達, 1539~1612)의 시를 받는다.

‘고죽에게 드리는 비단의 노래’ - 손곡 이달

장사아치 강남 저지에서 비단을 파니
아침 해가 비치자 자주빛 안개가 피어나는구나
미인은 그걸 사서 치마며 허리띠를 만들려는데
주머니 더듬어도 돈은 없구료.

이달이 좋아하는 기생에게 비단을 사주고 싶으나, 돈이 없다는 내용이였다.



최경창은 곧 화답을 했다.

“(손곡의) 시는 한 자가 천금이니 감히 비용을 아끼라 하고는 한 자에 각각 세 필씩 쳐서 그의 요구에 응해 주었다.”

- <학산초당>, 허균 -

이처럼 호방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단호했던 고죽 최경창.

그는 끝끝내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예인 기질을 가진 시인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최경창은 스스로를 ‘외로운 대나무’, ‘고죽(孤竹)’이라 칭하지 않았던가.

즉, 자신을 바닷가 높은 벼랑에 서 있는 대나무에 비유, 세상에 굴하지 않는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감우십수기정계함 感遇十首寄鄭季涵’

외로운 대나무 가지도 잎도 없이
바닷가 산 위에 몸을 붙여 산다네
해마다 서리와 눈에 묻힌 데다
벼랑에 내린 뿌리라 편안치 않네
이 재목을 어디 쓸 대가 있으랴만
귀한 것은 추위를 견딘 자태라네

또한 관직에 대한 최경창의 태도를 엿 볼 수 있는 시도 있다.

송조운강백옥지임괴산

送趙雲江伯玉之任槐山

곧은 도는 세상에서 용납되기 어려운데

直道難容世

하찮은 관직 또한 가난 때문에 하시는 것

微官且爲貧

‘조운강’이라는 친구가 괴산으로 부임해가는 것을 두고 쓴 시인데, 시에 보면 올바른 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 벼슬은 다만 가난 때문에 하는 것이라 했다.

이 시는 크게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좌천되어 가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데, 그 안타까움은 바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최경창.
그러나 그는 동서 봉당의 정치적 격랑과 그러한 세상에 대한 곳곳한 기개로 시대를 읽고
말았던 것이다.

· 목숨을 건 사랑

최경창의 순탄치 않은 관직생활. 그러나 홍랑과의 뜨거운 사랑은 계속 된다.

아름답고도 질긴 홍랑과의 인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남학명의 <회은집晦隱集>에는 최경창과 홍랑의
만남에서 최경창이 죽고난 다음까지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함경도 쌍성에서 헤어진 후 최경창과 홍랑에 대한 재회의 기록이 있다.

『을해년(1575년)에 내가 병들어 누워, 봄부터 겨울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 <회은집>

함경도에서 돌아온 다음 해, 최경창이 병에 걸렸다.

어찌 병이나지 않겠는가?

최경창의 병환소식은 함경도에 있던 홍랑의 귀에도 들어갔다.

홍랑은 주저하지 않았다.

즉시 길을 나섰다.

밤낮으로 7일을 걸어 그녀는 서울에 도착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다.

『그 날로 길을 떠나, 칠일 밤낮 만에 경성(서울)에 도착했다.』

- <회은집>

당시 평안도와 함경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
다. 더구나 관기였던 홍랑이 함경도를 벗어나 서울로 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실로 목숨을 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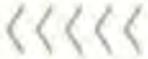
그러나 홍랑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홍랑은 지극정성으로 최경창을 간호했다.

사대부 최경창과 관기인 홍랑의 인연. 도를 뛰어넘은 이들의 사랑은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

홍랑의 지극정성에 최경창의 병은 점차 차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시 이별을 뜻하는 것이었다.



1576년 5월, 사헌부에서 최경창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바로 홍량 때문에 불거진 일이었다.
이 일로 최경창은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서 파직되고 말았다.

『전적 최경창은 식견이 있는 문관으로서 몸가짐을 삼가지 않아 북방서 관비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불시에 데리고 와 버젓이 함께 사니 이는 너무 거리낌 없는 행동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 <선조실록, 1576. 5. 2>

• 맺지 못한 사랑

홍량은 경성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또 다시 두 사람 앞에 기약없는 이별이 놓였다.
이 무슨 인연이란 말인가?
최경창은 후원으로 돌아가는 홍량에게 시 한 수를 주었다.

송별^{送別}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운 난초를 건네노니
이제 하늘 끝으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함관의 옛 노래는 부르지 마소
지금도 구름과 비에
푸른 산이 어둑하니

홍량은 홀로 함경도로 돌아갔다.
최경창이 준 시만 받아들고서.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이었다.

함경도에서의 첫 만남과 서울에서의 재회.
이것으로 시인 최경창과 기생 홍량의 인연은 끝난다.
그러나 최경창에 대한 홍량의 사랑은 지독한 것이었다.
홍량에 대한 최경창의 사랑 역시 시대의 금기들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파직까지 감수해야 했던 최경창의 사랑.

어찌보면 무모해보이기까지 하는 이들의 사랑.

홍랑에 대한 최경창의 마음을 통해 조선시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그의 내면 시세계는 당시 조선의 시풍과는 확연히 달랐다.

충과 효 등 국가 체제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당대 시들과 달리 최경창은 개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최경창의 시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평가한 이는 허균 이었다.

『최경창의 절구는 편편이 모두 깨끗하고 맑아 당(唐) 시대의 여러 시인들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 허 균

최경창의 시는 바로 자신을 노래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경창이 홍랑을 사랑했던 이유도 상대를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최경창의 시세계는 최경창이 홍랑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못다한 인연, 계속되는 사랑

관리 이전에, 한 시인으로서 최경창은 지금까지 조선의 시풍과 다른 시세계를 보여줬다.

그것은 체제나 국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 솔직한 표현이었다.

이런 태도와 인식이 홍랑에게 전해졌고 두 사람의 세기적인 사랑도 그래서 가능했을 것이다. 최경창은 신분질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내면을 중시하고 이런 그의 시정신은 홍랑을 일개 관기가 아닌,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진정성을 보였고, 홍랑 역시 그런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승에서 단 두번밖에 만나지 못한 이들의 사랑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다.

최경창의 작품을 수록한 <고죽집>은 극적으로 후대에 이어졌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이곳에는 그의 사후 발간된 <고죽집>이 전해진다.

고죽 최경창의 손자인 최진해가 “내 선대조의 문집이 정리가 안 되면 후손들에게 전할 길이 없겠다.”고 걱정하며 노구의 몸을 이끌고 때로는 발품을 팔며 자료를 수집해 <고죽집>을 엮어냈다고 한다.



〈최경창의 유고집 「孤竹集」〉



〈홍랑 묘비〉

· 고죽 최경창의 문집인 <고죽집>

최경창의 시 수백여 수가 여기에 담겨있다.

고죽집의 서문은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썼으며 후서는 박세채朴世采가 썼다.

해주최씨 집안에 내려오는 초판 인쇄본.

그리고 이 필사본이 만들어진 뒤 <고죽집>은 목판본으로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고죽유고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는 후손들의 노력과 함께 홍랑이 큰 역할을 했다.

<고죽집 후서>에는 최경창의 최후에 대한 짚막한 기록이 나온다.

『직장으로 임명되어 서울로 오는 도중, 종성객관에서 세상을 떠났다.』

- <고죽집 후서>

그의 나이 마흔다섯 이었다.

최경창의 시신은 파주 선산인 월룡 다락고개樓峴洞에 모셔졌다.

그런데 최경창이 죽은 후 누군가 묘소에 나타났다.

바로 홍랑이었다.

병든 최경창을 간호하고 서울에서 헤어진 지 약 7년만이었다.

홍량은 무덤가에 초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시작한다.
 홍량은 스스로 치장을 하지않고 최경창의 무덤을 지켰다.
 얼굴을 스스로 훼손하고 용모를 초라하게 하여 다른 남자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이다.

『(홍량은) 최경창이 죽은 뒤에 자신의 용모를 훼손하고 파주에서 시묘하였다.』

- <회은집>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홍량은 가장 먼저 최경창의 시 원고를 챙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홍량이) 최경창의 원고를 짊어지고 피하여 전쟁의 불길을 면하였다.』

- <회은집>

전쟁의 참화속에서도 홍량은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최경창의 시를 지켜낸 것이다.
 바로 홍량이 아니었다면 고죽의 주옥같은 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경창과 홍량의 질긴 인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세도가였던 해주최씨 집안도 홍량의 지극 정성에 감화되었다.
 그리고 해주최씨 집안은 홍량이 죽자 최경창 부부 합장묘 아래 홍량을 묻어 주기로 했다.
 최경창 후손들이 기생 홍량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던 최경창.
 고고한 기개를 잃지 않았던 시인.
 비록 출세와 시대는 잃었으나 최경창은 사랑과 시를 얻었다.

· 시인과 기생.

최경창과 홍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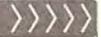
이 두 사람의 안타깝고 아름다운 사랑은 두 사람이 세간에 남긴 시로 인하여 더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세기적 사랑의 배경에는 시대적 조류를 넘어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봤던 시인 최경창의 새로운 눈이 있었다.

또한, 세태와 타협하지 않고 고결한 절개를 지켰기에 한 여인의 운명을 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영원한 시인 최경창과 그를 사랑한 기생 홍량.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파주지회를 찾아서



“나라를 위해 펜 대신 총을 들다”

권 호 숙 (파주문화원 책임연구원)



전선을 관내에 지니고 있는 파주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6·25전쟁을 가장 치열하게 치러낸 곳이다. 그래서 파주에는 6·25참전과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체이다. 이 기구 내에 포함된 단체 중에서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의연히 떨쳐 일어나 펜 대신 총을 잡고 전쟁터로 나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내던졌던 학도의용군 6·25참전 유공자회를 찾아보았다. 긴박했던 그 당시 청소년 학도로서 용기와 조국애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가 참전 활동을 한 학도의용군 최남구(현 학도의용군 파주지회장), 김완수, 류인수, 김길복 회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 중동중학교 6학년 재학생이던 최남구 학생은 일요일이라 아동리(현 금촌동) 집에서 곤한 잠에 빠져있었다. 느닷없이 총성이 울리고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들이 휴전선을 넘어 오자 평화롭던 파주지역 마을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문산농업학교 4학년 김완수와 서울 한양공업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검산리의 류인수, 서울 백남공업학교 4학년이던 맥금리의 김길복도 새벽잠에서 놀라 깨어났다.



최남구 학도의용군 파주지회장

최남구 파주지회장은 그 때 이미 반공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당시 저는 반공단체인 통일학생연맹 파주군 감찰부장을 맡고 있었지요. 6·25 전쟁 이전, 금촌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통학할 때 공산당원들이 기차를 세우고 선전물을 뿌리는 등 공산당의 활동이 심해 반공단체인 통일학생연맹(대장 김두한)에 가입했었죠.”

최남구 학생은 서울이 수복된 후 피난을 갔다 돌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도병을 모집하여 중고등 남녀학생 70여 명으로 학도의용군을 조직하고 파주지역 지대장을 맡았다. 이 당시 송달용(중학생, 전 파주시장), 민병돈(휘문중학 4년 전 육사교장), 이준희(전 병무청장), 경의현(전 동두천시장) 등이 함께 학도의용군으로 참여하였다. 15세와 16세 등 어린 학생은 6명이었으며 이들은 대대정보과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학도의용군은 국방부 제2정훈국(국장 이성근) 소속의 손도심 대장 밑에 각 지대로 조직되어 있었다.



김길복 학도의용군

1.4후퇴 때 학도의용군 중에 피난을 떠난 가족을 따라가지 않고 특공대로 남은 사람은 45명이었다. 파주지역 학도의용군 45명은 군번없이 군에 자원하여 보병 제1사단 15연대에 소속되어 1950년 12월 16일 오후 3시 1대대 정보과장 한인승 대위의 인솔로 교육대에 입대하였다.



류인수 학도의용군

“그 때 교육대로 갈 때 군복을 입고 학교모자를 쓰고 그 위에 철모를 쓰고 갔지요.” 류인수 회원이 입대 당시 상황을 회상한다.

천현면 법원리에서 보름간 사격훈련을 받은 학도의용군은 12월 30일 중공군의 남하로 보병부대 소속 1대대에 배속되어 후퇴진열에 합류하였다. 한강 철교와 인도교 사이에 진을 치고 한강 방어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때 김병호 학생은 수색차 불광동 전화국 앞까지 갔다가 인민군과 접전이 있어 폭격을 받고 포로로 잡혔다가 그 후 탈출하였다.

학도의용군은 수원을 거쳐 안성까지 후퇴를 하여 대대 내에 각 중대에 배속되어 방어선 구축을 하며 월동하였다. 다음해 3월 15연대가 진격 작전에 투입되어 수원 모락산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신관범(서울 중동중학)과 강신구(문산중고) 학생이 전사하였다. 일부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충대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이필성 학우도 동부 전선인 강원도 원주지역을 방어하는 8사단에 보충되어 15연대 2대대 8중대 본부에 보충 편성되어 횡선전투에 참전하였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산지에서 적군과 교전 중에 총탄을 다리에 맞고 산 속에서 숲 구어내던 토굴 속에 피신해 있다가 이틀만인 1951년 2월 13일에 중공군에게 피포되었다. 이필성은 북으로 끌려가 수용소 혹은 작업장에 동원되어 32개월간 생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 쌍방의 포로송환이 이루어져 8월 24일 판문점을 거쳐 인천에서 군함선에 승선하여 경남 한산도 건너편 용초도 섬에서 얼마간 휴양을 하다가 1953년 11월 27일 휴가를 받아 만 5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다. 이후 부산 제5육군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간 치료를 받고 부상으로 인한 명예제대로 1954년 2월 10일 군복을 벗었다.

수도 서울을 탈환할 때 정보과에 배속되어 첩보활동을 하였던 김원수 학생은 최낙기와 한조가 되어 출발하였는데 화전 별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민병돈 학우가 왼팔에 관통상을 당

했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임진강 전투에 참가한 후 전쟁이 소강상태가 되자 학도의용군들은 일부 학교에 복귀하고, 희망자는 현역으로 정식 입대해 군인으로서 복무를 다하였다. 이때 입대한 이종관, 서종영 등은 후에 무공수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귀가하여 학교를 다니던 학우들은 뒤늦게 군입대 영장을 받아 다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학도의용군 군입대 면제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최남구 회장은 군복무를 두 번이나 해야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법은 1960년 4월 19일 이후에야 제정되었다. 이준희 학우는 현역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에 병무 행정을 총괄하는 병무청장을 지냈으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도 했다.

“후전이 되자 1951년 4월 경 적산가옥과 창고가 있던(현 문산제일고와 문산중학교 자리)에 학도의용군 사무실이 차려지고 학도의용군의 재조직이 이루어져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이 후에 이경재 문산종합고 교장이 이 곳을 인계 받아서 문산제일고와 문산중학교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하고 주름진 얼굴의 원로가 된 학도의용군들의 회고가 이어졌다.

젊은 학생시절, 나라가 위태로울 때 분연히 일어나 펜 대신 총을 들었던 학도의용군들... 이제 60년이 흐른 뒤 원로 학도의용군들은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전하고자 1996년 조리읍 장곡리 체육공원에 파주학도의용군 6·25 참전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학도의용군 파주지회 네 분 원로들을 만나 보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생의 신분으로 국가의 위기를 맞아 전쟁의 현장 속으로 과감히 지원하여 목숨을 걸고 활동한 학도의용군의 기개와 용기에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김완수 학도의용군



10. 울곡선생 무친 봉산사개

향토의 맥

무친 사개가 전라남도 담양군 봉평면 명준리(현 담양군 봉평면 명준리)에 있다. 조선 16년(1356)에 울곡선생(1308~1376)은 오대산에서 제방산과 문두령 고개(그레히 만구리)를 넘어 향사개(향사개)로 변화, 진행해 온 대동맥이 봉산에서 이봉산 후 다시 추자래 변화한 다음 하늘의 길(향사개)에 머무르고 있는 산진지에 위치하고 있다.

울곡과 신사임당의 발자취를 찾아서

과 조현(1308~1376)은 울곡의 집안으로 있으며, 울곡에서 내려오는 맑고 맑은 냇물은 백옥같이 흰 물이 바다에 휘둘러진 공경천(公敬川)에 냇물을 건너 봉산(鳳山)에 이르러서 울곡(鵝谷)을 건너 대동맥(大東脈)의 명정(明正)과 동산을 거쳐 충주(忠州)로 유입되어 남한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기 현 (파주문화원 고문)

산지수려한 이곳에 위치한 봉산사개는 울곡선생의 무친(無親)이원수공(李元守公)의 무친(無親)으로 백옥산(白玉山)이라 조현(趙顯)은 이봉산(李鳳山)에서 신사임당(申師任)의 무친(無親)으로 백옥산(白玉山)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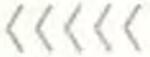
1. 덕수이씨(德水李氏) 유래와 명인배출

시조 돈수(敦守)는 고려때 중랑장을 지냈으며 증손 윤은(允蘊)이 봉익대부(奉翊大夫) 밀직사 판도판서(密直司判書) 선충훈절공신(宣忠勳節公愼) 벽상(璧相) 삼한삼중대광수(三韓三重大匡守) 첨의정승(僉議正丞) 겸춘추관사를 지내고 덕수부원군(德水府院君)에 봉해지다. 그의 아들 천선(天善)이 참지승서정사를 역임 1356년(공민왕5)기철 권엽 등이 주살된 사실을 원나라에 보고한 공으로 굴자광목대부수사 공주국이 되어 낙안백(樂安伯)에 봉해지자 후손들이 본관을 덕수로 하여 세계를 계승하게 되었다.

조선조 개국후 공조참의를 역임한 춘당공(春塘公)이양(李揚)이 덕수현(개풍군)에서 울곡리로 이주하시어 자손들이 번창한 가운데 동방의 성현 울곡 이이(栗谷) 선생이 배출되었다. 또한 이순신(李舜臣)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옥포를 위시 당포, 당항포, 한산도대첩과 안골포 장문포등에서 왜군 수천명을 사살하고 왜군 전선 수백척을 격파 대승을 거두고 삼도수군통제사로 승진 노량포에서 고금도로 이진 왜선 5백여척이 노량포에 집결하자 명군 제독진린(提督陳璘)의 수군과 연합 적군을 기습하여 혼전중 유탄(流彈)에 맞아 전사(戰死)한 용장(勇將)이다. 이러한 유명한 인재를 배출함으로 우리나라 거울이 되었으며 세계 만방에 빛낸 가문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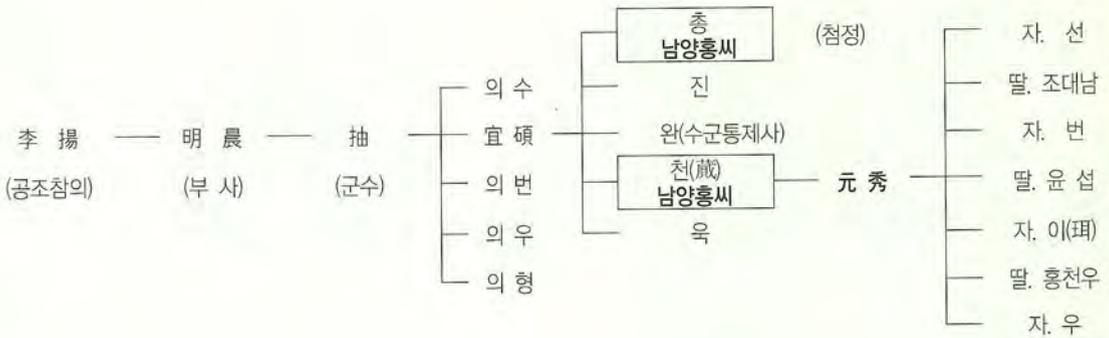
울곡선생 6대조 이양 묘 전경



2. 申師任堂 親族과 李元秀 結婚 來歷

형조판서 최응현崔應賢은 강릉 북평촌 집에 살다가 사위 이사온李思濫에게 집을 물려주었으며 딸 심명화申命和와 같이 살다가 처인 강릉최씨와 사위가 죽으니 허전함을 잊고져 평창군 봉평 백옥포리에 맑고 맑은 냇물이 흐르는 옥돌이 짝 깔린 개울가에 별장을 건립 이주하여 딸 신사임당과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산림 수만평을 관리하였다.

신사임당의 어머니 심명화의 어머니는 남양 홍씨였으며, 덕수 이씨 이원수의 어머니와 큰어머니도 남양 홍씨로 이들은 친정쪽으로 근친간이었다. 한양 수진방 이웃에 살면서 이천 아들 이원수와 심명화의 딸 사임당을 중매하여 결혼하게 된 것이다.



<이충과 남양홍씨(이원수 큰 부모) 묘 전경>



<이천과 남양홍씨(이원수 부모) 묘 전경>

3. 이원수와 율곡선생 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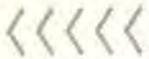
덕수이씨 충당공 이양李揚은 덕수현에 살다가 벼슬길에 올라 공조참의工曹參議가 되어 한양 수진방에서 거주하다 퇴임 파주 율곡리 45번지에 내려와 살았다. 그의 아들 동지 중추부사 이명신李明晨은 경관이 아름다운 임진강변 언덕 위 고려말 야은 길재治隱 吉再가 살던 자리에 화석정을 건립하니 중앙에 조정 중신들을 비롯하여 정치인과 문인 시인들이 몰려와 시유를 즐기었으며 중국 사신들도 다녀가면서 아름다움을 찬탄하였다고 한다. 그의 손자 군수 추추에 이어 증손 현감 의석宜碩은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넷째아들 천藏은 이곳에 살았으나 3살 난 아들 이원수李元秀를 두고 1506년 7월17일 24세로 별세하였다.

이원수는 24세 청춘과부 남양홍씨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 수진방에 계시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남양홍씨를 의지하고 한양을 왕래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던 중 신명화의 어머니 또한 남양홍씨로 근친간이 되어 이웃에 살면서 증매, 신명화의 딸 사임당(19세)과 1522년 화창한 봄날 장릉에서 이원수(22세)와 결혼식을 올리고 살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세월은 유수와 같아 아들딸 4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아무런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어 신사임당과 3년간(1,000일)은 편지도 하지말고 10년간에 걸쳐 성공할때까지 별거하기로 약속 한양으로 올라와 공부에 전념하니 3째 큰아버지 완菴께서 수군통제사로 임명되자 1533년 수운판관으로 음직 부임하게 되었다.

이원수는 직무에 충실하면서 한양과 율곡리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위안하면서 살았으나 부인 신사임당이 너무나 보고 싶어 특별휴가를 얻어 1935년 2월 25일 대화에서 머물고 백옥포리에서 처외조부와 살고 있는 그리운 입을 만나 수일간 머물다가 상경하였다. 그러자 1년이 지나 현용이 탄생 무럭무럭 자라며 어머니 지도만을 받고 스스로 학문을 배우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나 3세 시를 비롯하여 화석정 8세시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원수는 아들 현룡이 9세가 되면 인시에 태어나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팔자를 타고났다며 이원수와 어머니 꿈에 두 번이나 신령님이 나타나 밤나무 천주를 심어 후환을 막으라는 말을 듣고 집 뒷산에 소중히 심어 재배하였다. 그래서 호號를 율곡粟谷이라 하였고 화를 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율곡이 8세 당시 고향에 내려와 화석정에 올라 지은 시는 오늘날까지 계시되어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고 있다. 이곳은 율곡 이이栗谷 李珣선생 6대조가 자리잡은 유서깊은 곳이며 조상들의 묘가 전부 이 지역에 있어 이원수는 1544년 8월 4일 37년 동안 홀로 사시다가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집 앞산에 아버지와 합장하고 슬퍼하며 묘소에 자주 들러 참배하였다고 한다.

율곡 선생 학문이 날로 발전되어 1548년 13세 당시 진사시에 급제하니 시험관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이 경탄하였다하니 이원수와 신사임당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1551년 5월 17일 이원수는 만아들 변과 율곡을 대동 평안도에서 세곡을 싣고 마포강에 도착하자마자 새벽에 사임당부인이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 자빠지고 아이들도 슬픔에 눈물로 통곡하



니 주위 사람들이 탄복하였다고 하며 고향 근처 자운산 중턱에 안장 율곡선생이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원수는 묘소에 자주 들러 슬퍼하며 거룩한 업을 추모하였으며 아들딸을 출가시키고 주부를 거쳐 사헌부 감찰에 있다 퇴임 율곡리에서 한양을 왕래하며 여생을 보냈다.

율곡선생은 어머니 시묘살이를 마치고 금강산으로 강릉 경포를 들러 경포대부시와 외가집에 가서 자경문을 지어놓고 귀환하였으며 1557년 9월 성주목사 노경림(盧慶麟)의 딸과 결혼하였다. 1558년 23세때 안동도산에 가서 퇴계 이황 선생을 만나고 돌아와 별시장원급제를 하고 천도책을 지었으며 1561년 26세때 아버지 별세하니 어머니와 합장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1564년 식년 문과급제와 명경과 장원급제하고 생원진사 한성시 광시 등 아홉 번 장원급제로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호칭되었으며 호조좌랑을 거쳐 홍문관 자리로 승진하였다.

율곡은 1569년 34세때 외할머니가 90세에 돌아가시니 강릉을 가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명종실록 편찬과 동호문답을 지었으며 1569년 만형 선(璿)이 별세한 후 청주목사로 부임 향약을 지어 제도하고 우계 성혼(牛溪成渾)을 만나 이기설(理氣說)을 논하였다.

1573년 직제학겸 동부승지경연참찬관과 춘추관 수찬관을 겸임하고 우부승지 병조참지 대사간을 역임, 성학집요를 지어올리고 홍문관 부제학 격몽요결 편찬 사창제도 실시와 빈민구제 등에 힘쓰고 동거계사(同居戒辭)소학집주와 기자실기를 지음.

1580년 45세 대사간에 이어 대사헌 예문관제학에 승진 호조판서 우찬성 형조판서 병조판서 이어 판동령부사 이조판서로서 시무육조방학(時務六條方學)을 올리고 10만양병을 주장하였다.

1582년 형조판서 우찬성 만인소를 올리고 명나라 사신 영접사로 임명후 병조판서로 임명되었다.

1583년 시국 구제의서를 오리고 판영돈부사 제수되고 이조판서 임명됨. 시무6조방략(時務方略)을 올리고 양병 10만을 주장하고 국정쇄신과 황무지 개간으로 식량증산을 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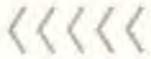
1584년 1월 16일 새벽 대사동 집에서 별세 3월 20일 자운서원 선영위 예장 되었으며, 인조 11년 문성의 시호와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영 홍문관춘추관 관상감사로 증직되고 백사 이항복이 신도비를 찬하였다.

율곡선생은 10만 양병 주장이 성립되지 않아 선조18년 별세하였지만 8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25년 4월 그믐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풍우속에 왜군에 쫓겨 임진강을 인조대왕이 건너갈 줄 알고 화석정에서 제자들에게 들기름 한 종기씩 가져오라 하여 기둥, 석가래, 마루에 기름칠을 하게 한 정자의 불을 살아 간신히 어가 도강하게 되었다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그 당시 유성룡영의정은 율곡선생 말을 안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면 후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선견지명이 탁월한 유학의 거두 천문철학이 밝은 철인 성현으로서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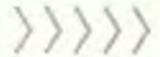
권 화폐도안에 율곡선생의 초상화가 게재되고, 어머니 신사임당도 5만원권 화폐도안에 게재됨으로 겨례의 스승이자 전세계적인 성현에 추앙되었다.

4. 율곡선생 연보

시대별 년조		연령 (세)	일 생 활 등 내 용
이 조	서 기		
중종31	1536	1	12월 26일 인시(寅時)강릉 북평촌 오죽헌 201번지 몽룡실에서 탄생하니 아버지 36세, 어머니 33세 였다
33	1538	3	빨간 석류나무를 보고 외할머니가 저것이 무엇과 같으나 물으니 석류피리쇄홍주(石榴皮裏碎紅珠)라 하였으며 말과 시, 글을 배우다
35	1540	5	어머니 신사임당 병환중 외조부 사당에 들어가 쾌유를 기도하다
36	1541	6	어머니와 강릉에서 한양 수진방 집으로 올라와 고향할머니와 살음
37	1542	7	어머니의 지도를 받고 사서를 배워 진복창전(陣復昌傳)을 짓다
38	1543	8	파주 고향 율곡리에서 할머니와 살면서 화석정에 올라 화석정 시를 지음 (8세시)
39	1544	9	중국 장공예(張公藝)가 구대동거(九代 同居) 살았다는 책을 읽고 형제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림을 그려 벽에 붙여 놓았으며 명인 행적을 기록하였다 함
인종1	1545	10	어려서 본 경관이 아름다운 강릉 경포대부시(鏡浦臺賦詩)를 지음
명종1	1546	11	아버지 병환이 나자 팔을 잘라 피를 내어 입에 넣고 사당에서 쾌유를 기도함
3	1548	13	진사초시(進仕初 試)에 장원급제(壯元及第) 칭송이 높았다
6	1551	16	평안도 지방에서 세곡을 싣고 아버지와 마포강에 도착하자마자 5월 17일 새벽 어머니 신사임당 별세 소식을 듣고 통곡 자운산에 모시고 시묘살이와 행장을 지음
9	1554	19	어머니 묘소에서 시묘살이 3년을 마치고 3월 금강산에 들어가 불도를 연구하다 허무함을 느끼고 돌아오다
10	1555	20	금강산 유점사를 떠나 강릉 외갓집으로 가서 자경문(自敬文)을 지음



시대별 년조		연령 (세)	일 생 활 등 내 용
이 조	서 기		
11	1556	21	한양 수진방집으로 올라와 한성시에 장원급제하다
12	1557	22	9월에 성주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 곡산 노씨와 결혼을 하다
13	1558	23	봄 안동 도산에 가서 35세 연장되는 퇴계 이황 선생을 만나고 3일간에 걸쳐 이기설을 논의한 후 돌아와 별시 장원급제하고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별시장원함
16	1561	26	아버지(李元秀) 5월 14일 수진방에서 별세하자 어머니와 합장하고 시묘살이를 하면서 주역을 통달하다
명종19	1564	29	3년간 시묘살이를 마치고 우계 부친 별세하자 행장을 짓고 삭년 문과급제 명경과 장원급제 호조좌랑 임명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름
20	1565	30	생원 진사시를 비롯하여 아홉 번이나 장원하자 구도장원공이라 호칭 되었다. 예조좌랑과 사간원 정원이 되다
21	1566	31	사간원 정원으로 있으면서 시무삼사(時務三事)를 상소 이조좌랑으로 임명되어 흠트러진 행습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다
22	1567	32	명조대왕 승하하시자 슬픈 마음을 담은 만장을 지음
선조1	1568	33	2월 사헌부지평 임명 4월 장인 노경림 별세 흥문관 교리로 임명, 외조모 문병, 명나라 가는 천추사가 되어 명나라 다녀옴
2	1569	34	명종실록 편찬, 동호문답을 지음, 외할머니 90세로 별세, 강릉으로 가서 상례치름. 동료들과 시무구사를 상소하다
3	1570	35	4월 교리 임명, 8월 만형 죽곡선이 별세, 10월 해주 석담으로 감, 12월 퇴계선생 별세 아우를 시켜 조문케하다
4	1571	36	1월 해주에서 파주 울곡리로 왔다 청주목사 임명, 향약을 지어 계도함. 해주 고산 석담 구곡을 구경하고 병으로 은거함
5	1572	37	3월에 한양으로 올라와 파주 울곡리로 와서 우계 성훈과 이기설과 사단칠정 인심도심을 논의함
6	1573	38	9월 직제학 임명, 승정원 동부승지 경연 참찬관과 춘추관 수찬관 겸임되었으며 병으로 해주로 가서 둘째부인 용인 이씨와 결혼함



시대별 년조		연령 (세)	일 생 활 동 내 용
이 조	서 기		
7	1574	39	우부승지 임명, 만언 봉사 지어 올림, 병조참지 대사간을 이어 황해도 감찰사 부임후 해주에서 제자 양성함. 큰 아들 경림(景臨) 탄생하다.
8	1575	40	성학집요를 지어 올리고 홍문관 부제학 임명되자 김명원과 심지원간에 동서분쟁을 막음, 울곡리로 돌아옴
9	1576	41	격몽요결을 짓고 향약을 만들어 계도와 사창제도 실시와 빈민구제 경주하다. 울곡리로 왔다 해주 석담으로 돌아감. 청계당을 지음
10	1577	42	1월 석담에서 가족을 모아놓고 동거계사(同居戒辭)를 지어 계도하다 3째 부인 전주김씨와 울곡리에서 결혼, 제자를 양성함. 격몽요결 지음
11	1578	43	해주석담에서 은병정사(隱屏精舍)를 건립 고산 구곡가를 지음, 대사간으로 임명됨. 어지러운 난국을 극복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림, 전주김씨 딸 울곡리에서 출생함(추후 김 집 출가)
선조12	1579	44	소학집주(小學集註)를 지음, 용인이씨 차남 경정(景鼎) 태어남. 동서분당을 막고 어진 사람 등용을 간청하다
13	1580	45	기자실기를 지음, 12월 대사간의 임명, 임금님과 태평성대 제도를 논의하다.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 묘지를 지음
14	1581	46	6월에 대사헌 이어 예문관 제학으로 승진하고 호조판서로 승진하고 11월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하다. 경영일기 완성
15	1582	47	인심도심설 지어올리고, 김시습전, 학교모범을 지음, 형조판서에 임명됨, 9월에 우찬성으로 승진, 만인소를 올리고 10월 명나라 사신 영접사 임명된 후 병조판서에 임명된 후 서도에 민례를 임금에게 아람
16	1583	48	4월 시국 구제의견서를 올리고 판영동녕부사 제수되고 이조판서 임명됨, 시무6조방략(時務六條方略)을 올리고 양병10만을 주장하고 국정쇄신과 황무지개간으로 식량증산을 청하다
17	1584	49	1월 16일 한양 대사동(大寺洞)집에서 별세 3월 20일 파주자운산 선영위 예장 후 인조11년 문성 예시호(諡號)와 대광보국승록대부익정부영의정 겸경 경연 홍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증직되고 숙종7년(1681년) 문묘에 종사하다

울곡선생은 한양 대사동 곡산 노씨와 파주 울곡리 전주김씨, 해주 석담에는 용인 이씨가 각각 살고있어 아무런 부담없이 오르내리면서 3곳에서 많은 수제자를 양성하시다가 돌아가시자 부인들과 자손 가족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모두 모여 예장에 참례 슬피 통곡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큰아들 경림 10살, 둘째아들 경정 7살, 딸 8살)

5. 오죽헌과 신사임당 약사

1505년 병조판서 강릉최씨 수제 최응현(睡帝 崔應賢)은 조산(助山)에서 살다가 근거리에 있는 강릉 북평촌(江陵 北坪村) 경관이 아름다운 이 곳에 이주 둘째사위 용인이씨 이사온(李思溫)과 살면서 집을 넘겨주었으며 이사온은 최씨와 살면서 외동딸을 두어 한양에 사는 대사성 신자승의 아들 영월군수 신숙권 아들 4형제중 3남 신명화와 결혼시켜 같이 살면서 무남숙녀 5자매를 두었다. 그 중 사임당은 둘째딸(이원수)이고 넷째딸(권화)이다. 이씨 할머니가 돌아갈 때 이원수의 아들 율곡 이이에게는 수진방(청진동)기와집을 주어 제사를 받들라 하였고 권화의 아들 권처균(權處均)에게는 북평촌집과 전답을 줄 것이니 묘소관리를 잘하라고 한 후 돌아가시었다. 그리하여 권처균은 물려받은 집 주위 까마귀와 같이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자기 호를 오죽헌(烏竹軒)이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호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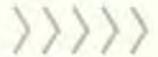
그리하여 율곡과 권처균은 이종사촌이며 신사임당과 율곡이 태어난 오죽헌은 더욱 우리나라 대표적 유서깊은 유적지로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중 건축양식과 구조가 특이하여 1963년 1월 21일 국가문화재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었다.

율곡을 모신 문성사(文成祠)와 율곡이 태어난 방은 몽룡실(夢龍室)로 사임당 영정(影幀)이 있고 율곡이 어려서 쓰던 벼루와 격몽요결이 전시되어 있는 어제각(御製閣)과 사임당을 비롯한 율곡, 매창 옥산 2자녀들의 작품이 전시된 율곡기념관이 있다.

- 사임당(師任堂)의 호號의 ‘사’는 스승을 받든다는 뜻이고 임任은 옛날 중국 뛰어난 문왕 임금 어머니 태임(太任)의 이름을 따서 율곡선생을 배웠을 때 태교로 자신이 호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7세 당시 안견(安堅)의 그림을 모방한 산수도 포도 초충도 풀과 벌레 꽃등 그린 6폭에 평풍은 숙종대왕이 보고 탄복하고 시문과 함께 돌려주었다고 한다.
- 사임당은 문장가이며 시인 화가 침술이 능숙하며 정숙한 덕과 아름다운 행실이 으뜸으로 겨레의 스승 7남매를 잘키운 현모양처로 그림 속에 살아 움직이는 듯 한 단정한 용모, 문학과 예술은 외조부와 어머니 지도를 받고 스스로 체득한 여류시인 천하의 보배로서 여성의 군자요 세계여성들의 귀감이라 하겠다.

겨레의 스승, 겨레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우리 고장의 자랑이요 강릉 오죽헌의 보배이다. 이러한 현모양처 여류시인 문학과 자수에 뛰어나 살아 숨 쉬는 그림, 용모가 단정한 효부로 생각지도 않은 오만권 지폐가 생겼다. 이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니 세계 어머니의 스승으로서 오죽헌에서 탄생한 신사임당 그의 아들 율곡선생님은 참으로 거룩한 현인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오죽헌의 거룩한 얼을 추모하기 위해 신사임당의 영정과 문성사에서 강원도 문화추모행사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다.

우리 고장은 이 성현들의 고향이요 묘소가 있으니 자운서원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문화행사



로 격상시켜 자운서원에 모시어진 성현을 위시 신사임당 영묘를 건립 거룩한 일을 추모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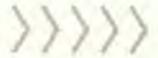
자랑스런 어머니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생기고 아들 울곡은 5천원권 화폐 생겼으니 세계만방의 꽃이 되었네…….

6. 신사임당 연보

시대별 년조		연령 (세)	내용
이 조	서 기		
연산군 1년	1504	1	10월 29일 강능 북평촌(北坪村) 지금 오죽헌에서 아버지 신명화(29세)와 용인이씨 사이에 딸만 5녀중 2째로 외갓집에서 탄생하다
중종2년	1507	4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이사온)와 강릉최씨 할머니 품에 안겨 각별한 사랑과 교육을 받고 자랐다
5년	1510	7	아버지 신명화(申命和)는 집에 한성 수진방이고 어머니 친정은 생원 이사온(生員 李思濶)의 외동딸로 외할머니 최씨 외갓집 강릉 북평촌에서 같이 살면서 외조부와 어머니 교훈을 받으며 안견의 화풍을 본받아 글씨와 그림공부 경서를 배웠으며 자수에 도 능통하였다
11년	1516	13	부친 신명화 한성에서 41세 당시 진사시에 합격하다
14년	1519	16	기묘사화로 정암 조광조가 사사되었으나 아버지는 화를 면하다
16년	1521	18	강릉 북평에서 외조모 최씨가 돌아가시어 부친 신명화가 46세때 한성에서 강릉으로 내려오는 도중 병을 얻어 집으로 왔을 때 절망되어 이씨가 조상 무덤앞에 가서 손가락을 끊어 지성껏 기도하자 사임당 꿈에 신선이 하늘로부터 대추알만한 약을 가지고 내려와 아버지에게 먹이는 꿈을 꾸 이튿날 병이 쾌차하시었다 (훗날 울곡은 이씨감천기를 씀)
17년	1522	19	이원수(22세)와 화창한 봄날 강릉에서 결혼하고 그대로 친정에 머물러 있던 중 11월 7일 친정아버지 신명화가 47세로 별세 강릉 조산에 안장하다
18년	1523	20	외할아버지는 마누라와 사위 신명화가 죽으니 평창 봉평 백옥포리 맑고 맑은 흥정천 옥돌이 짝 깔린 냇가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별장을 짓고 마음을 달래면서 동생들과 같이 사시었다.
19년	1524	21	아버지 신명화 3년상을 마치고 한성 수진방 시집에 올라와 시어머니께 처음 신혼례를 드리고 9월에 한양에서 만아들 선(璿)을 낳고 강릉 또는 백옥포리에서 왕래하며 살았다
22년	1527	24	만딸 매창(梅窓) 강릉에서 탄생하다(훗날 조대남 출가)
23년	1528	25	강릉 친정어머니 용인이씨(龍仁李氏) 열녀정각(烈女旌閣) 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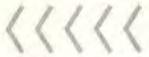
시대별 년조		연령 (세)	일 생 활 등 내 용
이 조	서 기		
25년	1530	27	큰아들 번(璠)을 강릉에서 낳다. 평창 봉평 백옥포리에서 외할아버지와 아이들과 같이 거주하다
28년	1533	30	강릉에서 둘째 딸 매화(梅花)를 낳다(훗날 윤섭 출가) 이원수는 사임당과 10년간 성공할 때까지 별거하기로 약속하고 한양으로 올라와 열심히 공부하자 큰아버지 수군통제사로 임명하게 되자 이원수는 음식으로 수운판관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31년	1536	33	백옥포리에서 자녀와 일시 살고있던중 2월에 남편 이원수와 만나다. 봄 어느날 밤, 동해 바다에서 선녀가 옥동자를 품속에 안겨준 태몽을 꾸지 10달만에 또다시 검은옹이 동해로부터 침실로 들어와 서려있는 꿈을꾸고 12월 26일 새벽인시에 울곡을 강릉에서 낳다. 그가 태어난 방을 몽룡실(夢龍室) 아명은 현룡(見龍)이다.
32년	1537	34	외할아버지(李思濶)강릉에서 돌아가시니 동생을 백옥포리에 살게하다
34년	1539	36	셋째 딸 매실(梅實)이 강릉에서 태어나다(훗날 흥천우 출가)
35년	1540	37	신사임당이 병석에 누웠을 때 5살 되는 울곡이 외할아버지 사당에 들어가 어머니 병환 쾌유를 기도하다.
36년	1541	38	강릉 친정어머니를 하직 6살 된 울곡을 데리고 한양으로 오는 도중 대관령 준턱에서 북평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시를 지었다. 서울 수진방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모든 살림을 주관 파주, 백옥포리, 강릉을 다니며 살았다.
37년	1542	39	넷째아들 우(瑀) 서울 수진방에서 탄생하다
38년	1543	40	만아들 선(璿) 선산곽씨와 결혼 백옥포리에서 거주하게 하다
39년	1544	41	시어머니 남양 흥씨 8월 4일 60세로 별세 몽삼을 입음
인종1년	1545	42	을사사화(乙巳士禍)일어나자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와 홀로계신 어머니를 더욱 그리워 하며 시를 지어 눈물로 달래었다 큰딸 매창은 조대남에게 출가하였다
명종3년	1548	45	이원수와 같이 머니면 700리 길을 15일동안 걸어 그리운 강릉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 꺼안고 통곡한후 동생들에게 백옥포리 집을 맡기고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한양으로 돌아와 큰아들 울곡리에서 살도록 하다
명종5년	1550	47	수진방집에서 삼청동으로 이사 아이들과 재미있게 잘 살았으며 2남 번(璠)남양흥씨와 결혼하다
명종6년	1551	48	이원수는 아들(죽곡과 울곡)을 대동 평안도지방에서 세곡(稅穀)을 신고 5월 17일 서울 마포강 도착하니 신사임당 새벽 인시 별세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파주 동문리 자운산에 안장 16살 된 울곡 이(栗谷 珮)가 시묘살이를 하다
자녀 연령별		만아들 선(璿) 28세 만딸 매창(梅窓) 25세 2남 번(璠) 22세 2녀 매화(梅花) 19세 3남 이(珮) 16세 3녀 매실(梅實) 13세 4남 우(瑀)10세 <4남 3녀>	



7. 덕수이씨 율곡선생 선조 시제일정표

德水李氏(개풍군 덕수현)		들이 본관을 덕수로하였다고함		덕수부원군에 봉해지자 후손		의정승 춘추관사를 지낸 후		공신 벽상 삼한상증대광수첨		밀직사 판도판서 성행근절		지내고 증손연인 봉인대부		시조덕수군 고려말 중앙정예		충남 아산 11월 11일 제단 시향		중랑장敦守 一世	樞密公陽俊 二世	三司公劬 三世	府院君允灌 四世	良簡公千善 五世	知製教仁範 六世	執義公慕 七世	康平公明晨 八世	溫陽公抽 九世	十世		十一世		十二世		十三世				
允蕃																																					
玄																																					
公晉																																					
邊																																					
孝祖																																					
護軍 瑠																																					
生員 百祿		국음 10월 11일 시향		생원공의연		生員公宜衍		연헌공의무		蓮軒公宜茂		승지공의영		承旨公宜榮		풍성공의번		豐城公宜蕃		홍산공의석		鴻山公宜碩		고창공의수		高敞公宜修											
貞				학생공유		學生公彙		판서공천		判書公藏		수사공완		水使公完		주부공진		主簿公藎		청정공충		淸正公叢		숯정공叢		畝正公叢											
忠武公舜臣		시향동시실시 瑠珪				감찰공원수		監察公元秀																													
敏 銳 晷		瑠珪		옥산공 우		玉山公 瑪		문성공 이		文成公 珮		정제공 번		定齊公 璠		죽곡공 신		竹谷公 璠										충북괴산 10월 15일 제단		충북괴산 10월 15일 제단							

덕수이씨 율곡선생 직계선조내역 시제일정표



時享日程表

						음10월 1일	中郎將	始祖	
						충남아산	極密公	二世祖	
							三司公	三世祖	
允蕃 윤번						府院君 允蘊		四世祖	
玄현						良簡公 千善		五世祖	
公晉 공진	掌令公 仁軌						政堂公 仁範		六世祖
貞靖公 邊						春塘公 揚	執義公 慕	七世祖	
忠武公 舜臣	郡守公 良晨						康平公 明晨	八世祖	
							溫陽公 抽	九世祖	
음10월10일 파주울곡리		生員公 宜衍	蓮軒公 宜茂	承旨公 宜榮	豊城公 宜蕃	鴻山公 宜碩	高敞公 宜修	十世祖	
		蕙	판서공 蔽	水使公 苑	主簿公 泰	僉正公 叢		十一世祖	
			贊成公 元壽						十二世祖
玉山公 瑀	文成公 珮	定齊公 璠	竹谷公 璿	음10월11일 파주 동문리					十三世祖

음10월15일 음10월 둘째일요일
경북 선산 충북 괴산

8. 이원수李元秀 판관대判官垆 유래

이 판관대는 강릉 오죽헌에서 서기 1536년 음력 12월 26일 탄생하신 율곡 이이 선생의 잉태지로 전하는 곳이다. 조선시대 강릉부에 속했던 이 곳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리平昌郡蓬坪面白玉浦里 208-9로 뒤로는 송항치 노정현 마전松項峙 蘆亭峴 馬轉이라 부르는 산마루들이 부채살처럼 둘러있고 앞으로는 양지동에서 흘러오는 흥정천興亭川이 판관대를 돌아 금당산錦塘山 밑에서 속사천束沙川을 만나 큰 즐거움을 이루는 산자수명한 곳으로서 예로부터 산태극 수태극山太極 水太極이라 이르는 곳이니 과연 동방의 선현이 잉태할만한 곳이라 하겠다.

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 행장에서 봉평리 살았다는 기록이 보이거니와 강릉땅에서 지내던 사임당이 용을 현몽하고 서기 1536년 음력 2월 이곳으로 옮겼고 서울에서 수운판관직에 있던 부군 이원수공이 휴가를 얻어 이곳으로 귀가하니 그 때에 율곡선생이 잉태된 것으로 전해온다. 당시 선생의 아버님 원수공의 벼슬이 판관이었던 까닭에 이곳을 지금도 판관대로 부른다.

그 후 조선 현종때(1662년) 이러한 내력이 알려져 이 지역을 사패지로 받은바 있으며 이 곳 학자들이 봉평면 평천리에 선생의 영정을 모신 봉산서재를 짓고 해마다 제향을 받들고 있다.

그러나 선현의 유적지가 그 동안 보살핌이 없어 뜻있는 분들이 매양 민망하게 여겨오더니 이 고장 상록회원들이 귀한 뜻을 모아 애쓴 보람이 있어 이번에 주민의 정성과 평창군의 도움으로 소중한 기록을 적어 후손대대 길이 전하고자 1988년 9월 20일 이 비석을 세운다.

1530년 율곡선생의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강릉최씨) 돌아가시고 사위(신명화)마저 돌아가니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맑고 맑은 시냇가 언덕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리에 별장을 짓고 살게되니 신사임당은 외할아버지 위안을 할겸해서 1537년 외할아버지(이사은) 돌아가실 때까지 7년간에 걸쳐 강릉과 백옥포리를 왕래하며 살았으며 이원수도 동절기에는 이곳에서 같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주민과 상록회원들이 세운 판관대(判官垆)〉



〈판관대 집터의 주산(主山)과 내룡맥(來龍脈)〉



〈판관대 집 터의 안산(案山)〉

9. 신사임당申師任堂과 사친시비思親詩碑

신사임당(1504~1551)은 조선시대 문인이자 서화가이며, 조선의 대학자 율곡(栗谷)의 어머니다. 어려서부터 경문을 익혔으며, 문장, 침공, 자수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효성이 지극하고 지조가 높았다.

특히 시문과 그림에 뛰어나 유대관령망친정(踰大關嶺望親庭), 사친(思親)등의 한시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것이며, 안경(安堅)의 그림을 스스로 사숙(私淑)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은 화풍에 여성의 섬세함을 더하여 후세의 시인과 학자들의 절찬을 받고 있다.

그가 선천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 우위의 유교사회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분주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때문이었다.

즉 출가 후에도 친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로 자녀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많은 작품 중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본다(踰大關嶺望親庭)”는 칠언절구(七言絶句)의 사친시(思親詩)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踰大關嶺望親庭(유대관령망친정)	
慈親鶴髮在臨瀛 (자친 학발재림영)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身向長安獨去情 (신향장안독거정)	외로이 서울길로 가는 이 마음
回首北村時一望 (회수북촌시일망)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白雲飛下暮山靑 (백운비하모산청)	흰 구름만 저문산을 날아 내리네

이 시는 신사임당이 1541년 38세 때 율곡(6세)을 데리고 강릉 친정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에 대관령 산마루에서 그리운 고향마을 북평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홀로 계신 백발의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시댁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울곡 이이의 선비행장에도 “자당께서 임영臨瀛[강릉]으로 근친을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에 자친과 울면서 작별하고, 대관령중턱에 이르러서는 북평北平사임당의 친정을 바라보며 백운의 생각을 견딜 수 없어 한참동안 가마를 멈추고 쓸쓸히 눈물 흘리며 시를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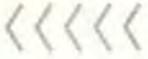
대관령 정상표석을 지난 후 얼마 내려가지 않아 우측에 강릉시와 명주군 평화통일정책자문회 위원들이 뜻을 모아 1984년10월25일 걸립한 사임당의 사친시비思親詩碑가 있다. 이 시비에 적힌 사임당의 칠언절구 시는 서울로 떠나며 모친을 그리는 신사임당의 애뜻한 심정을 전해 준다.

사임당은 해발1200미터 대관령 상정 99구비를 돌고 돌아 험준한 산골짜기를 쉬고 또 쉬고 강릉에서 구산-대관령-진부령·평창(백옥포리)-대화-안흥-원주-양근-평구-한양 수진방의 700리길을 왕래한 기록하고 장한 어머니이시다.

건 립 비 문 내 용
<p>우리역사에는 부인으로서 한두가지 재능에 뛰어난 이가 여러 사람 있으나 부덕(婦德)과 학예를 함께 갖춘 부인은 사임당신씨는 가장 두드러진다. 사임당은 아버지 신명화(申命和)와 어머니 용인이씨(龍仁李氏)의 다섯째 중 둘째딸로 1504년10월24일에 강릉에서 태어났다. 사임당은 침공(針工)은 말할 것도 없고 시·서·화(詩·書·畫)에 뛰어났으며 학문 또한 깊어 울곡이 쓴 어머니 행장(行狀)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글을 가르쳐 준 이는 어머니 밖에 없다” 고 했으니 사임당은 학문적으로는 울곡의 스승이었다. 강릉서 나서 자란 사임당은 서울로 출가하였기에 친정과 시가를 오가는 길에 이곳 대관령을 넘느라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본다” 는 유명한 한시를 남겼다.</p>

思親(사친) (신사임당 42세 서울에서)	
<p>千里家山萬疊峯(천리가산만첩봉) 歸心長在夢魂中(귀심장재몽혼중) 寒松亭畔孤輪月(한송정반고륜월) 鏡浦臺前一陣風(경포대전일진풍) 沙上白鷗恒聚散(사상백로항취산) 海門漁艇在西東(해문어정재서동) 何時重踏臨瀛路(하시중담임영로) 更着斑衣膝下縫(갱착반의슬하봉)</p>	<p>천리길 내고향은 첩첩산줄기인데 고향 가고싶은 이 마음 꿈속에 있구나 한송정 용마루에 둥근달 외로이 뜨고 경포대 앞에는 한줄기 바람 불어오네 모래위 갈매기들은 모였다 흩어지고 파도의 고기 잡는 배 오고 가는 구나 어느 때나 다시 내고향 강릉 찾아가서 색동옷입고 어머니앞에서 바느질 할고</p>

- 자료제공 : 高峯 金 振 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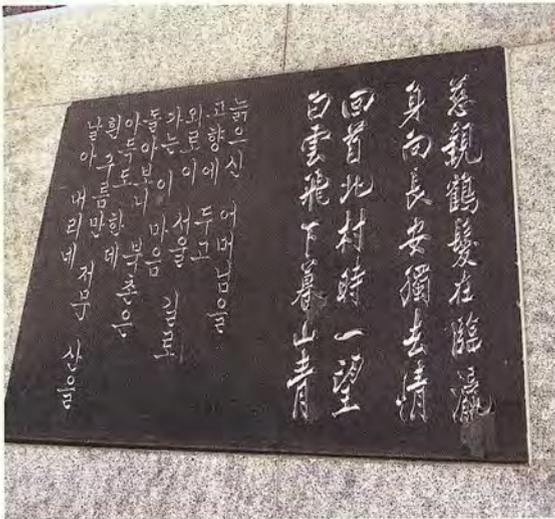
〈대관령 옛 주막 터의 그림〉



〈대관령 구길 조경도〉



〈대관령 신사임당 사천시비〉



〈신사임당의 “踰大關嶺望親庭”〉



〈대관령 신사임당 시비 건비문〉

10. 율곡선생 모신 봉산서재

봉평 시가지 진입로 국도변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平昌郡 蓬平面 坪村里 산16번지 기슭에 있는 봉산서재蓬山書齋는 오대산에서 계방산과 운두령 고개 그리고 말구리재를 넘어 힘차게 변화 진행해 온 내룡맥이 봉산에서 기봉한 후 다시 수차례 변화한 다음 아늑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산진처에 위치하고 있다.

태기산에서 뻗은 흥정산맥興亭山脈이 안산案山과 조산朝山으로 겹겹이 감싸고 있으며, 흥정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맑은 냇물은 백옥같이 흰 돌이 바닥에 짝 깔린 흥정천興亭川 냇물을 지나 봉산서재를 감싸 안고 백옥포리와 금당계곡錦塘溪谷을 지나 대화리 앞 평창강과 동강을 거쳐 충주댐으로 유입되어 남한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산자수려한 이곳에 위치한 봉산서재는 율곡선생의 부친 이원수공이 수운관관으로 벼슬을 하던 조선 중종(1530년경)때 이 고장 관관대에서 신사임당과 약13년간(1530-1543)거주하는 동안 1536년 봄에 율곡선생을 잉태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실을 후세에 전하고 기리기 위하여 1906년경에 창건한 사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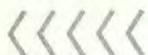
봉산서재蓬山書齋에는 율곡선생과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벽계 벽진이씨 화서 이항노(華西 李恒老 1792~1868)선생이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였다하여 강수재講修齋에 같이 영정을 모시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서재경내書齋境內 재실齋室엔 율곡 선생의 존영尊影과 화서 이항로李恒老를 모시고 지방주민과 유림이 춘추春秋로 제사를 봉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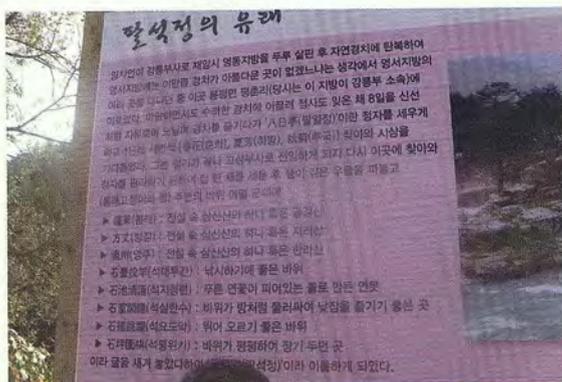
또한 경관이 아름다운 흥정천 하루 평촌리에는 허생원 일행이 대화장으로 가기 위해 달빛을 받으며 건너던 곳으로 흥정천 물줄기 중 최고의 경승지로 꼽히는 팔석정八石亭이 있는데 평평피집한 들판사이로 흐르던 시냇물이 집채만한 기암들을 만나 깊은 소를 만들면서 소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멋진 풍광을 빛은 곳이다.

팔석정八石亭은 그 이름 때문에 건축물인 정자亭子로 오해하기 쉽지만 정자가 아니라 여덟 개의 바위를 말하며,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4대 서예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명필 봉래 양사언(楊士彦 1517~1584)선생이 강릉부사로 재직할 때 이곳의 경치에 반해 8일간 머무른 뒤 팔일정八日亭이란 정자를 지어놓고 1년에 세 번씩 이곳을 찾았다고 하며 그 후 임기를 끝내고 떠날 때 이곳에 들러 물가에 있던 여덟 개의 바위에 이름을 붙였다 하여 팔석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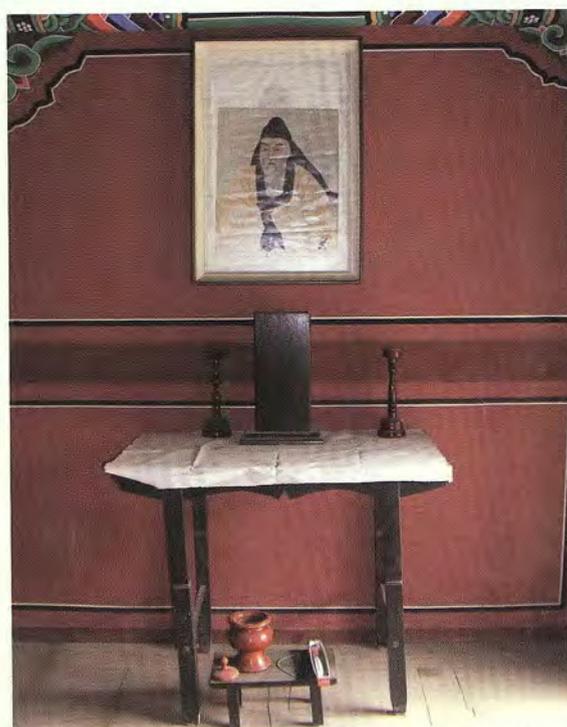
전설속의 삼신산인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와 석대투간(石臺投竿·낚시하기 좋은 바위), 석지청련(石池淸蓮·푸른 연꽃이 피어있는 돌로 만든 연못), 석실한수(石室閑睡·방처럼 둘러싸여 낮잠 자기 좋은 곳), 석요도약(石搖跳躍·뛰어오르기 좋은 흔들바위), 석평위기(石坪圍碁·장기 두기 좋은 평평한 바위)가 그것이다. 봉평蓬坪이라는 지명도 양사언의 호인 '봉래'와 '평촌'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지역을 조사하는데 수고하여 주신 봉평면사무소 총무계장님과 봉평면 무이리의 평창군 전통문화보존회위원 하찬수河燦洙선생께 감사드리며, 풍수지리학자風水地理學者 박대운선생과 사학자 김진식선생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봉산서재(蓬山書齋) 전경〉



〈울곡선생과 화서선생 영정〉

11. 율곡집안 관련 전설

이원수와 대화(월두)주막의 전설

예로부터 이 지역 대화주막은 주산과 안산이 상호 잘 응기 해주고 물이 환포를 하고 있어 땅 에너지가 잘 뭉쳐진 곳이라 손님들이 많이 찾아들게 되는 지리적 요인이 있고 영업측면의 장사도 다른 주막보다 더 잘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옛날 이곳 대화리에 5일장이 열렸다고 하며, 한양에서 충주를 거쳐 유람선과 상선배가 오르 내리는 평창강 상류 백옥포구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대화 주막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으며, 주막집은 3곳이 있었는데 아담한 강릉덕과 청학덕 그리고 월봉덕이라고 한다.

특히 월봉덕 주모는 청춘과부로 마음씨 곱고, 용모도 아름답고 음식솜씨까지도 좋아 유독 이 월봉덕 주막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 숙박하였다고 한다.

이곳 월봉덕 주막과 이원수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이 전해오고 있다.

때는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 먼 산에 아지랑이 피고 양지바른 산골짜기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아낙네들은 산나물을 뜯느라 분주하며, 산새들은 짹 지어 이산 저산 왕래하며 춤을 추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의 짹 짹하는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는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다고 한다.

신사임당과 10년간 서로 성공할 때까지 별거하기로 약속하고 한양으로 올라간 이원수는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던 중 큰아버지가 수운통제사가 되자 음식으로 수운관관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신사임당과 이별한지 약3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리운 부인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특별휴가를 얻어 한양을 떠나 두물머리 양수리 평구·양근·원주·안흥을 거쳐 1536년 음력 2월말경 대화 월봉덕 주막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한양에서 괴나리봇짐에 짚신을 걸어 메고 첩첩산중 찬바람이 불어오는 산골짜기를 정신없이 달려온 이원수는 저녁밥을 먹자마자 노독이 쌓여 한잠을 자고난 후 고요한 한밤중에 소변을 보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문이 살그머니 열리며 주모가 주안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기풍이 장대하고 담력이 강한 이원수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관상과 용모를 살펴보니 수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얼굴로 이러한 산골짜기 주막에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로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목이 킁킁한 참에 뜻밖의 후대를 받게 되니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주모는 술상을 내려놓고 이원수에게 큰 절을 하고 생긋생긋 웃으며 수년 동안 주막을 운영하여 왔으나 선비처럼 용모가 수려한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하여 웬지 모르게 마음이 이끌리어 염체불구하고 술 한 잔을 권하고자 하오니 무례를 용서하옵소서 하며 술상을 마주앉아 밥알이 뜬 동동주를 술잔에 따라 권하니 먹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한잔을

꿀꺽하고 무려 3잔을 연거푸 마시니 상쾌한 기분마저 들게 되었다.

이원수도 주모에게 술을 한 잔 따라 권하자 생긱생긱 웃으면서 앵무새 목소리로 사양하는 채 야양을 부리면서 술잔을 받아 돌아앉아 마시기에 이원수는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참으로 몸매가 어여쁜 여성이라며 기분 좋게 칭찬을 하자 주모는 또 한잔을 따라 이원수에게 주며 오늘같이 즐거운 날이 없다며 호호대며 웃는 바람에 정신이 빠져버렸다.

이원수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두 손으로 공손히 술을 따라주는 주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목을 꼭 잡고 “술맛 참으로 좋구나! 이 술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고 물으니 제가 만들었다며 빙그레 웃으며 야양을 떠는 것이었다.

이원수는 주모에게 또 술을 따라주니 술잔을 받아들고 돌아앉아 마시려고 하자 그렇게 무엇 있느냐 바로 앉아 먹어라 하며 자네는 미모가 아름답고 솜씨도 좋고 상냥한 마음씨까지 가진 여인인데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주모는 저도 강릉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행방을 감추어 부득이 어머니와 이곳에 와서 살면서 김동식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남매를 두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주막을 운영하던 중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본 이원수는 주모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으니 굳건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잘 키우라고 위로하며 술 한 잔을 또 권하기에 이른다.

월봉댁 주모도 감사하다고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셨으니 서로가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그 자리에서 그만 잠들게 되었다.

새벽녘이 되어 첫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주모는 옷저고리를 벗고 치마를 벗으려는 순간 의지가 굳은 이원수는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 정좌를 하고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부리나면서 행장을 주섬주섬 챙기고 문을 나서니 주모는 너무한다며 슬피우는 것이었다.

부인과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새벽에 도망치다시피 한 이원수는 가족이 있는 백옥포리로 배가 고프고 졸도 모르고 달려가 그리운 부인 사임당을 만나 그 간 사연을 말하니 서로 웃음보를 터뜨렸다.

처 외할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수운판관이 되어 충실히 근무하면서 홀로 계신 어머니도 자주 찾아뵙는다고 말씀드리자 참으로 장하다며 앞으로도 잘 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를 충실히 실천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다.

이원수는 석양에 흥정천 개울에 들어가 냉수마찰을 하고 뒷산에 올라가 조상님과 산신에게 자손들이 건강하게 잘 살도록 축원기도를 하고 내려와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과 같이 마주앉아 저녁을 먹었다.

홀로 쓸쓸히 살아가시는 처 외할아버지와 밤새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부인 사임당과 3년 만에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일주일간 이원수는 사랑하는 부인과 회포를 풀고 강릉에 살고 있는 장모와 동서·처제를 만나 3일간 머물다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화주막을 찾아 들어가 주안상을 주문하자 주모가 주안상을 차려오기에 주모에게 지난번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주모의 당돌한 행동의 연유를 묻자 비록 배운 것도 없는 미친한 계집이 주막을 차려 영업을 하고 있으나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니 고객의 용모와 기상을 살필 수 있었는데 그 날 선비의 기상을 보니 안색에 서기가 서려있는 것을 보고 귀한 자식하나 얻어 볼까하는 마음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실을 말하기에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일어나 공손히 예를 올렸다.

주모는 왜 이러시냐며 같이 답례를 하고 나서야 마음이 홀가분하게 되어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4남매를 두고 있는 처지로서 3년 동안 부인과 별거하게 되어 집안기술 생각만 나서 그리하였으니 용서하고 오늘 저녁 한번 재미있게 회포를 풀어보이 어떤가 하고 간청하자 지금은 선비님 몸에서 서기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인 몸에 귀한 옥동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미친한 계집이 몸만 더럽힐까 하옵니다 하고 거절하니 이원수는 술만 연거푸 마시면서 주모가 보통사람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하룻밤을 묵고 한양으로 돌아와 말은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고향 파주 울곡리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만나 뵙고 강릉 백옥포리를 다녀온 사연을 말씀드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울곡선생 잉태와 관련된 이원수공과 대화주막의 전설은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주막 현장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풍수지리학자 박대운선생과 함께 2009년 9월30일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월두마을을 답사하게 되었다.

대화주막은 당시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 위치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는 방림면 방림리에 속하며, 일명 월두月頭·달머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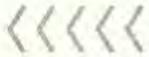
월두리月頭理의 지명은 강 건너 서쪽 구포동龜浦洞(구두미 혹은 구데미라고도 함)의 마을에서 볼 때 달이 대화주막의 뒷산인 월두봉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 주막 있는 동네를 월두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 월두리는 당시 강릉주변 관동지방에서 한양 과거길(강릉-구산역-대관령-진부령-대화-안흥-원주-양근-평구-한양)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한양을 오고 갈 때는 반드시 거쳐 지나 가야 하는 길목에 해당된다.

월두리의 주막위치는 방림4리 박용권 리장의 구술에 의하면 방림삼거리에서 봉평쪽으로 진행하다가 방림4리의 사계절주유소 바로 전 도로에 인접한 공터(뒤편에 밤나무가 있음)가 당시 대화주막이라고 확인해 주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월두리 대화주막의 당시 집터의 주산 내룡맥은 동남쪽 남병산에서 우출맥으로 내려와 반월 모양인 금성체의 주산을 기봉하고 그 내룡맥이 수차례 변화하면서 42번 국도에 접한 월봉맥 주막에 와서 조그마한 집터를 만들면서 멈추게 된 것이다.

안산은 강 건너편 강릉김씨 집성촌인 구두미 마을 뒷산인 탕건봉宕巾峰으로 수려하면서도 빼



어난 기상(奇相)의 봉우(鳳頭)이고 물은 마을 북쪽에 위치한 거사전(居士田)마을에서 내려오는 두 물줄기가 합수(合水)하여 월봉(月峰)댐 주막(酒幕)집을 환포(環抱)하면서 좌측(左側)으로 흐르고 있다.

이원수(李源水)는 일상(일상 홀로 계시는 위대한 남양(南陽)홍씨 어머니를 위로(慰勞)하면서 극진(極盡)히 봉양(奉養)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사임당(사임당이 많은 자식들을 훌륭히 교육(敎育)시키는데 있어 감사(感戴)하며 이는 오직 선조(先祖)님과 산신(山神)령(靈)님께서 보살(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정성(情誠)이 지극(至極)하였다는데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평창 봉평 대화부락 전경



평창 대화 월봉댐 주막이 있던 곳

나도 밤나무의 전설

울곡(楸谷)선생의 6대조 공조(公祖)참의 덕수(德水)이씨 춘당(春堂)공(公) 이 양(李)揚의 묘소(墓所)는 경기도 파주(坡州) 파평(坡平)산에서 서쪽(西)으로 뻗은 내룡(內龍)맥에 좌·우로 청룡(淸龍)과 백호(白虎)가 감싸 안고, 앞에서는 안산(安山)이 잘 둘러싸인 함박(含苞)꽃 만발(滿發)형국(形局)으로 파평(坡平)면 두포(斗浦)리 산10번(山10番)지에 거북(거북이)등 같은 두툼(두툼한 돌혈(突穴)처에 묘좌(묘좌)유향(卯座西向)으로 안장(安葬)되어 있다. 춘당(春堂)공의 묘소(墓所)는 우리(우리)고장(古長)을 비롯(及)하여 전국(全國)에서 찾아(찾아)보(보)기 드문 명당(明堂)으로 알려져 있다.

춘당(春堂)공(公)의 6세손(孫)인 이원수(李源水)는 울곡(楸谷)리 화석(華石)정 아래에서 백운(白雲)산 정기(正氣)를 받고 태어났다. 아버지 천(天)이 24세(歲)에 돌아가시자 앞산(安山)에 안장(安葬)하고 청춘(淸春)과부(과부) 어머니 남양(南陽)홍씨(洪氏)는 3살(歲)짜리 아들 원수(源水)와 함께 살면서 한양(漢陽) 수진(守進)방(房)에 살고 있는 종가(宗家)집 큰아버지 이 총(李)叢과 큰어머니 남양(南陽)홍씨(洪氏)를 의지(依止)하고 한양(漢陽)을 오르내리(來)면서 살게 되었는데, 큰어머니와 어머니는 같은 남양(南陽)홍씨(洪氏)로 친정(親正)의 가까운 인척(姻戚)관계(關係)였다고 한다.

이원수(李源水)의 어머니는 남편(夫)을 잃고 허전(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편(夫) 묘소(墓所)에서 3년(年)간 통곡(痛哭)하면서 아들 원수(源水)의 출세(出世)를 위해 장독(長)대에 정한(正)수를 떠(떠)놓고 매일 밤(夜)마다 100일(日)기도(祈禱)와 백운(白雲)산에 1000일(日) 산신(山神)기도(祈禱)를 올리(올)면서 살아(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中) 이원수(李源水)는 어머니(母)와 농사(農事)를 지으(지)면서 공부(公)부에 열중(熱)하던 중(中) 수진(守進)방(房)의 큰어머니(大) 중

매로 신사임당과 혼인하여 강릉 처갓집에서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이원수는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임당과 10년간 성공할 때까지 별거하기로 약속하고 한양으로 올라와 공부에 집념하던 중 3째 큰아버지가 수운통제사가 되자 음식으로 수운판관에 부임하게 되었다.

한편 사임당의 외할아버지는 강릉에서 살다가 외할머니와 사위 신명화가 세상을 뜨자 마음이 허전하여 평창 백옥포리의 흥정천 개울 옆 언덕위에 별장을 짓고 살게 되었다. 사임당은 외할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백옥포리 별장에서 살면서 강릉을 왕래하였다.

한양으로 간 이원수는 3년이 지나 그리운 부인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휴가를 얻어 한양을 떠나 대화주막을 거쳐 백옥포리에서 처 외할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일주일간 머물다가 강릉 장모님과 동서·처제를 만나고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536년(중종31년)12월26일 인시寅時에 동방의 성현 울곡선생이 탄생하였는데 이는 울곡선생 6대조 춘당공春塘公 산소가 명당정혈에 모셔진 은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얼마 후 이원수는 또 휴가를 얻어 백옥포리를 찾아가자 처 외할아버지와 처제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처제는 반가이 맞이하면서 언니가 강릉에서 옥동자를 낳아 경사 났다고 사랑을 늘어놓았다.



〈흥정천 백옥 주위 풍경〉

백옥포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그리운 부인과 아들을 빨리 보고 싶어 새벽길을 떠나 강릉100리길을 달려 밤늦게 도착하니 장모님과 부인이 반갑게 반겨주었다.

이원수는 부인에게 수고하였다고 치하하고 부인과 아들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두 달을 체류하다 한양으로 오던 중 대화주막을 들러 하루 밤을 쉬게 되었다.

월봉대 주모는 전과 같이 술상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친절히 맞이하며 선비집의 옥동자는 새벽 인시寅時에 태어났을 것이라며 호환虎患이 두려우니 비책을 세우라는 말을 하자 이원수는 깜짝 놀라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며 호환虎患막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산중 도사선생이라며 술한잔 권하며 통사정을 하였다.

주모는 술을 한잔 마시고 이원수에게 술을 권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대성인이 태어났으나 혀를 차며 안타깝다고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으나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주모는 머뭇거리면서 술이나 먹자며 술잔만 왔다 갔다 하니 이원수는 초조한 마음에 가슴이 타올라 별떡 일어나 큰 절을 하자 왜 이리시냐며 같이 맞절을 하고 일어나 호환을 막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알려주었다.

그 방법은 부모가 은덕을 베풀어야 하는데 사람 1,000명에게 공덕을 매일 한 번씩 베풀거나 또 하나는 밤나무 1,000주를 정성껏 심고 길러 신주를 만들도록 하면 호환을 막을 수 있는데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하였다.

이원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밤나무 1,000주를 정성껏 심어 호환을 막겠다고 하룻밤을 자고 숙박료를 후하게 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면서 한양을 둘러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뵙고 강릉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고 잠을 잤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파평산에서 왔다는 산신령이 나타나 밤나무 1,000주를 심어 호환을 막으라는 꿈을 꾸고 일어났다.

다음날 지난밤 꿈 얘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도 나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며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즉시 밤 1,000개를 구하여 묘원을 설치한 후 육묘가 잘 살아 1년이 지나 이원수는 뒷산에 정성들여 밤나무 1,000주를 심어 소중히 관리하게 되었다.

어느덧 현룡의 나이가 6세가 되던 해 강릉에서 사임당이 부모님과 외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한양으로 올라와서 울곡리에 계시는 할머니를 처음 찾아뵙고 큰절을 올리자 우리 손자 참으로 잘 생겼구나 우리집안에 경사났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은덕이라며 기뻐하였다.

이원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임당과 현룡이를 데리고 선대 조상 산소에 참배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집안 대성하고 자손들의 입신양명을 축원하고 돌아오면서 화석정에 앉아 선대조상들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 후 바람망태기를 둘러멘 노승이 나타나서 공손히 합장하기에 모두 일어나 목례하고 스님께서는 어느 절에서 오셨느냐고 묻자 소승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왔다고 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난 후 스님이 하는 말이 저 아이는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인물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고 혀를 차며 사라지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원수에게 스님을 따라가 연유를 물어보라고 하자 쫓아가 연유를 물으니 스님이 머뭇거리며 주저하자 이원수는 합장하면서 간청하니 선심공덕을 오늘부터 매일 한번씩 1,000일간 하던가 불연이면 밤나무 1,000주를 심어 잘 키우면 호환을 막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룡이 9살이 되면 호랑이가 물어갈 것이니 특별히 유념하라고 한 후 사라졌다.

이러한 연유를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밤나무를 정성껏 관리하라고 하시었다.

그날 이후 뒷산에 심은 밤나무 1,000주가 잘 자라고 있는지 매일 세어보며 정성들여 키우게

되었다.

이원수는 현릉이 9세 때쯤 또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올 추석 8월15일 저녁때 노승이 와서 현릉이를 보자고 하거든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밤나무 1,000주를 심어 소중히 길렀다고 하면 밤나무를 확인하자고 할 것이니 명심하라는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께서도 똑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고 이상한 일이라며 밤나무를 매일 매일 세어보고 소중히 관리하고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추석날 저녁때 노승이 나타나서 합장을 하기에 어머니는 시주를 공양미로 후하게 하자 노승은 고맙다고 하면서 현릉이는 어디 있는지 보자고 하자 이원수는 밤나무 1,000주를 키워 적덕 하였다고 대답하자 그럼 밤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세어보자고 하기에 뒷산으로 올라가 노승의 입회하에 밤나무를 세어 보았으나 1,000주에서 1주가 부족한 999주 밖에 없자 노승은 그것보라며 현릉이를 내노라고 하자 이원수는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며 난감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죽어가던 밤나무가 소리치며 “나도 밤나무”라며 생생하게 살아나 밤송이가 늙은 중 이마에 떨어지자 노승은 깜짝 놀라 “아이 따가워 따가워”하면서 세 번 재주를 넘고 큰 호랑이로 변신하여 도망쳤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전설은 부모와 조상에게 효도하고 남에게 공덕을 베풀라는 큰 뜻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현릉이는 커서 호를 울곡粟谷으로 하였고 이 지역에 밤나무가 많다고 하여 지명을 울곡리粟谷리라 호칭하게 되었으며, 식량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전한다.

남양홍씨 순절에 얽힌 전설

옛날 선조때 이의석이라는 사람은 아들 5형제를 한양 수진방에서 길렀는데 그 중 4째 아들 천歲은 남양홍씨와 결혼하여 서울에서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고향인 파주 울곡리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백운산 동북백내령 우백호가 둘러쌓이고 서북백 내령 청룡이 휘감아 화석정 아래 골짜기 안마을에 마치 큰 용과 대호가 앉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동편 뒷산을 걸머지고 서향 백운산을 바라보는 이 지역 선조께서 물려받은 전답을 열심히 경작하며 재미있게 살아왔다. 1년만에 옥동자(이원수)를 낳아 화석정을 관리하며 오손도손 잘살게 되니 신선 부럽지 않게 살던 중, 결혼한 지 3년째인 24세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신한고난 병이 들어 세상을 뜨니 부인 홍씨는 땅을 치며 이제 3살 난 아들을 두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나며 슬픔에 잠겨 죽을등살등 정신없이 집 뒷산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 때부터 아침저녁으로 산소에 올라가 눈물로 3년간 세월을 지내고 아들 이원수를 소중히 키우며 자손들이나 잘되게 하여달라고 장독대에 밤중 정한수를 떠다놓고 발원기도를 하였으며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 백운산 마루 아래에서 오밤중 아무도 몰래 자손들을 위해 1000일간 눈물로 기도 호소하면서 마음을 달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들 이원수는 10살이 넘어 공부에 열중하며 어머니와 같이 농사를 경영하면서 한양 수진방 큰댁을 오르내리며 살았는데 큰어머니도 남양홍씨 어머니와 가까운 친정일가로 22세 당시 수진방 이웃에 사는 신명화의 어머니 또한 남양홍씨로 신사임당과 중매 강릉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양홍씨는 아들 이원수가 수운판관이란 벼슬길에 올라 아들 딸 7남매를 잘 키우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모두 조상님의 은덕이요 산신령님의 보살핌이라 생각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하며 자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여생을 보내다 청춘과부 36년 동안을 순절하고 60세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거룩한 어머니, 용감한 어머니시다. 우리나라 유학에 기호학과 거두 율곡선생이 탄생하게 된 것은 오직 남양홍씨의 숭고한 순절과 정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유학자 율곡리 백임서 임성빈 제보)



이천과 남양 홍씨 묘

열녀 곡산노씨烈女 谷山盧氏와 도장의 전설

율곡선생은 이조판서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날 줄 이미 예측하고 10만 대군을 양성하자고 조정에 건의하였으나 영의정 유성룡 등 중신들은 안정된 현 시국에 군대를 양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하자 율곡선생은 국운을 원망 한탄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화석정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제자들에게 들기름 한종지씩 가져오라고 하여 화석정 마루, 기둥, 석가래에 기름칠을 하게 하였으나 이를 누구 한 사람도 영문을 모르고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당시 4월 그믐밤 선조대왕이 의주로 몽진할 때 칠혹같은 폭풍우속에서 화석정에 도승지 이항복이 불을 살라 간신히 임진강을 도강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율곡선생은 1584년 1월 16일 인시 49세에 돌아가시었다. 가시기 10일 전 부인 곡산노씨와 같이 자면서 나는 아무날 죽을 것이며 8년후 임진왜란이 날것이라며 아무쪼록 가솔을 잘 보살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부인 곡산노씨는 그러면 난리가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냐고 물으니 우계 성혼선생에게 가서 구원을 해보라 하니 만약 반대하면은 어떻게 하나고 하자 그러면 권율장군에게 가서 부탁을 하라고 하였다. 그도 거절을 한다면 내 곁으로 오시오 하고 돌아가시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선조대왕宣祖大王은 율곡이 죽었다는 부음을 듣자 슬피울면서 어진재상이 서거하니 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사흘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으며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느라 내 몸을 아끼지 않았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에는 귀신도 감동하였네. 어지러운 세상을 그대와 함께 구제하려 하였는데 하늘이 나에게 인재를 주시고 어찌 이토록 빨리 빼앗아 가는가”하고 탄식하며 제문祭文을 지어 예조에게 보내면서 묘는 선영위 넓은 언덕에 예장하라고 교시하였다고 전해지며 백성들도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를 지내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세월은 흘러 선조 25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대왕이 의주로 몽진하는 어수선한 시기에 곡산 노씨는 남편 율곡의 유언대로 구원을 우계성혼과 권율장군에게 요청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할 수 없이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자운산 선영으로 13살된 몸종과 같이 당도하자 왜군들이 몰려왔다. 몸종은 아래 마을 뒤 나무가리에 내려가서 숨어라 당부하고 신주를 묘소앞에 묻자 왜군들이 겁탈하려하니 비수를 꺼내 들고 이놈들아 왜 우리나라를 침범하느냐고 욕을 퍼붓고 침을 뱉으면서 율곡선생 묘 용미에서 배를 찢러 5월 12일 순절했다. 왜군들이 몰려간 후 이를 나무가리에 숨어있던 몸종이 보고 동네사람들에게 말하여 동네사람들은 산에 올라 용미에 붙어 죽은 시체를 그대로 덮어놓고 자그마하게 분묘를 만들었다. 이를 조정에서 알게되어 선조 35년 곡산노씨 열녀정여가 내려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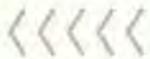
1973년 7월 10일 율곡선생묘가 경기도 기념물 제14호로 책정되자 용미에 곡산노씨의 묘를 380여년이 지나 용미 위로 이장 복원하게 되었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자운서원 입구에 곡산



율곡 이이와 곡산 노씨 묘 전경
(원 부분이 당초 곡산 노씨 묘 위치)



이원수와 죽곡 이선 묘 전경



노씨 정여 홍살문을 건립 여러 사람들에게 열녀의 정신을 계도하였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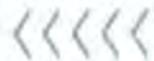
죽곡 이선竹谷 李璿묘가 도장倒葬 또는 역장逆葬된 것은 이원수가 돌아가실 때 자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죽곡은 7남매중 맏아들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으나 몸이 약하니 걱정이라며 네가 죽으면 나의 용미에 묘를 쓰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었다 한다. 울곡선생은 죽곡형님이 47세에 돌아가시자 유언에 따라 용미에 묘자리를 잡아 안장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죽곡자손들이 파주지역 울곡리를 위시 50여세대가 살고 있으며 울곡선생 자손은 해주석담에서 월남한 이재능의 아들 이천용씨가 묘하에 살고 있어 선영산소 관리수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역에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후손 이재능과 금곡리 유학자 장철 노봉현 제보)

거룩한 의성 허준선생의 얼

月峯 閔 泰 昇

가락국 김수로왕金首露王은 본관이 김해이나 부인 허황옥許璜玉은 아유타국(인도)의 공주로 우리나라 창원군 웅동면 김해 앞바다로 입국하니 맞이하여 왕후로 삼았다. 아들 10명중 둘째아들을 허씨許氏로 사성賜姓후 837년 탄생한 허선문許宣文이 견훤을 선멸한 큰 공을 세워 고려 태조는 삼한공신 파암촌주三韓功臣 巴岩村主로 봉하고 양천을 식읍食邑으로 하사하니 본관을 양천陽川으로 하고 제1세로 하였다.

19세손 종성부사 허론許礪은 초배 해평윤씨 사이에 장자 허 옥沃과 두 딸을 두었고 소실 밀양손씨 사이에서 차자 허준許浚 3남 허미許澁를 두었다. 허준의 자字는 청원淸源이고 호는 구암龜岩으로 1539년 3월 5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양천군 공암동)에서 출생하였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청렴결백하여 재능이 뛰어나 신동으로 널리 알려졌다. 학업에 매진하는 한편 의술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신음하는 환자를 돌보며 의술을 연구하던 중 한양 사직동에 사는 사헌부장령 유희춘柳希春 후원으로 의원 양예수 이공기와 연결을 하게되니 더욱 의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1573년 11월 2일 첨정의 제수된 후 1574년 외과시에 장원급제 내의원에 들어가 1575년 2월 어의로서 명나라 안광익과 함께 임금병을 입진후에 완치시켰다. 1591년 1월 4일 당산관으로 승진되었으나 사간원의 반대로 당산관가자를 회수당했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되어 어가를 호종하였다. 4월 그믐날 밤 임진강을 건너가자 갑자기 어머니 병환으로 부인 안동김씨와 동생 허미, 아들 허겸을 뒤에 두고 뒤쫓아오는 왜군으로 말미암아 송도를 거쳐 평양에 머무르고 8월 30일 선조대왕과 의주로 몽진하게 되었다. 선생은 어의로 책임이 막중하니 가솔을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1595년 10월 선조대왕과 함께 신지강(임진강) 나루를 건너 한양으로 환도하는 길에 선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하포리 선영아래 안장하였다. 은신하다가 3년만에 부인과 동생 아들을 같이 만나 그리운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어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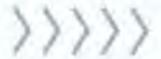


서 더욱 책임을 다하니 1596년 1월 양예수와 함께 입진효과를 얻어 왕께서 호피(虎皮)를 내리셨다. 1597년 선조명을 받아 유의(儒醫)정작과 양예수 김응탁 등이 내의원에 편집국을 설치 동의보감을 편집하기 시작하였으나 정유재란(丁酉再亂)으로 중단되었다. 1600년 12월 왕자 투창을 완치시켜 당산관에 가좌 승진되었으며 선생 단독으로 동의보감을 완성하라는 명을 받아 편집하는 한편 1604년 호종공신3등으로 책봉되었다. 1606년 양평군에 보국승록대부로 승진되었으나 중인출신이라는 구실로 대관들이 반대하여 보류되었다. 1608년 선조대왕이 승하하니 내의원책임을 맡아 의주로 유배되었으나 광해군 명으로 사면한 후 동의보감을 완성하라는 명을 받고 1610년 25권 25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1615년 8월 17일 77세로 강서구 공암동 자택에서 돌아가시니 승록보국대부로 추증되었고 묘소는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산129번지 광암동 손좌 안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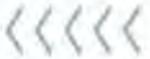
선생의 묘소는 병자호란, 일제치하, 6.25동란으로 인해 임진이북 출입통제 등으로 실전되었으나 (1615년 광해군 7년 8월 17일 돌아가심) 377년만인 1991년 족보에 명시된 묘소를 보고 자손들과 의성허준사업회 임원들이 같이 찾아 복원 성역화사업을 하였다. 선생이 편찬한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동재된(2009. 7. 31)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서로 이를 토대로 한의학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의료연구에 귀감이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영광이라 하겠다.

의성 허 준(醫聖 許 浚) 선생 연표

년도	월일	연령	조선조	중요 실 천 내 용
1535			중종 30년	허 론(許 礪)은 부안(扶安)현감당시 소실 밀양손씨와 결혼함
1537			중종 32년	허 론은 어머니 진주유씨 별세하자 양친 공암 고향으로 밀양손씨와 같이 귀향함
1539	3. 5	1	중종 34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양천공암동)에서 밀양손씨 사이에서 허준 출생. 사서삼경 역술학문에 주력하면서 의학에 관심을 기울여 공부하였다
1563	4. 1	25	명종 18년	안동김씨(安東金氏)와 결혼함
1566	10.1	28	명종 21년	아들 장남 허 겸(許謙) 출생함. 11월 아버지 허 론 별세하다
1568	1.29	30	선조 1년	사헌부 장령사직동 유희춘(柳希春)을 만나 의원 양예수 이공기를 소개 자주 만나다
1569	6. 3	31	선조 2년	유희춘은 궁궐내의원에 천거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조판서에게 보냄.
1570	5. 7	32	선조 3년	유희춘 부인 먹는 오수유환(吳茱萸丸)을 유희춘과 상의하다
1571	11.7	33	선조 4년	전라도의 우황을 내의원에게 받았다고 유희춘을 만나 토의하다. 내의원 첨정(僉正)에 부임하다
1572	12.5	34	선조 5년	권득경(權得卿)과 같이 유희춘을 만나 술을 대접하다
1573	7. 5	35	선조 6년	유희춘 녹용작말(鹿茸作末)을 해달라고 부탁하니 조제해 바치었다. 내의정(中3품)에 승진하다
1574	3.26	36	선조 7년	유희춘 증손자 유광용 병을 진찰 치료하다. 의과시에 응시 장원급제하다



년도	월일	연령	조선조	중요 실천 내용
1575	2.15	37	선조 8년	내의원에 발탁 명의 안광익(安光翼)이 함께 진맥 어전의 공적을 쌓으면서 의술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1577	5.15	39	선조10년	예조참판 유희춘 별세하다
1581	8. 1	43	선조14년	내의원 첨정으로 왕명으로 찬도방론 맥결집성을 발취 교정함
1587	12.9	49	선조20년	왕께서 어진을 정성껏 치료 완치한 공으로 녹피(鹿皮)를 하사하다
1590	12.25	52	선조23년	왕자병을 완치하자 공을 가자(加資)를 특명 요청하니 불허하다
1591	1.4	53	선조24년	사헌부는 공의가자를 개정요청하고 사간원은 당산관 가자 환수 요청하다. 4월 아들 허 검 청구한씨와 결혼함
1592	4.14	54	선조25년	임진왜란 발발 임진강을 건너 송도 평양 의주 몽진을 호종하다. 어머니 밀양손씨 별세 하포리 안장하다
1595	1.13	57	선조28년	왕은 편방에서 공을 접견 진맥하고 10월 선조대왕 임진강변에서 통곡하고 서울 환도하는데 어가 호종하다
1596	5.11	58	선조29년	의서를 창집하라는 왕명을 받고 편집을 시작하다
1597	10. 1	59	선조30년	왜군들의 정유재란으로 의관들이 분산하니 편찬작업 중단한후 단독으로 편찬하라는 특명이 내려지다
1600	12.1	62	선조33년	수의(首醫)양례수가 사망하자 수의가 되고 지중추부사로 승진하다
1604	6.25	66	선조37년	충근정랑 호종공신3등의 추서와 양평군(陽平君)에 봉하다
1605	9.17	67	선조38년	사간원에서 허준을 탄핵하다
1606	1. 3	68	선조39년	사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고 사간원의 반대로 보국의 작위만을 보유하다
1607	11. 1	69	선조40년	어의 허 준의 죄를 논하여 파직을 요청하다. 언해구급방을 간행함
1608	1.1	70	선조41년	언해태산집요와 언해두창집요를 개간, 2월 1일 선조대왕 승하하다. 대간들의 탄핵으로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11월 22일 귀양을 풀어주라 하였다.
1609	11.22	71	광해군1년	허준 의주 유배를 석방토록 광해군은 전교하다
1610	8. 6	72	광해군2년	동의보감 완성함에 따라 허준에게 말을 하사하고 간행할 것을 왕은 명하다
1611	1. 1	73	광해군3년	발간된 동의보감을 내의원에 설국 활자로 인쇄하도록 왕은 명령하다
1612	11. 1	74	광해군4년	찬도방론 맥결집을 내의원이 교정 개간함
1613	11. 1	75	광해군5년	동의보감 목판본 활자체로 인쇄완료 25권 25책으로 간행하고 12월에 신찬벽은방과 벽역신방이 간행하다
1615	8. 17	77	광해군7년	선생은 자손에게 내가 죽으면 어머니앞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강서구 공암자택에서 돌아가시자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산129에 안장하다
1991	9.			9월을 허준에 대한 문화의 달로 정부가 선포
1992	5.23			허준 기념사업회가 창립, 구암학회 창설, 공암동 공원유치 동산건립 등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2	6. 5			허 준 동상 경기도기념물 128호로 지정함



※ 양천허씨 명인 출신 명세표

- 허 재(載) 고려 인종때 지문화성사 문화평장사, 호부상서 겸 교대위역임
- 허 홍(洪) 고려 원종때 1280년 참문학사 세자보 첨지중찬경지공학역임
- 허 종(琮) 1481년 북벌도원수로 여진족을 격파 우의정 청백리 록선
- 허 침(琛) 1502년(연산군8)이조판서 1504년 좌의정 청백리 록선
- 허 진(璡) 1604년(선조37년)이조판서 1606년 좌의정 청백리 록선
- 허 균(筠) 1617년(광해9)폐모론을 주장 좌찬성을 거쳐 홍길동전 편찬
- 허 적(積) 1671년(현종12년)영의정을 거쳐 궐장을 받고 기로소 입소
- 허 목(穆) 삼척부사를 거쳐 숙종때 이조판서 우의정을 역임하고 문장 뛰어난

안중근 도마의 심금을 새겨본다

심 준 우 (회원)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공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직접 보면서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서기 2009년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우리 온 국민이 존경하는 세종대왕 동상을 모셨다. 생각만 해도 기쁨을 샘솟게 해주는 세종대왕! 새로 단장된 광화문 긴 광장에 대왕의 의젓하고 존경스러운 그 모습에 온 국민들이 어린이 엄마 학생 젊은이 노인들이 인사를 올리는 분위기가 참으로 좋아 보였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주인공의 이야기는 지난 2009년 10월 26일 100주년의 의거일을 맞는 안중근(1879~1910년. 조선말기의 교육가, 의병장, 순국 의사, 본관 순흥(順興)이다. 청년 18세 때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 성당에서 도마(多默)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선교사 윌헬름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은 천주교 1895년 입교한 신자이야기이다. 아버지는 10살도 안되어 사서삼경을 통달한 신동으로 황해도 일대에 이름난 안태운 씨다. 아버지는 높은 학구열 덕분에 일찌감치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복음전파에 앞장서 많은 사람을 천주교로 받아들이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의감이 남달리 대단한 분으로 어린 응칠(안중근의 어릴 때의 아명(兒名))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다. 또한 응칠이는 선교에 열심이었다고 한다. 응칠이는 프랑스 선교사 윌헬름(J. willhelm, 한국명 洪錫九 요셉) 신부와 같이 여러 곳의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한다.

언제 들어도 싫지 않은 심금을 올리는 그의 복음연설문!

연설문 소개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형제들이여, 할 말이 있으니 꼭 내말을 들어주소. 만일 혼자서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또 재능을 간직하고서도 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과연 동포의 정리情理라고 할 수 있겠소?”

지금 내게 별미가 있고, 기이한 재주가 있는데, 그 음식은 한 번 먹기만 하면 장생불사하는 것이요, 또 이 재주를 한 번 통하기만 하면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이요. 동포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오…….”

그에게는 나라사랑과 하느님사랑이 하나였다. 몽매한 국민들이 글을 알아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고, 천주교 교리도 빨리 습득할 수 있다며 1906년에는 가산을 정리하여 ‘삼흥三興학교’, ‘돈의敎義학교’ 등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후에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이등방문)를 태운 특별열차가 하일빈에 도착, 회담을 마치고 차에서 내려 러시아 장교단을 사열하고 환영군중들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안중근 도마는 권총을 발사하여 이토에게 3발을 명중시켰다.

그 후에 교회에서는 그가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몹시 냉담했다. 심지어 여순감옥에서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고자 요청했을 때도 주교님은 허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행히도 영세 신부인 홍석구 요셉신부가 담대하게 감옥을 찾아가 성사를 해주었으니, 이승길 떠나는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가 목숨을 걸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인한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잘못을 각성하기 위한 것이며,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교회가 늦게나마 그의 정신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별히 금년에는 안중근 도마의 동상도 세우고, 무명지가 잘린 그분 손바닥 도장을 시민들의 손도장으로 가득 채우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념행사로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의거 100주년을 맞는 해에 한국·중국·일본 천주교 신자들이 그분을 위해 묵주기도 100만 단 바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갇혔던 여순감옥 관할인 중국 다롄大連의 한인 본당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 오타시太田市 본당이 참여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봉헌을 받는 이 운동은 순국일인 2010년 3월 26일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 기쁘게 참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참여합니다.

4월의 독립운동가

독립군 양성에 앞장선 임시정부 요인

윤기섭

尹琦燮 1887.4.4 ~ 1959.2.27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1909년 보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선생은 교육사업을 통한 국권 회복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글
"배워야 산다"
- 사는 것이 힘이다 -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교사로 봉직하면서 애국계몽 서적을 활용하여 후학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였다.

그 무렵 선생은 한말 애국계몽 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결사체인 신민회에 가입하여

신민회



민중계몽 연설회에서 대중을 감동시키는 명연사로 활약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후 오산학교 설립자인 이승훈선생이 구속되어 학교가 어렵게 되자 선생은 서간도로 망명하여 한인자치 기관 '경학사'를 설립하고 신흥무관학교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10년 동안 신흥무관학교의 학감 및 교장으로 수많은 군사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1920년 서간도 의원으로 선출된 선생은 '군사양성을 통한 독립전쟁 수행'을 주장하며 임시정부 내에서 독립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켜 청산리 전투 등 간도지역에서의 독립전쟁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26년 12월부터 1943년까지 임시정부 국무원 및 군무장 등으로 활약한 선생은 독립운동정당 통합운동에도 참여하여 1935년 남경에서 민족혁명당이 창당되자 당본부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선생은 그 후 1942년 임시정부 삼일절기념 준비위원회 주석, 임시정부 외교연구위원, 생활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선임되어 왕성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항일운동에 투신한 지 약 40년 만인 1945년 8월 15일, 중경에서 감격의 해방을 맞이하였다.



1946년 4월,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와 민족혁명당 등에서 활동을 계속하던 선생은 한국전쟁 당시 임정요인들과 남북되어 향년 73세로 서거하였다.



1989년 정부에서는 평생 동안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8월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의 제일선에 서다

박찬익



朴贊翊 1884.1.2~ 1949.3.9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1910년 공업전습소(현 서울공고) 졸업 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로 망명하여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에 참여하고 1919년 2월 '대한독립의군부' 창설에도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1일, 대종교 교주 김교현을 비롯, 김동삼·김좌진·박은식·안창호 등 39명이 집결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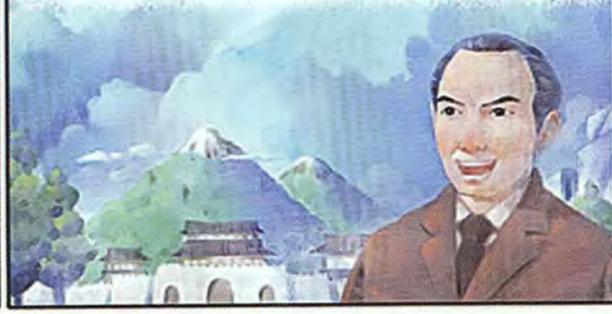
해방 후 '주화대표단' 단장으로 임시정부와 동포들의 안전한 한국을 돕는 등 교포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헌신하였다.



1932년 운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의 안전한 이동과 1940년 광복군 창설에 이바지하였으며, 김구 선생과 국민당 장개석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중공정부와의 외교교섭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1948년 초 김구 선생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만류코자 급히 귀국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1949년 3월 9일 타계하였다.



5月

2009 이달의 문화인물

심상각

우산 심상각(又山 沈相格) 1888 ~ 1954

경기도 파주 출신, 본관은 청송(靑松), 호는 우산(又山).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생가와 묘소가 있으며, 오늘날 파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추앙받고 있다.

1919년 3월 파주에서 펼쳐진 대규모 만세운동을 주도했는데 3월 27일 2천명의 시위군중이 광탄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후 조리를 봉일천리 공릉장터로 행진하여 그곳에 있던 1천여 시위군중과 합세, 봉일천 현병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벌였다.

파주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상해농업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신교육을 받으면서 당시 파주출신으로 상해임시정부 내무부 장관인 박찬익 선생의 협조로 임시정부에 참여,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이듬해인 1920년 임시정부의 법무장관인 신규식 선생이 조직한 동제시에 가입, 상해 일원에서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약 10년간의 임시정부 활동을 마감하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고향인 파주시 광탄면에 광탄보통학교(廣灘普通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하여 후진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전념하였다.

그 후 선생은 자신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위한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애국선열들의 선양사업에 노력하다가 1954년 11월 9일 향년 66세를 일기로 사망 하였다. 선생의 공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으며,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 하였다.

시 ... 초등 운문 장원

청암 초 6/6 배경서

행복의 편지

집 앞 빨간 우체통
편지를 한가득 담고 있어요

편지를 꺼내주면
와아, 살 것 같다
하면서도 또 다시
빠알간 입을 벌리고 배고파해요

우체부가 올 때면
함박웃음을 짓지요

내 친구 영희가 편지를 보내면
우체통이 먼저 읽지요

새하얀 편지지
파아란 편지지
초록색 편지지
우체통이 전해 준 편지를 읽을 때마다
웃음꽃이 활짝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정을 나눠주고
눈물도 나눠주고

편지는 참 고마워요
웃음을 가져다주거든요

편지는 참 좋아요
친구의 슬픔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산문 ... 초등 산문 장원

동패초 4/2 박 세 은

말 보다 진한 감동, 내 마음의 편지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말을 편하게 쉽게 쓸 수 있어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사할 때도 말을 사용한다.

따뜻한 말 한 마디도 큰 기쁨을 주지만 더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편지이다. 그래서 표현하기 힘 든 말이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편지를 쓰게 된다.

내가 처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였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삐뚤삐뚤 서툰 글씨에 두 줄짜리 편지였지만 그 편지를 읽으신 엄마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나를 껴안아주셨다. 어린 마음에 잘 몰랐지만 엄마가 기뻐하시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학교에 들어가서 국어시간에 편지글이나 편지 쓰는 법을 배우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글보다는 말이 편하니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만 하게 되고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만 편지를 쓰게 된다. 친구들과도 말로 하기 곤란하거나 특별한 마음을 전할 때만 편지를 써 온 것 같다.

요즘에는 통신이 발달하면서 컴퓨터로 글을 쓰는 일이 많아졌다. 개인 홈페이지로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자주 하게 된다. 그런데 컴퓨터는 멋진 말을 써도 감정이 실리거나 잘 표현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좋지가 않다. 자신의 글씨로 정성껏 쓴 편지는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다. '넌 참 나쁜 아이야' '네가 싫어' '이제는 어랑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편지를 받으면 더 큰 상처를 받지만, 좋은 글로 칭찬하거나 격려해준다면 무척 행복해질 것이다.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다. 우리 학교는 학교가 작아서 초등학교에 와서도 몇 번을 같은 반이 되어 친하게 지냈다. 그 친구가 작년 겨울 필리핀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때 나는 무척 아쉬웠다. 학교생활에 점점 바빠지며 친구를 깜빡 잊고 있었는데 여름방학 때 그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동안 있었던 일, 그냥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지만 읽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와 있었던 추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너는 참 좋은 친구였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내가 무심했던 게 너무 미안했고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다.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받을 때의 기쁨이 두 배가 되고 그래서 편지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

요즘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지만 아직도 낮에는 더워서 학교에서 힘내라고 엄마가 직접 담은 매실 음료를 얼려서 싸준다. 얼마 전에는 가방에서 꺼내는데 병에 짧은 편지가 붙어있었다. '학교생활은 재밌니? 답지만 매실 마시고 힘내라. 엄마에게 너는 소중한고 예쁜 딸이야. 사랑한다.' 말로도 할 수 있는 애긴데 엄마가 직접 쓴 글을 읽으며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그 때 나에게는 가족에 대한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 편지는 내 생활에 큰 에너지가 되었다.

추사 김정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가족과 지인들과 편지글을 자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옛날 사람들도 생활하면서 편지를 즐겨 썼던 것 같다. 편한 것만 찾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꼭 배워야할 점인 것 같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주 편지를 쓰며 마음을 나눈다면 세상은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밝고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시 ... 중등 운문 장원

광탄중 1/4 최현주

열 네 살의 아버지

창고 깊숙이 있던
조그맣고 낡은 상자

수북한 편지 속
유난히 붉은 편지봉투

보내고 싶지만
주지 못 한 듯
손때만 묻은 편지

편지의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

고백하지 못 한
사춘기 소년 아버지

열 네 살의 아버지 속에
열 네 살의 내 모습



산문 ... 중등 산문 장원

금촌중 1/10 유승현

신사임당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녀는 바로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은 1504년에 태어나셨다. 19세에 덕수 이씨인 원수와 결혼했다.

사임당의 뛰어난 예술가로서의 재능은 아직 어린 나이인 7세부터 나타났다. 사임당은 매화, 난초, 산수화 등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미술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사임당은 현대사회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예술가로서의 모습만은 아니라 율곡 선생을 훌륭하게 키워낸 특별한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자하면서도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신사임당식의 교육은 아들과 딸을 모두 훌륭한 학자와 예술가로 키워냈다.

신사임당은 율곡에게 '글을 읽을 때는 뜻을 성인에 두고, 벼슬을 할 때는 마음을 임금과 나라에 두라'고 가르쳤다. 율곡의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에서 이 가르침이 핵심을 이루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신사임당이 새로운 오만 원 권 지폐속의 인물로 정해졌다. 율곡은 오천 원 권이다. 이렇게 모자가 함께 지폐 속의 인물로 정해졌다는 것은 모두가 본받을 만큼 두 분이 훌륭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훌륭한 자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았다. 일단 자식이 잘 자라려면 부모의 훌륭한 인성과 능력, 그리고 제대로 갖춰진 집안이라 생각된다. 물론 현대생활은 양반이나 천민 같은 신분구별이 없어 당시의 사회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조선시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루 갖춘 조선시대의, 아니 현대인들도 본받아야 할 훌륭한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신사임당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신사임당은 7남매를 거느리면서 자녀들에게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였고, 평등에 대한 인식과 좋은 습관을 갖도록 가르쳤다.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법이나 대화할 때 목소리의 크기, 바른 몸가짐이나 걸음걸이 등도 가르쳤다. 또한 신사임당의 교육에는 남녀차별이나 회초리도 없었고, 다른 일 때문에 생긴 화를 자녀들에게 풀지도 않았다고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한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는 이름과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이다. 율곡문화제를 맞아, 이 글을 쓰면서 지금까지 내가 해 온 일들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무척 기쁘다.

시 ... 고등 운문 장원

문산여자고등학교 1/6 박소연

감춰진 눈물

햇별이 뜨거운 날
일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려주는
큰 밀짚모자

아버지의 까맣게 탄
살을 보며
나의 희기만 한 살을 감춘다

그리고 얼굴을 감춘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들키지 않도록
작은 모자로 눈물을 가린다

나의 큰 슬픔을 가리기엔
너무도 작은 모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눈물

반짝이는 햇살을
그 안에 담아
내 마음 속 따스함을 전한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
내 머리 위 따스함을 전한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나의 마음은 왜 이리
차갑고 슬픈지
모자에 가려지지 않은
기나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산문 ... 고등 산문 장원

파주공업고등학교 1/1 심해정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싶다

옛날에는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없던 옛날, 종이도 흔하지 않아 대나무에 편지를 썼다고 한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하피첩'이라고 해서 부인의 치마에 글을 적어 안부를 전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어지럽고 삭막해서인지 종이도 흔하고 배달이 쉬운데도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고 편리하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니, 정성을 담아 편지를 쓰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예전에는 나도 편지를 많이 썼다. 친한 친구와 다투었을 때 괜한 자존심 때문에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 한 통의 정성 어린 편지는 그런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부모님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면 특별한 선물이 없어도 정말 행복해하셨다. 이렇게 편지는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였는데 어느새 사라져가고 있어 무척 아쉽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이 들어간 편지에는 비길 수 없을 것 같다. 정성스러운 글씨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는 소중한 인연을 지켜주는 소중한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 돈독히 해준다.

어느 새 쌀쌀한 가을이 왔다. 이 가을에 경기가 안 좋다고,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한겨울처럼 얼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감사의 편지도 좋고, 사과의 편지도 좋고,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도 좋다. 가을이 가기 전에 펜과 종이를 들고 편지를 써 보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가슴이 금세 따뜻해 질 것이다. 낙엽이 떨어지고 온통 가을빛인 지금, 마음이 담긴 편지를 나도 써야겠다.



시 ... 일반 운문 장원

조리음 오은희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땅의 선한 기운이
너에게서 용솟음치기를
너를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생애 즐거움을 주더니
큰 울음소리
세상에 외치며 태어난
귀한 보배

네 발로 기어 다니며
먼지 쓸고 다니다
교질교질 때 묻은 옷
어느새 다리 잡고 일어서서
아무거나 손에 잡고 입으로 가져가네

아장아장 한 발 한 발
불안 불안 웃음소리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눈물 콧물 울어대도
잡아줄까 말까
할 수 있어 일어나 봐
말하기가 무섭게 일어나며 웃음 짓는
넌 정말 대단했어

가나다라 1234 ABCD
가르치면 그대로 얼마나 잘 하는지
천재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고모까지
만족하며 박수 치고 안아주며 뽀뽀하고 격려하네

운동장에
가방 메고 의젓하게 줄 서 있는
너를 보며 눈물짓다
받아쓰기 백점 받아 감격하며 큰 박수
30점 받아, 그래도 잘했어
어제일 같이 지나간 7년 세월
이제는 중학생 되어
몸 자라듯 생각도 자라나
더 큰 기쁨 선물하는
이 땅, 이 나라 밝게 빛낼 귀한 보배
큰 아들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산문 ... 일반 산문 장원

교하읍 김영란

한번만 만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엄마께

가을 햇살을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답게 느낀 적이 언제였을까? 아침부터 엄마 손녀가 율곡문화제 가차고 해서 점심때쯤 도착하니 전통혼례를 하고 있네요. 새삼 15년 전 엄마 없이 나 혼자 준비하고 화장 지워질까봐 꼭꼭 눈물을 참았던 그 때 생각이 나네요. 연습 없이 살아온 삶 속에서 어느새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오늘따라 어디선가 엄마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아 그리워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언제나 저를 보고 계신 건가요?

엄마를 그 먼 곳으로 떠나보낸 25년 전 가을은 지독히도 슬픈 시간이었지요. 스물한 살 대학 3학년 졸업하려면 1년도 더 남았는데, 서울로 유학 온 나로서는 당장의 물질적 어려움보다는 그리움이 더욱 컸어요. 누가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펄펄 쏟아졌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미네요.

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육남매를 남겨두고 떠나신 아버지, 당시 40대 초반이었을 엄마는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살아야했고, 막내인 나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신경을 쓰셨던 엄마. 지금의 제 딸이 언젠가는 있을 나와의 영원한 이별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조차 하지 않고 저렇게 뛰어다니듯 저 역시도 엄마와 헤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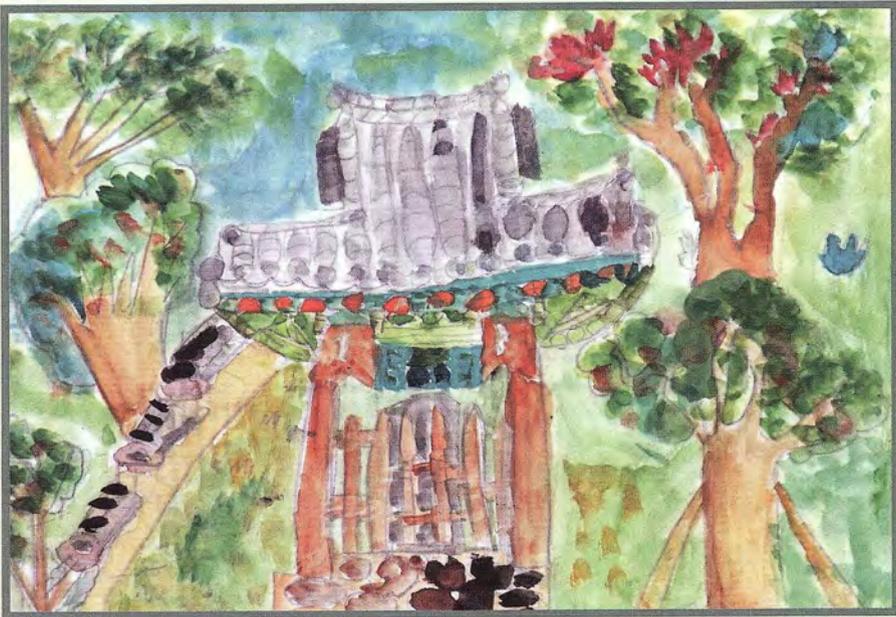
커다란 옷 보따리를 이고 다니시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저 일만 하시던 엄마, 당신 몸속에 암이 다 퍼진 것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훌쩍 가버리신 엄마. 몇 년 동안 엄마께 말 함부로 한 것, 짜증낸 일 다 후회해보았지만 목소리도 모습도 영원히 볼 수 없었어요.

졸업을 하고 늘 쓸쓸했던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는 엄마처럼 40대 주부로 변했지만 성실한 엄마의 경상도 사위 김서방과 착한 아들, 친구 같은 딸이 있어 덜 외롭고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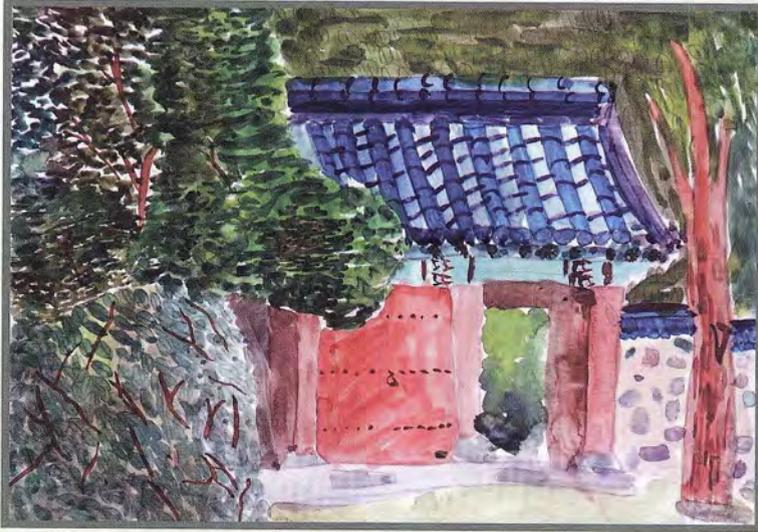
어른이 되어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 세월의 흔적을 돌이켜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요. 나뭇잎이 각기 다른 색깔로 옷을 갈아입듯 엄마가 보여주신 삶은 진실로 나의 멘토가 되셨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에서나마 엄마를 이제라도 한 번만 만나 본다면 꼭 끌어안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를 낳아 주시고 나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던 여행도 같이 가고 동태국도 끓여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넌신 당신이 때로는 너무 그리워 심장이 아픕니다.

이 가을의 겸허함과 높은 하늘이 저의 그렇그런한 눈물을 말립니다. 그래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있어요. 사랑합니다.



초저부 금상
금신초 홍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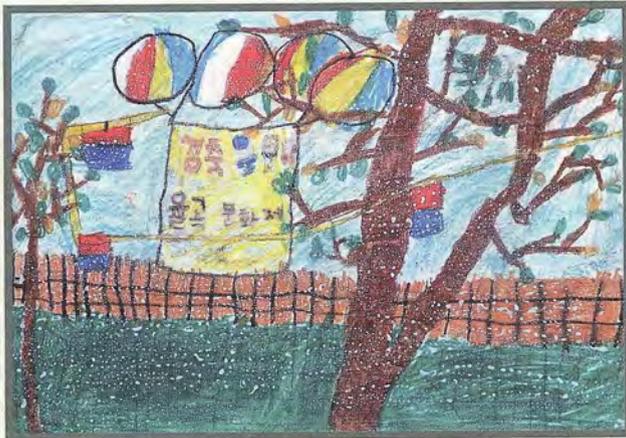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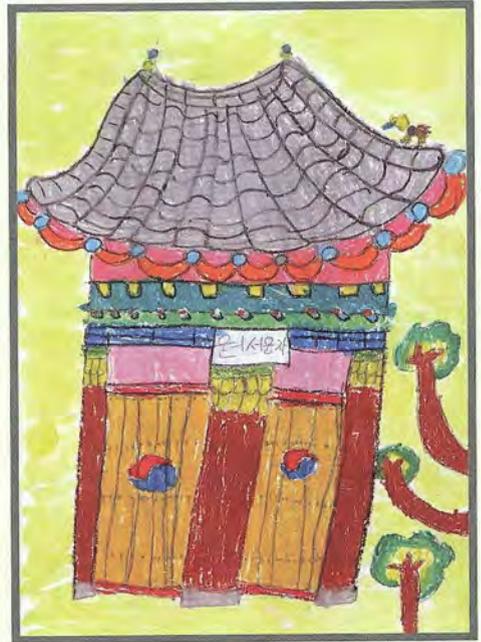


초저부 은상
봉일천초 임현서



초저부 은상
봉일천초 경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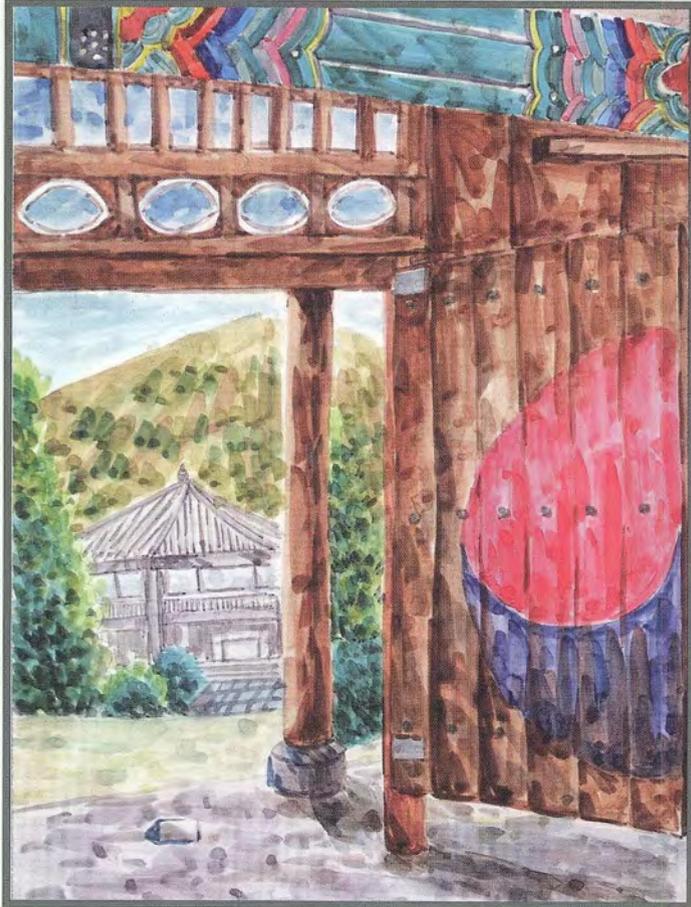
초저부 동상
석곶초 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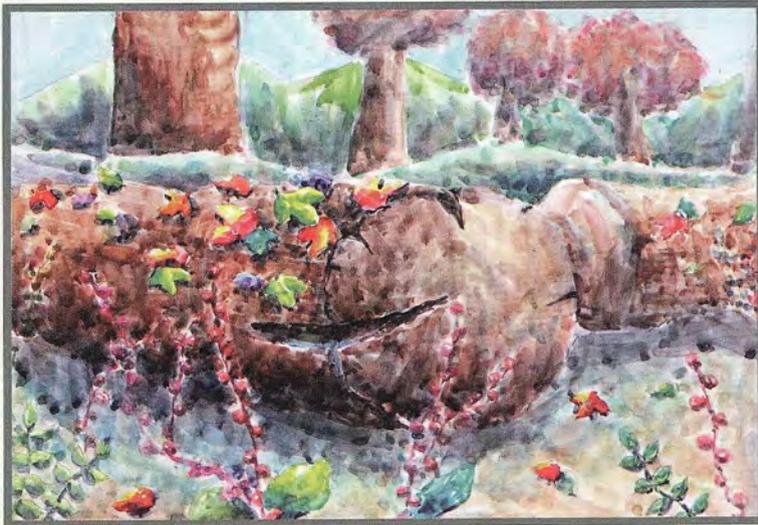
초저부 동상
금화초 김찬호



초저부 동상
와동초 김다현



초고부 금상
송화초 안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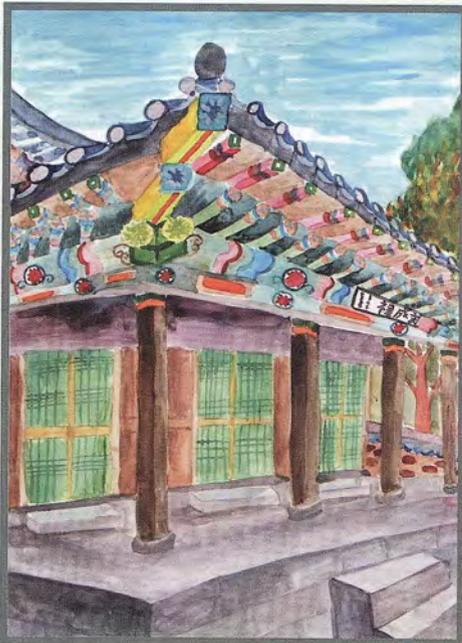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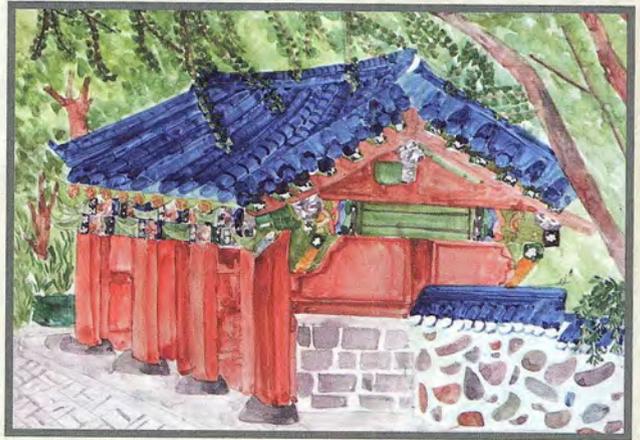


초고부 은상
와석초 서지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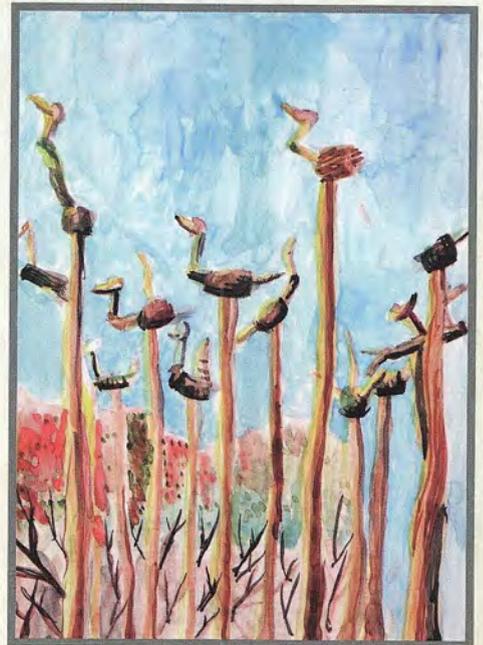


초고부 은상
와동초 이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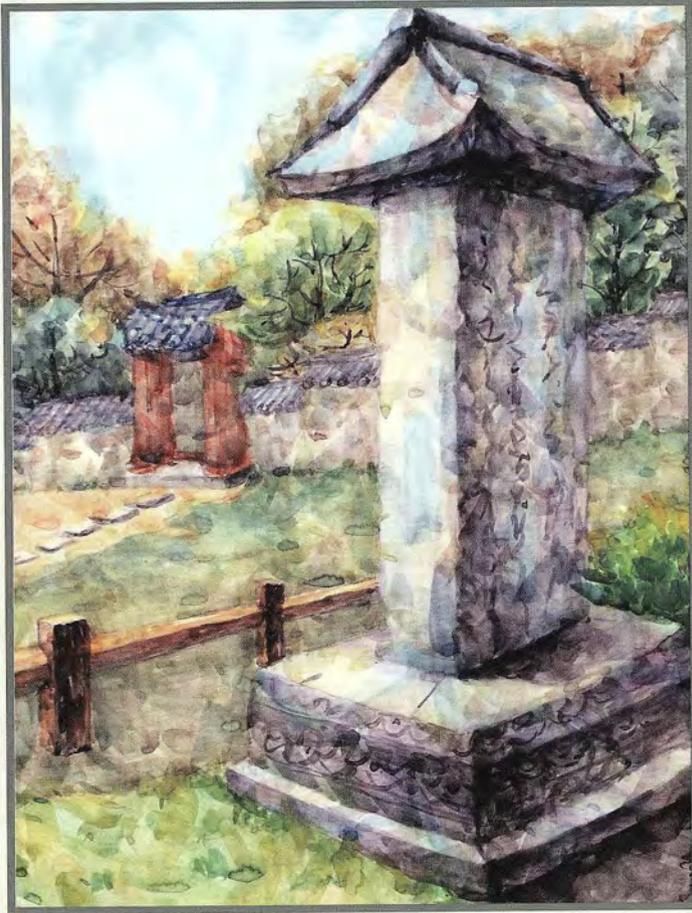
초고부 동상
청암초 민지오



초고부 동상
봉일천초 박미현



초고부 동상
새금초 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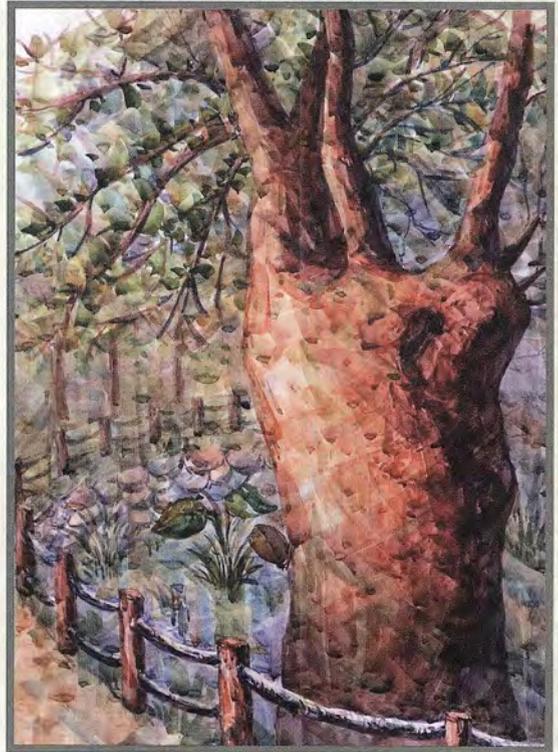


중등부 금상

법원여중 김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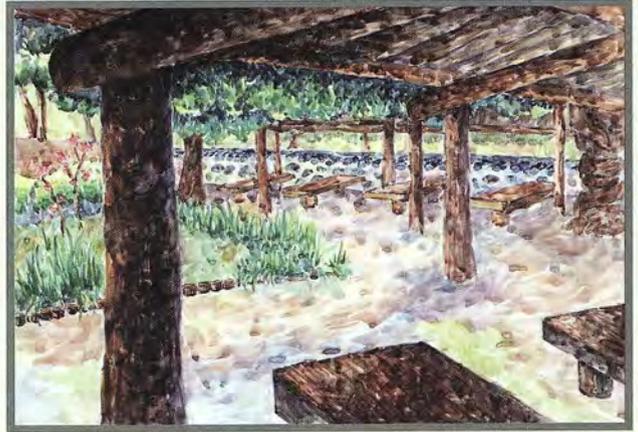


중등부 은상
어유중 왕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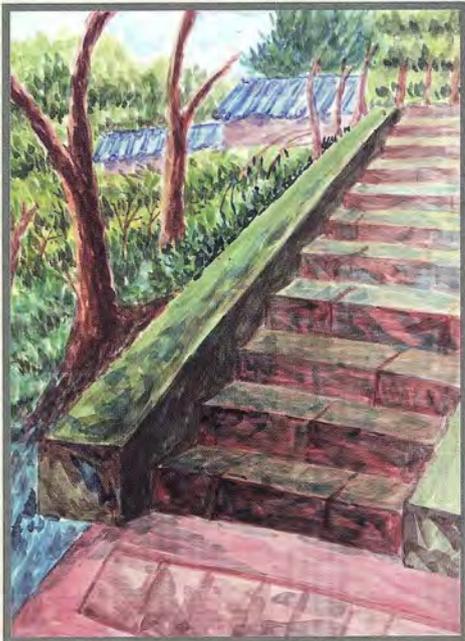


중등부 은상
지산중 이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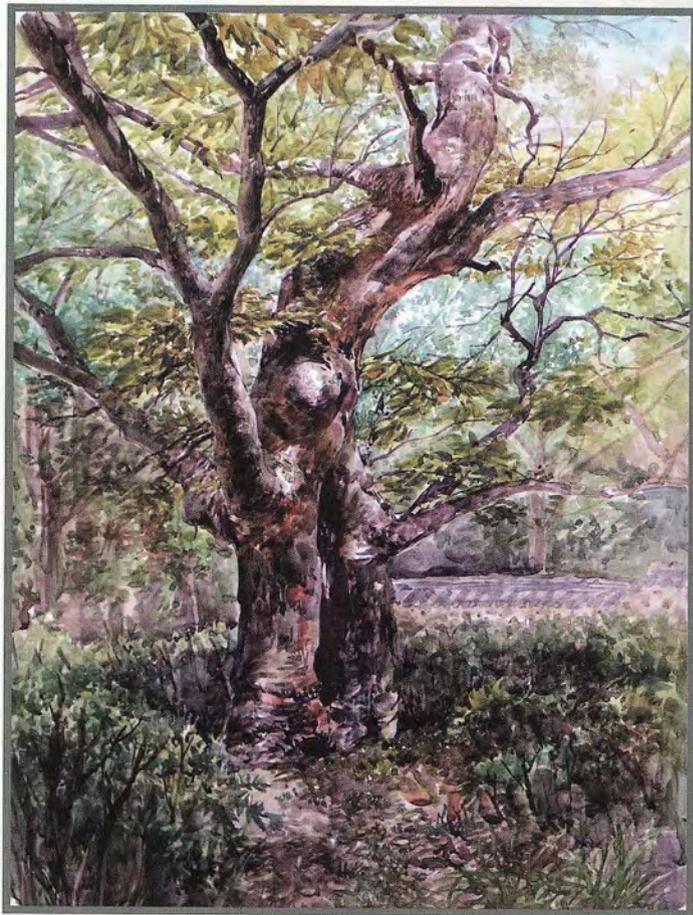
중등부 동상
지산중 신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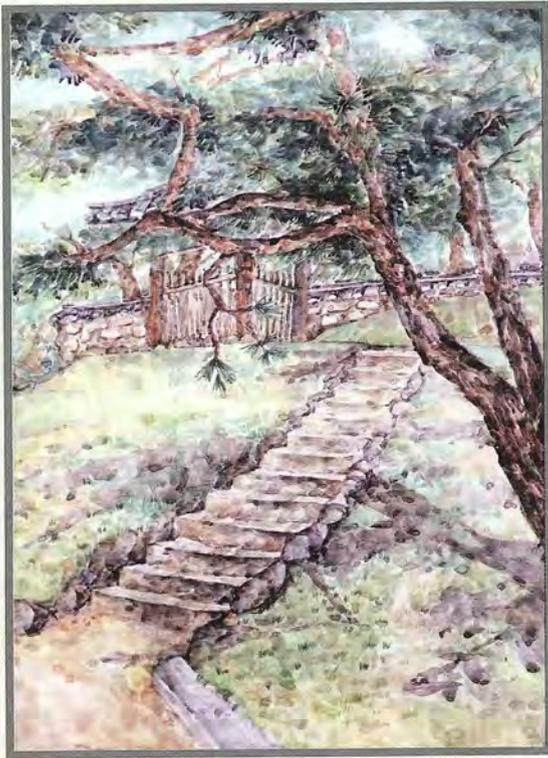
중등부 동상
어유중 최광진



중등부 동상
금릉중 안소진



고등부 금상
봉일천고 이지현



고등부 은상
봉일천고 권혜림



고등부 은상
봉일천고 강나래



고등부 동상
봉일천고 이현경



고등부 동상
봉일천고 유승진



고등부 동상
봉일천고 황은정

● 파주문화원 문화가족 모집

- 향토문화 보존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파주문화원에서는 파주지역 문화 발전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문화가족을 모집합니다.
파주문화원 문화가족이 되시면 각종 문화원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파주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토사 자료 수집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향토문화의 자료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료 : 고문서, 전적류, 문집류, 고지도, 문중보관문서, 교지류, 일반향토자료, 행정자료, 교육자료, 유적, 전설, 민담, 민요, 지방유래, 전통놀이 그 외 각종 사진류 및 영상자료 등

● 파주문화 원고모집

“좋은 책은 좋은 원고에서 나옵니다”

매년 발간되는 「파주문화」에 기고해 주실 참신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집필 장르 : 자유선택 (파주의 역사와 문화 관련 내용)
- 집필 분량 - 특별기고 : A4 5장 이상 - 향토의 맥 : A4 3장~4장
- 원고 마감 : 매년 10월 말일
- 보내실 곳 - E메일 접수 : pajuculture@hanmail.net
 - 우편접수 : 파주시 아동동 산 31번지 파주문화원 우편번호 413-020
 - 내방접수 : 파주문화원 사무실
- 문의 전화 : 031-941-2425, 031-948-2688
- 원고 보내실 때 유의점
 가.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신작이 더 좋습니다.
 나. 작품 말미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 등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급하게 연락드릴 연락처나 핸드폰 번호도 꼭 적어주세요.

2009년 제23호
파주문화

인쇄일 : 2009년 12월
발행일 : 2009년 12월
발행인 : 민태승
발행처 : 파주문화원
(031)941-2425
(031)948-2688
인쇄 : 승림 D&C
(02)2271-2581

